

군선교 신학

15

| 한국군선교신학회 편 |

비전2020운동을 실천하는
MEAK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 3).

☞ 비전2020실천운동공동기도문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60만 국군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민족·인류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
서 1999년 2월 26일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복음화와 인류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회의 등 군선교사역과 관련된 각종
행사 시 공식순서에 포함하여 함께 낭독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생명력 있는 군선교사역 합심기도 제목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1.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2.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 이상의 3,700만 기독교 신자 국가가 건설되게 하시며,
3. 매년 진중세례(침례) 목표 20만 명 결실을 맺게 하옵시며,
4. 매년 20만 명 군인 신자 결연과 1천여 군인교회의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5.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하게 하시며,
6. 260여 군종목사, 380여 군선교교역자, 기독교군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사역을 인도하시며,
7. 장병들의 병영 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랑한 생활로 기독교문화가 확산되게 하시며,
8. 모범 국민 육성 및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이루어 주시며,
9. 군선교회원교회의 후원과 사랑의 양육 및 VIP(귀빈) 가족전도 등 10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10. 기독교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사 훈련(군입대자 비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결혼/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 하오며,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 ● 머리말

군선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으로 장병들의 사생관과 국가관을 올바로 세워 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 청년장병들의 뜨거운 에너지를 한국교회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군선교는 광야와 같은 군대에서 청년신자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지역교회로 재파송하는 아주 특별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선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군종목사, 군선교교역자, MCF회원들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바르게 서야 은혜를 갈망하는 장병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병들을 위한 군선교 사역현장에서는 각개전투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와의 관계는 물론 군선교연합회, 유관기관, 군목파송 10개 교단이 연합할 때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에 올해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에서는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군선교 사역(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관계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군선교의 중심축인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는

동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때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이 성도들에게는 실망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 간극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연합방법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가 이뤄집니다.

군선교신학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군선교신학이라는 부분을 개척, 군선교를 신학적으로 논증하고 중장기적인 군선교 전략과 전술을 개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시는 회장 이종윤 목사님과 군선교 정책개발과 적용을 위해 힘을 다하시는 연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이 출판을 위해 수고해 주신 콤팩출판사 대표 이형규 장로님과 본회사무처 상근사역자들의 노고에 깊은 고마움을 표하며 군중목사, 군선교교역자, 독자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곽선희 목사

● ● 발간사

군선교신학회가 열다섯 번째 논문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인 열 사람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한 사람씩 보내시지 않고 둘씩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잠 4: 9-12).

성경의 윤리는 사람의 참된 덕(德)을 하나님에게서 독립시키지 않으신다. 사람이 진정한 덕을 소유하려면 그리스도(하나님)와 연합해야 한다. 하나님을 떠난 독립된 덕은 생명이 없는 조작된 것에 불과

하다. 덕 개념은 이원론적(二元論)으로서 진리가 아니다. 진리, 생명, 지혜, 의, 성결, 구속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찾는 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신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생명과 그 풍성함을 얻게 된다.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통해 동료 간에 연합을 기하는 것도 일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으나, 하나님과 연합을 먼저 한 이들과서 서로에게 참여하는 연합이 있을 때 진정한 동역자가 될 것이다.

본 논문집 출판을 위해 집필해 주신 여러분께, 독자와 함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한국 군선교 사역에 좋은 지침이 되기를 바란다. 군선교를 위해 부름 받은 군목과 군선교 사역을 위해 보냄 받은 군선교 사역자들이 바른 파트너십을 갖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6년 10월 6일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이종윤 목사

차 례

- 비전2020실천운동공동기도문 … 2
- 머리말 | 광선희 목사 … 4
- 발간사 | 이종윤 목사 … 6

- 10 파트너십과 협작을 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자
- 기조강연 | 이종윤

- 16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강화
방안 연구
- 발제 1 | 안만국

- 46 군선교교역자 제도 혁신 방안 연구
- 발제 2 | 정재원

- 117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강화 방안
연구”와 “군선교교역자 제도 혁신 방안 연구”에 대한 논찬
- 논찬 | 이규철

- 124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와 지도력에 관한 연구(II)
- 모세와 여호수아
- 연구위원논문 1 | 강사문

- 165 동성애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 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군선교 - 연구위원논문 2 | 강찬영
- 192 남북통합 과정에서의 군선교 - 공모논문 / 우수작 | 오상익
- 216 장병의 군복무 중 종교 변화와 군선교 전략 연구
- 공모논문 / 장려작 | 김성훈
- 246 군 장병의 위기 대응방안으로서 신앙활성화에 관한 연구
임마누엘 접근(Immanuel Approach)을 중심으로
- 공모논문 / 장려작 | 황미선

■ 부록 | 한국군선교신학회 「군선교신학」 논문작성법 ... 275

파트너십과 협작을 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자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관계정립을 위하여-

Serve for the Extension of the Kingdom of God with Partnership and
Cooperation: To Establish Sound Relations with Military Chaplain and
Military Mission Minister

■ 이종윤 Lee, Jong Yun

-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M. Div., D. D.)
 - 영국 Univ. of St. Andrews(Ph. D.)
 - 독일 튀빙겐 대학교
 - 장로회 신학대학교(D. D.)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비전2020운동 실천위원장
 - 장로교신학회 회장, 한기총 신학위원장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대표회장
 -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 서울교회 원로목사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실 준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
장의 기도를 하셨다. 그 기도의 핵심은 제자들의 연합이 강조되었

다. 군중목사의 수가 절대 부족하여, 군선교교역자들이 군중 사역을 돕고 있는 현실에서, 두 그룹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은 필수적이며 격려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1. 복음은 흩어진 제자들에게 관계회복을 위한 첫 번째 좋은 소식이었다.¹

하나님께서 흩어진 제자들을 회복시키실 때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 23) 하셨다.

다윗도 시편 133편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노래했다.

2. 그리스도 몸(교회)의 분열은 세계 선교의 방향을 방해하는 주요인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 20-23에서 연합을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과의 연합을 말씀한 것이지 세상과의 연합을 말씀한 것이 아니다.

혹자는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 힘을 가질 때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계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가장 타락할 때가 핍박이나 시험 중에 있을 때가

¹ *Lausanne Occasional papers*, 2004 Forum for World Evangelization, vol.1 (Thailand, 2004), 558,

아니고, 교회가 정치적 권력을 갖거나 또는 경제적 부를 누릴 때, 즉 세상적 힘을 가질 때 교회는 타락했고 오히려 가장 약해졌던 것을 교회사를 통해 분명히 볼 수 있다.²

3. 우리는 교회연합을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³

1) 구조적연합(Structural Unity)

신앙고백이 다르다 해도 모든 교회가 모여 이루는 연합운동이다 (WCC, NCC 같은 조직).

2) 닳은꼴 연합(Confirmity Unity)

자신과 비슷한 교회끼리 모여 이루는 연합운동이다(주로 보수적인 교회들의 연합).

3) 영적 연합(Spiritual Unity)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연합(요 17: 21)을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와 영적연합을 이룬 이들끼리 이루는 연합운동이다(성경적 연합).

4. 영적 연합을 이루는 조건

1)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이들의 연합이 가능하다(벧전 1: 22; 히 13: 1) - 가족 간의 연합

2) 성도의 교제 - 자기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

3) 몸의 지체 - 지체끼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 다양성과 상호

² 이종윤, 『요한복음강해 4권』 (서울: 필그림출판사, 1995), 198.

³ *Ibid.*, 198-201.

의존적

4)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양성(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

5. 크리스천 사역, 구조, 제도 등은 붕괴되고 파괴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협작을 격려하는 모든 노력들은 강하게 격려되어야 한다.

6. 이와 같은 현실들을 감안할 때 세계 복음화와 특히 군 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파트너십과 협작은 같은 목적을 갖고 사역하는 관계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즉 network 를 만들어 상호협력해야 한다.

7. 문제 해결의 Task Force 그룹의 참여자들과 교회 내의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들은 문제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전자통계를 on-line으로 교환하고 상호 의논해야 한다.

8.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해 줘야 한다.

1) 상대방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 만나서 대화를 깊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파트너십의 새로운 구조: 문제 제공자를 정하고, 기도의 영적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대화기법을 새로 개발하고, 지역 내 파트너십과 기능적 파트너십을 고려해야 한다.

9. 파트너십에서 지역 교회의 역할

- 1) 구조적, 기능적 역할을 둘 다 고려해야 한다.
- 2) 커뮤니케이션과 이해를 잘 다스려야 한다.

10. 하나님의 백성들이 넓게 퍼진 세상에서 Information과 격려를 서로 더불어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11. Web site로 상호 이상을 나누고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합작과 파트너십을 통한 운동 전개를 추진하는 것은 효과적일 것이다.

12. 특수 업무부서

1) 부대 간 또는 부대 내 파트너십을 개발,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 업무 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파트너십 제공자로서, 지도력과 추진력을 갖고 개인의 기능을 활성화해 주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불어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Task Force 특별 팀을 만들면 효과적일 것이다.

2) 위원회(또는 팀)의 멤버들이 중요하다. 그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전체회의의 결정까지 끌어낸다.

13.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을 위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networks와 연결고리를 통해 동역자간에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다면 Information이나 각자의 소원

을 팀의 위원들과 나누고 피차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게 될 것이다.

14. 군목과 군선교교역자 간의 연합수련회 또는 연합기도회를 통해 동역자 의식을 함양하고 같은 목적 수행을 위해 함께(더불어) 가는 파트너십과 협력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강화 방안 연구

A study for Effective Partnership about Military Chaplain
to Military Mission Minister

■ 안만국 An, Man Kuk

- 육군 제 26사단 성불무리교회 담임
- 군선교연구소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군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군선교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 완수를 위해 어떠한 사역의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군선교의 환경 특성상 군선교 사역자 간의 진정한 동역자 의식, 즉, 효율적인 파트너십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파트너십이 구축될 때는 군선교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군선교 전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금의 군선교 현장은 종교자유화와 인권 문제라는 거대

한 바람 앞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매년 논산훈련소를 비롯한 사단 신병 교육대에서의 세례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군인교회의 예배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군선교의 두 주체인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가 힘을 합쳐도 대단히 힘든 상황인데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현실이 군선교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점점 어려워지는 군선교 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군선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코자 연구하였다.

2.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군선교

한국 군선교의 특징은 합동 세례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1970년대 한신 장군에 의해서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집단개종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1972년에 육군 20사단에서 3,398명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시작하여 대대적인 전군 신자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집단개종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군대가 동일 집단(Homogeneous Unit)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군교회는 1990년대 제2차 세례 운동이 시작된 후 평균 20만 명 정도로 많은 세례를 베풀었다. 1997년 육군 훈련소에서 7,200명이 세례를 받았다. 2012년에는 9,014명이 세례를 받은 기록을 남겼다. 따라서 군선교는 진중세례라는 인식을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하고 있다. 이러한 세례를 통한 ‘기독교 신자화’는 군이 요구하는 신앙을 통한 무형 전력 강화라는 이념에 부합하여 타종교와의 갈등의 요소가 있으면서도 지속적

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또한 한국교회가 지난 세기 동안 교단 간의 신학적 차이와 정치 제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 선교 활동으로 자리매김이 되었다는 것은 군선교에 대한 한국교회가 갖는 중요성을 알 수가 있다. 지난 10년간 군대에서 세례 받은 인원은 다음과 같다.

〈표 1〉 비전2020 실천운동 사역 연도별 기독교 수세 실적 현황

(단위: 명 / 자료: MEAK제공)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원	154,808	153,225	174,550	171,435	182,614	184,320	177,110	159,632	141,395	152,238

1990년대에 들어서 제2차 진중세례 운동이 전개되면서 군에서 집단 개종 운동이 일어나자 한국교회는 진중 세례식에 대한 찬반 논쟁이 전개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군인교회가 세례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은 장병들이 전역 후에도 거주할 지역의 교회와 연합하여 양육할 수 있는 조직적인 사역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였다. 그 대안이 비전 2020 실천운동이다. 이와 같은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군인교회와 군선교연합회, 군선교 회원 교회(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최근 국내 선교의 길이 막혀 있는 한국교회에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아직도 군대는 황금 어장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통해 기존의 군선교 전략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선교신학적 성찰이 요구되고 있으며 한국교회 기독교 신자수가 비전 2020 운동을 전개한 1998년보다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훈련소에서 지속적으로 세례를 주어 세례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국방부 전수 조사에 나타난 종교별 비교 현황을 보면 무종교라고 응답한 병사의 수가 50%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 “진중세례는 곧 그리스도인이다”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2>의 현상은 현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손상과 무종교의 자유라는 인권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포스트모던적 사고에 영향 등의 외부적 원인이 있겠지만, 군 내부적 원인으로 세례 후에 체계적인 양육 및 관리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군선교는 기존의 진중세례운동을 지속하되 자대에서 초신자들에 대한 양육체계를 확립하여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하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표2> 종교별 비교 현황(국방부 전수조사 통계기준 / 2012. 9월)

(단위: 명 / 자료: MEAK제공)

구 분	합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	무종교
신자인원	630,000	180,497	58,754	84,215	1,620	722	325,808
종교대비	100%	55.4%	18%	25.8%	0.5%	0.2%	48.2%
신자대비	100%	28.6%	9.3%	13.3%	0.2%	0.1%	48.2%

한국교회와 군교회의 진중 세례 운동을 통한 신자화 확보에 주력했던 군선교 전략은 타종교들을 자극해서 오히려 군선교의 걸림돌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군선교 전략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히 다종교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선교 활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있다.

박성규¹는 “종파화합, 그 선교적 접근”에서 종교 다원사회의 환경인 군대 안에서 효과적인 선교활동을 위해서는 배타주의도 아니고 상대주의도 아닌 기독교의 결정적 독특성이 유지되는 제3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하였다. 채효기²는 “다종교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선교 전략-비전 2020 진중세례운동을 중심으로”에서 이제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군선교는 진리 없는 타종교에 대항하는 수준의 십자군의 정복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실천할 때만 진정한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군선교신학회 안에서도 현 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군선교신학회장이자 이종윤은 비전2020실천운동 10년을 맞이하던 해 군교회 내부적인 문제점과 외부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성경적인 전도전략을 제안하였다. 내부적인 문제점으로 첫째, 진중세례자의 소수만이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 둘째, 군인교회와 민간교회와의 연계성이 미비하다는 것, 셋째, 진중 세례를 받는 장병들의 수가 다소 감소하고 질적으로 퇴보하였다는 것, 넷째, 군목 등 지도자가 부족하여 군인교회의 체계적인 양육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비전2020실천운동이 2006년부터 시작된 국방개혁 2020으로 말미암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국방개혁 2020의 주 내용은 부대와 병사들의 숫자를 대폭 감축하는 대신 간부의 수를 늘리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전투력을 재조정하자는 것이다.³ 이에 따른 군선교는 간부 양성 기관

¹ 박성규, “종파화합 그 선교적 접근,” 『신앙지도』 제 27집 (육군본부, 1998), 23-30.

² 채효기, “다종교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선교전략 연구,” (미간행 연구보고서, 2003), 41-50.

³ 『조선일보』 2009. 3. 13

에서의 간부 복음화와 자대 MCF 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성찰과 함께 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에서 연합하여 병영에서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안 캠페인’ 사역을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12회 한국교회 군선교 신학심포지엄(2012년)에서 박종화는 군복음화의 실체는 양적 성장의 담론을 넘어 ‘질적 성숙’의 단계로 속히 진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선교 방향을 ‘질적 성숙 지향의 선교 운동’이라 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선교 전략에 새로운 패러다임은 비전 2020 실천 운동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 선교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013년 ‘한국군선교연구소(소장: 소강석)’가 개소되면서 당면한 연구과제 중에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군선교에 있어서 군선교교역자들이 군선교의 중요한 핵심적 구성원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군선교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군선교교역자들의 질적 성숙을 위한 대안과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들 간에 진정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전략이 요구된다.

3. 군선교 현장에서의 두 날개

군선교 현장에서 성직자의 신분을 가진 사역자들은 크게 군종목사와 민간인 신분으로 군인교회를 섬기는 군선교교역자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사역자들에 대한 바른 이해는 군선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파트너십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가.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신분과 역할

1) 군종목사

군종목사는 장교 인사법에 따라서 현역 장교로 임관한 목사들을 일컫는다. 임관의 방법은 두 가지다. 신학대학 재학 중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후 각 교단에서 인정하는 목사 안수 과정을 통해 성직을 취득하는 경우다. 군종장교 후보생으로 임관 전까지 국방부에서 관리가 된다. 또한 병사로 군복무를 마쳤고 안수를 받은 자 중에서 다시 군종목사로 임관하는 요원 출신 군종목사들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대체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안수를 받고 바로 임관하기에 그 나이가 27세부터 임관을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30대 초, 중반에 임관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현역 장교의 신분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로 일단 임관을 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똑같은 조건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된다.

군종장교의 신분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은 “군복을 입은 성직자”이다. 그렇다면 군종목사는 “군복을 입은 목사”라고 할 수 있다. 군인이면서 목사라는 이중적 신분을 의미한다. 이는 군종목사가 일반 목사와는 다른 현역 군인의 신분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군종목사의 임무와 역할은 교회 내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군종장교는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있는 군인이기는 하지만 다른 장교들과는 달리 총기를 휴대하지 않는다. 이는 국제법인 제네바 협약에 기초한 것으로 전시에도 총기를 휴대하지 않으며 군사적 지휘권이 없다.

군종목사는 종교 활동, 교육 활동, 선도 활동, 조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신부, 법사, 교무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성직자이기 때문에 성직과 관련된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모장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교 활동은 일반적인 목회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군에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기 때문에 통칭하여 종교 활동이라 한다. 기독교 종교 활동은 주일 오전, 밤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회, 구역 예배(속회), 주일학교, 여전도회, MCF, 신우회, 청년회 등 일반 교회의 모든 예배와 조직이 동일하다. 물론 군종목사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의 규모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군종목사는 보직된 부대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모든 목회활동을 책임지고 주관하게 된다. 군종목사는 목회활동만이 아니라 전 부대원을 위한 군중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회와 군중활동의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목회활동은 부대의 활동과 운영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대에 중요한 훈련이 있을 경우 목회활동을 탄력 있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군종목사는 목회활동 이외에도 장병들의 “가치관, 인생관, 사생관, 국가관의 확립에 중점을 두고”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격오지, 훈련장, 특수 근무자, 수감자, 환자, 생활관 등을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며 군생활 중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거나 이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인 비전캠프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도 활동은 비록 종교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선교의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이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목사가 모든 장병들을 대

상으로 교육을 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군종목사의 특수한 선교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독교와 목사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요즘 한국의 청년들이 직접 목사를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한국교회와 기독교에 매우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병들이 있는 현장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장병들과 함께 하는 ‘현장 위주, 장병 중심의 군종활동’은 군의 사기 고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병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고 그들의 어려움과 위기를 함께 나누며 적극적으로 위기에 개입하는 이런 일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임재의 사역’(ministry of presence)이며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던 사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 외에 군종목사는 지휘관의 특별참모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대의 사기 혹은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지휘관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2) 군선교교역자

군종목사가 현역 신분의 성직자라면 군선교교역자는 민간인 신분으로 군의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목회자다. 현재 우리 군의 현실은 군종장교들이 모든 시설을 다 담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국방부 훈령을 통해서 군 장병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선교교역자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기독교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대대급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군종목사는 연대급 이상부터 보직되기 때문에 대대급의 교회의 목

회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연대 군종목사가 몇 개의 대대 교회를 함께 맡아서 예배를 인도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대대급교회를 군종목사가 담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군선교 현장에서 군선교교역자(민간 성직자) 관리 훈령은 2001년 처음 제정되었다. 이전에도 많은 민간 성직자들이 활동은 하고 있었지만 위촉,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훈령 이후로 체계적인 제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군 종교활동 지원 민간 성직자 관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 1338호, 2011.7.22.개정)에 따르면, 군선교교역자는 만 60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고 만 65세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해당 부대의 군종참모의 소요제기에 따라 각 종단별 추천기구⁴가 추천하고 해당 부대 심의위원회⁵에서 최종 심사하여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발된 성직자는 장관급 지휘관이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된다.

군선교교역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국방부 훈령 제1338호 ‘군 종교활동 지원 민간 성직자 관리 훈령’에 이렇게 정하고 있다. “민간 성직자는 상급 부대 군종참모의 지도하에 종교행사 및 종교 교육을 지원한다. 다만, 부대장 및 군종참모(장교)가 요청하는 경우 인성교육, 위문, 상담 등 군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종교시설 사용에 있어서도 정기 종교행사 이외의 특별행사는 상급 부대 군종목사와 협조해야 하며 군종장교가 직접 보직된 부대의 종교행사 및 종교업무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성직자는 원

⁴ 각 종단별 추천기구는 다음과 같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기독교), 천주교 군종교구청(천주교), 불교 특별군종교구(불교), 원불교 특별교구청(원불교)

⁵ 심의 위원회는 소요 제기한 부대가 속한 장관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제대에 두며 그 지역의 군종참모(장교) 전원이 위원이 된다.

칙적으로 담임목사라고 부를 수 없으나 상급 부대 군종목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담임목사라고 부를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민간 성직자는 일반 교회에서 담임목사의 신분이라기보다는 협력목사 혹은 부담임목사의 신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역에 있어서도 제한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배나 성경공부 등을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담임목사와 동일하며, 다만 행정적으로 군대라는 독특한 조직 문화 속에서 제한된 허락 범위하에서 활동하여 그 활동에 대해서 상급 부대 군종목사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지휘관이나 상급부대의 군종목사가 요청할 경우 군선교 교역자도 종교 활동 외에 인성교육이나 상담과 같은 군종목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규정에 들어 있는 바, 반드시 목회활동에만 그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로도 많은 민간 사역자들이 지휘관의 요청으로 상담이나 위문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역시 군종목사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임에 틀림없다.

나.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사역의 특성

군선교 사역의 두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도 있다. 같은 선교 현장에서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 것은 함께 사역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된다.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각자가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함께 일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상황이 불필요하게 커지고 이에 따라서 사역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군선교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위

에서 언급한 군종목사와 민간 성직자를 비교하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사역의 공통점

첫째, 신분상의 공통점이 있다. 신분에 있어서 성직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군종목사, 군선교교역자가 모두 하나님의 부르스에 응답하여 선교 현장에 나선 사역자들이다. 평신도 사역자가 아닌 목회자다. 일부 군선교교역자 중에는 안수를 받지 않은 전도사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안수를 받은 목사다. 이와 같은 목회자라는 신분에서 오는 역할의 공통점도 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활동을 인도하고 있다. 이것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군에서 장병들의 종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한 전문 과정을 마친 성직자들을 장교의 신분으로 혹은 민간인 신분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둘째, 사역의 현장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역의 현장도 공통점이 있다. 같은 군대 조직 속에서 활동하는 목회자이므로 군인교회를 현장으로 삼고 있으며 따라서 군인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한다. 장병뿐 아니라 군인 가족들(아내, 자녀)도 목회의 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부대 규모에 따라서 교회의 규모도 달라지며 교회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회중의 범위도 다양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대대급, 연대급 교회의 목회가 주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라면 사단급 이상의 교회는 병사들과 함께 간부와 그 가족들을 위한 목회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 어떤 일부 군인교회들 가운데는 민간인 신자들이 있기도 하다. 회중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군인교회를 그 현장으로 하고 있다

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셋째, 사역의 대상이 청년을 중심으로 한 선교라는 공통점이 있다. 군종목사나 민간 사역자는 20대 청년들을 회중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목회활동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해서도 선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신학적으로도 목회활동을 넘어 장병들의 현장에 머물면서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는 일반적인 군종활동 역시 선교의 영역에 들어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군이라는 특수조직 속에서 군조직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군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군종목사뿐 아니라 군선교교역자도 군대 조직의 틀 속에서 조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군대에서 요구하는 질서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이 추구하는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는 목회활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대에서 장병들에게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앙이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2)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사역의 차이점

첫째,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는 신분 면에서 둘 다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군종목사는 동시에 현역 장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둘째, 사역의 역할 면에서도 군종목사는 목회활동 외에도 교육, 상담, 조언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군선교교역자는 목회활동만을 위해 활동을 보장받았고 제한적으로 지휘관과 군종목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다른 군종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민간 성직자들이 부분적으로 군

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군종목사는 그 일을 자신의 고유한 업무로 추진하며 현역 신분이기에는 보다 용이하게 일할 수 있지만, 민간 성직자는 이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제약이 있다.

셋째, 책임과 권한 면에서 차이가 있다. 군종목사가 현역 군인 신분이기에는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 성직자가 활동하는 대대급 부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민간 성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종목사에게 있다. 따라서 민간 성직자가 교회를 맡아서 목회활동을 하더라도 군종목사가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권한이 있다. 재정 사용 문제라든지, 외부 교회를 초청한다든지, 정기 예배 외에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지, 부대원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 군선교교역자는 상급부대 군종목사와 상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제적 차이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군종목사는 현역 장교로서의 월급을 받고 생활한다. 그러나 민간 성직자는 자비량 혹은 교단 후원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방비에서 군선교교역자의 활동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나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나 소속 교단에서 충분히 선교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군종목사와 민간 성직자가 맡고 있는 교회의 경제력도 차이가 있다. 군종목사는 초임 때 연대급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연대 교회를 담임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상급 부대에서 활동하게 된다. 상급 부대 교회일수록 교회의 경제적 구조는 안정된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군선교교역자들이 섬기는 대대급

교회는 간부 신자가 한두 가정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상급 부대 교회에서 정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워낙에 많은 대대급교회가 자립할 정도로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개인적이고 교회적인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 군인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군선교교역자의 경우는 사역에 집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이 심해지면 최초에 마음먹었던 자비량 선교에 대한 소명감이 점점 퇴색될 가능성도 있다.

다.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현황

2015년 현재 군종목사의 교단별 파송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2015년 군종목사 교단별 파송인원 현황

(단위: 명 / 자료: MEAK 제공)

구분	총계	고신	기감	기성	기장	기침	기하성	대신	예성	통합	합동
군목	262	13	56	22	14	12	13	7	9	65	48

현재 군종장교 파송 기준은 군 내 신자 수에 대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군대 안팎의 군선교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종목사의 수는 예전에 비해 감소되어 2015년 현재 군목의 수는 262명이다. 해가 갈수록 군대 내의 교회는 증가하는 반면 군종목사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군선교교역자는 사역의 유형에 따라 전담 군선교교역자와 비전담 군선교교역자로 나눌 수 있다. 전담 군선교교역자는 각 교단에서 군선교를 위해 군인교회에 정식으로 파송하여 군인교회 사역만을 전담하고 있는 사역자를 말하는데, 교단에 따라 군

선교사 혹은 전도목사라는 명칭으로 호칭되기도 하며, 교단에 따라 사역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교단 법에 의해 확보된 상태에서 파송되기도 하지만 자비량 사역자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전담 군선교교역자는 민간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적 혹은 비정규적으로 군인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를 말한다. 비전담으로 사역할 경우에는 한 사람의 사역자가 하나의 군인교회를 정해 놓고 사역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군인교회를 여러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예배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표 4〉 2015년 군선교교역자 교단별 파송인원 현황

(단위: 명) / 자료: MEAK 제공

구분	총계	고신	기감	기성	기장	기침	기하성	대신	예성	통합	합동	기타
전담	426	12	72	8	0	36	14	80	16	77	72	39
비전담	216	3	58	3	4	14	7	16	0	36	49	26
계	642	15	130	11	4	50	21	96	16	113	121	65

위의 표에서 2015년 현재 262명이라는 군목의 숫자와 비교해 볼 때 2.5배 이상의 인원이며, 전담 426명, 비전담 216명으로 총 642명이 군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침과 대신교단은 군목 파송에 비해 군선교교역자의 수가 눈에 띄게 많고, 기감과 통합, 합동 교단은 군목과 군선교교역자의 수가 다른 교단에 비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라.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들과 사역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들은 ‘군선교’라는 같은 목표 안에서 사

역하고 있는 군선교사들이다. 군종목사는 군이라는 조직 안에서 권위와 경제적 안정 및 신분을 보장 받는다. 다양한 군선교를 위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종목사들의 경우, 군 조직 안에서 성직자와 장교로서의 이중적 신분과 역할로 인해 갈등을 겪는다. 계급적인 갈등도 경험하게 되며, 지휘관의 개인 참모로서 지휘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부대의 규율과 통제를 받아야 하며 성직자로서의 품위와 역할뿐만 아니라 장교로서의 품위도 행동도 요구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목사인가? 장교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휘관과의 갈등, 타종교 성직자들과 신자들과의 갈등, 진로에 대한 갈등, 신자들 안에서의 갈등 등 다양하게 갈등의 양상이 드러난다. 이러한 갈등은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과 개인의 신앙, 가치관에 따라 갈등의 강도가 차이가 있다. 이석우⁶는 “군목의 역할 속에 나타난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군종목사들은 임관 시 실무 교육이나 선배들의 조언들을 통해서 군선교 현장에 대한 통전적 이해를 갖게 되면서 적응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군선교교역자들의 경우, 첫째, 민간인 신분으로 이러한 규정과 통제가 자연스러운 타문화권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적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군종목사와는 다른 민간인 신분과 제한된 역할은 군종목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갈등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선교교역자들은 같은 조직 안에 있으면서도 제한적인 신분, 역할로 인하여 사역에 대한 좌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⁶ 이석우, “군목의 역할 속에 나타난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1-39.

이다. 뿐만 아니라 사역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생애 발달 주기에 따른 중년기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인 스트레스는 군선교에 대한 동기 체계 및 개인의 인지 체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군선교 현장에서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박기영⁷⁾은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군종활동에 대한 이해차이에서 나온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각 집단이 원하는 대로 서로의 요구가 충족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는 데서 갈등의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선교교역자가 군에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 목양 사역 현장에서 군목들과 종종 갈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와의 견해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5〉 군종활동에 대한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견해

구 분	군선교교역자의 견해	군종목사의 견해
군종 활동 주체	군목보다 수적으로 많고 장기사역을 하는 군선교교역자들의 역할이 크므로 군목은 오히려 군선교교역자들을 예우해야 한다.	군목은 지휘관의 참모로서 예하 부대 군인교회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군종활동의 주체자이다.
활동 영역	소속 부대 예배 활동뿐만 아니라 기타 활동(위문, 상담, 교육) 등에 대해서도 군목은 군선교교역자에 대해서 간섭할 필요가 없다.	군선교교역자는 군목의 활동 영역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위촉되었으므로 군선교교역자는 군목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⁷⁾ 박기영, “민간 성직자와 군종 장교와의 관계,” 『군종』 4 (육군본부 군종실, 2003), 76-95.

지휘 계통 확립	애로 및 건의사항이 발생할 때에 군이 군목과 협조할 필요가 없고, 평소에 협조관계가 원활한 지휘관과 직접 업무를 협조하면 된다.	군선교교역자는 종교 활동이나 기타 활동 중에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군목의 협조를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회 재정 운영	대대급교회의 담임목사는 군선교교역자이므로 군목의 통제를 받을 필요 없다.	교회 재정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필요시(정기적으로)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책임과 권한 면에서 차이가 있다. 군종목사는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군선교교역자가 대대급교회를 맡아서 목회활동을 하더라도 군종목사는 군의 조직 안에서의 지도할 책임이 따른다. 예를 들면 재정 사용문제, 외부 교회 초청 행사, 정기 예배 외에 특별 행사, 부대원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하여 군종목사와 상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군선교교역자들은 자신들의 목회에 걸림돌로 여기며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조직의 목적과 조직 체계, 의사소통방법이 사회와는 현저하게 다른 군문화 특성을 성숙신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때 군선교교역자들의 개인 심리적인 관계와 사역에 있어서 갈등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4.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 간의 파트너십의 실제

군선교사역자 두 주체 간의 파트너십의 실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종목사 42명과 군선교교역자 75명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2가지로 첫째는 군선교사역

자 두 주체 간에 상대방을 진정한 동역자로 인식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고, 둘째는 상대방에 대하여 진정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5가지 이상 기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파트너십의 실재를 현장 속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2차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비교적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대를 대상으로 약 1개월간의 기간에 걸쳐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 및 현장 확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가. 군종목사들의 설문 조사 결과

〈표 6〉 현역 군목 설문조사 대상

구분	대령	중령	소령	위관	계
인원	2	5	15	20	42

1) 군종목사로서 군선교교역자들을 진정한 동역자로 인식하고 있는가?

위 설문에 대한 결과는 대령 및 중령급 군종목사는 100% 진정한 동역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소령급 군종목사는 15명 중 11명(73.3%)이, 위관급 군종목사는 20명 중 10명(50%)이 진정한 동역자로 인식한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42명의 현역 군목 중 28명(66.7%)이 진정한 동역자로 인정한다고 응답하였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진정한 동역자로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 초임 군목일수록 진정한 동역자라는 인식이 낮음을 나타내었다.

2) 군종목사로서 군선교교역자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위 설문에 대해 개인별로 5가지 이상 기록하도록 하였고, 그 내

용을 빈도수에 따라 가장 높은 순으로 10가지를 정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7〉 군종목사로서 군선교교역자들에게 바라는 것

순위	바라는 것
1	국방부 훈령을 잘 준수해 주었으면(은퇴 등)
2	지휘관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나가길
3	재정 관리를 투명하게 해주었으면
4	설교를 부대와 병사들에게 합당하게 해주길
5	부대 보안 규정을 잘 지켜주었으면
6	각종 초청 예배, 위문 행사 등에 대하여 보고 및 협조 요망
7	군종병들을 잘 관리하고 좋은 관계 유지
8	교회당 관리를 잘 해주길
9	설교 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삼가 주길
10	각종 소집 교육, 조찬 기도회, 교회 연합 행사에 적극 참여해주길

나. 군선교교역자들의 설문 조사 결과

〈표 8〉 군선교교역자 설문 조사 대상

구분	기감	대신	통합	합동	기침	기하성	예성	계
인원	10	21	19	18	3	1	3	75

1) 군선교교역자로서 군종목사를 진정한 동역자로 인식하고 있는가?

설문조사 결과 군선교교역자 설문조사 대상 75명 중 70명(93.3%)

이 군종목사들을 진정한 동역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 군선교교역자로서 군종목사들이 진정한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75명 중 22명(29.3%)이 군종목사들이 진정한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3) 군선교교역자로서 군종목사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점은?

위 질문에 대해 개인별로 5가지 이상 기록토록 하였고 그 내용은 빈도수에 따라 가장 높은 순으로 10가지를 정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9〉 군선교교역자로서 군종목사들에게 바라는 점

순위	바라는 것
1	진정한 동역자로 대해주는 따뜻한 태도를 보여주었으면
2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 주기적인 간담회를 가졌으면
3	가끔씩 예하 교회 방문하여 격려해주었으면
4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예우해주었으면
5	위촉식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해주었으면
6	대대교회 리모델링 등 행사 시 담임목사로 인정하고 순서도 맡겨주었으면
7	교회 재정 관리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았으면
8	교회당 보수 등 교회 관리에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9	6.25 구국성회 시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었으면
10	은퇴 시 적절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있었으면

다.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 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사례 연구 결과

〈표 10〉 사례 연구 대상 부대 사역 환경

- ○군단 ○○사단
- 군종목사 - 소령 1 (군종 참모), 대위 1, 중위 1
- 군선교교역자 - 16명
- 교회 수 - 22개
- 지휘관 (사단장) 신앙 - 천주교

사례 연구를 위하여 사전 취지를 사단 군종 참모에게 설명하고 2016. 6. 13~7. 16까지 5회에 걸친 사단 및 여단 군종목사 면담, 사단 MCF 조찬기도회 참석, 간담회 참석, 7회에 걸친 군선교교역자 면담, 5개 대대급교회 방문 및 대대장급 지휘관 면담을 통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발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단 MCF 조찬기도회 시 전 군선교사역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때 설교를 두 사역자 간에 번갈아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군선교사역자 및 MCF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를 통해 사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며 애로 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둘째, 현역 군목들과 군선교교역자의 진정한 동역자 의식 고취를 위하여 전반기는 군선교교역자회에서, 후반기는 합동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사단 군종목사가 주기적으로 예하 부대 지휘관을 만나서 군선교교역자들의 애로 사항을 이야기해주고 격려 방문을 하고 있다.

넷째, 사단 내 전 사역자가 연합하여 월 1회 예하 대대교회를 순

회하면서 부대 안전 기도회를 개최하여 부대와 군선교사역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선교교역자들의 사역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있다.

다섯째, 사단 군목이 월 1회 사단교회 전도회와 연합하여 예하 대대 교회를 순회하여 주일 오후 예배를 지원해주고 있다.

여섯째, 분기 1회 정도 사단 군목이 전 사역자들을 식사 초청하여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고 또 군종계통의 강조사항을 이야기하는 등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일곱째, 수시로 상호간에 전화 통화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소통하고 있다.

라. 소결론

군선교사역자 두 주체 간의 파트너십의 실재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 군종목사로서 군선교교역자는 진정한 동역자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약 66.7%가 그렇다고 답변한 반면 군선교교역자로서 군종목사들이 진정한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있는가에 대해 29.3%만이 그렇다고 답변하여 진정한 동역자에 대한 인식이 두 주체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군종목사로서 군선교교역자들에게 바라는 것 중 가장 핵심 사항은 모든 사역을 규정과 원칙에 맞게 무리 없이 사역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군선교교역자로서 군종목사들에게 바라는 것은 진정한 동역자로 인정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또한, 성공적으로 파트너십이 작동되는 부대는 모든 사역자들이 연합하여 힘차게 사역해 나감으로써 군선교의 놀라운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 간의 파트너십 강화 방안

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는 양자 간의 인식의 변화가 선결 과제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들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함께 선교적 목적 안에서 공생하는 진정한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 현재 국방부 민간성직자 관리 규정 중에 위촉과 해촉 관련 항목이 있다. 해촉과 관련되어서 군선교교역자들에게 사역지 상실에 대한 긴장감은 갈등과 스트레스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군선교교역자들은 군종목사의 특수한 위치와 군이 부여한 권위를 인정하고 필요한 지침과 감독을 수용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군종목사들은 군대에서 허용되는 힘을 군선교교역자들을 돕고 그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군종목사는 적절하게 좋은 어머니와 같은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하고 군선교교역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면서 군선교교역자들로 하여금 신분과 역할의 한계 안에서 독립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군선교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군종장교(참모)의 직책을 통해서 제한된 신분과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는 군선교교역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 선교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신실한 동반자적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군종목사들과 같은 신분과 역할, 재정적 후원, 사회적 인식 등과 같이 평등한 입장에서 사역을 하기는 어렵지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필요를 채워줄 때 신실한 동반자적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사례 1] 2012년 60사단 교회는 영락교회 2여전도회와 협력하여 12사단 전방 대대급교회에 전담사역자를 파송하였다. 군인교회 교

인들은 후원기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2년 동안 월정현금을 약정하였다. 12사단 전방 교회는 군종목사가 주일에 5회의 예배를 드리다보니 부득이 16시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예배 외에는 목회적 돌봄을 줄 수 없는 곳이었다. 전담 사역자가 처음 부임 시에는 40여 명의 장병들이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현재 15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매주 새 신우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교육할 수 있는 양육 시스템이 정착되었고, 토요일에는 군종병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다. 군교회가 대대급교회와 군선교교역자들을 돕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나. 제대별 파트너십 강화 방안 실천

〈표 11〉 제대별 파트너십 강화 방안

제대	파트너십 강화 방안
군사령부급 이상~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종목사단 대표와 군선교교역자 대표 간 수시 간담회 개최 (군선교 정보 제공, 애로사항 청취, 파트너십 강화 등) - 각각의 수련회 시 대표자 초청 대화의 시간 마련 - 연말에 군선교사 초청 위로 및 격려 예배 실시 (군종목사단 및 KMCF 연합) - 6. 25 구국성회 시 군선교교역자 참여기회 확대 - 장기적으로 통합 수양회 개최
군단급 부대 (지역 군목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민간 성직자 소집 교육 시 현역과 연합행사 마련 (세미나, 체육 활동 등) - 분기 1회 연합 부대 안전 기도회 개최 (사단별 순회) - 군단 교회에서 군선교교역자 초청 헌신 예배 실시 - 군단 내 군목 및 군선교교역자 연합 수련회 개최 (연 1회)

사단급 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단 MCF 조찬 기도회 동역 (전 사역자 참석, 설교 기회 제공 등) - 대대단위 순회 부대 안전 기도회 개최 (월 1회) - 사단 교회에서 대대급교회 예배 지원 (월 1회) - 사단 내 군목 및 군선교교역자 연합 수련회 실시 (연 2회) - 사단 군목 주기적으로 예하부대 방문 지도 및 격려
각 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조찬 기도회 정예화 (월 1회) - 수시 대표 간 간담회 개최 - 장기적으로 통합 수양회 실시

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제도 및 환경 개선 사항

첫째,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지난 2001년 제정된 “군 종교활동 지원 민간 성직자 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 1338호, 2011. 7. 22 개정)이 군선교 환경과 시대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11조 2항 “군종참모(군종장교)는 정기 종교 행사 이외의 특별 종교 행사를 위해서는 민간 성직자의 해당 부대 종교 시설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목회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자칫 파트너십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바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위 “국방부 훈령 개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여기에 반드시 군선교교역자 대표를 참여시켜 군선교교역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교회가 군선교교역자들에게 군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서적, 영적, 물질적 지원이 요구되며 이에 현역 군목들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 현재 한국교회는 군선교교역자들에 대

하여 무관심, 편견, 선입견 등의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군선교교역자들은 실패한 목회자가 아닌가 하는 심리적 위축감, 사역지가 없는 목회자라는 비애감, 군대가 마지막 사역지가 될 수 있다는 절박감, 자신들의 사역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초라함, 신뢰받지 못함에 대한 불쾌감 등의 왜곡된 평가로 인해 사역에 있어서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견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민간 목회자들과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인 열등감, 해외 선교사 및 군종목사들과 상대적인 대우에서 오는 차별감 등의 사회적 비교에서 오는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찾아올 때 군선교교역자들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위축되고 사역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군선교교역자 스스로 사회적 비교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한국교회가 관심도 없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에 군선교교역자들은 영적인 침체와 우울 증상이 드러나기도 한다. 한국교회는 군선교교역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교회는 군선교교역자들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울타리가 되어 주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산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영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 일에 군종목사단이 앞장서서 이끌어주고 군선교연합회와 각 교단의 군선교 지원부서는 구체적인 후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례 2] 여의도 침례교회는 2011년에 11사단 군종목사가 보직되어 있지 않은 여단급 교회에 전담 군선교교역자를 파송하였다. 전담 사역자를 강원도 홍천으로 이주를 시키고 교회가 전담 사역자

의 생활비와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군선교 사역에만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의도 침례교회는 물질과 교회 내 인력을 투입하여 낙후된 교회의 리모델링, 진중 세례식, 장병 이·미용 봉사, 교회 내 전문가들을 활용한 진로 지도 등의 사역을 하였다. 교회가 전담 사역자를 파송한 후 군인교회는 일 년 내 150명에서 230명으로 증가하였고, 군인 가족 수도 배나 부흥하였다. 세례인원도 35명에서 85명으로 늘어났다. 수적인 성장뿐 아니라 예배, 전도, 봉사, 교제 등 교회의 제반 기능들이 살아남으로써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군선교 모델에 많은 열매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11사단의 대대급교회에 전담 사역자를 추가로 파송하였고, 최전방 15사단 지역에도 파송하여 군선교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다.

6. 나가는 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의 모든 막힌 담을 허셨다(엡 2: 14).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다.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군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군선교의 두 날개인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 동역자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인 파트너십으로 사역해 나갈 때 군선교는 재탄력을 받아 시대적, 민족적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기대해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raw strengthen method for effective partnership military chaplain to military mission minister. The result of study is followed.

First, most important thing have to awareness of real co-employment military chaplain to military mission minister.

Second, each unit practice various method that strengthen to effective partnership military chaplain to military mission minister.

Third, all sorts institution and environment about that obstruct effective partnership must be improved.

주제어(Key words):

군종목사(Military chaplain)

군선교교역자(Military mission minister)

효율적인 파트너십(Effective partnership)

군선교교역자 제도 혁신 방안 연구

A Study of the Renovation Plan of the Civilian Chaplain System

■ 정재원 Jeong, Jae Won

- 육군 제3군단 군종참모 기린대학교회 담임목사
- 군선교연구소 정책분과장



1.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는 역사상 겪어 본 적이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신자들의 감소는 물론 연일 보도되는 추악한 스캔들과 갈등, 부패한 교단정치는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이단들의 파상 공세까지 겹쳐 한국교회의 미래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는 대책이 바로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한 선교와 교육이며 이 사명을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군(軍)이다. 매 주일 수백 명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할 현장이 한국교회에 있는가? 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극심한 취업난과 진

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캠퍼스선교가 해외선교보다 더 어려운 현상이 된 지 오래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군선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군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주체인 대한민국의 군종 목사들에게 군선교교역자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분명한 동역자들이다. 현역 군종목사들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역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군선교교역자¹ 제도를 만들었다. 군선교교역자 제도는 군선교사역에 큰 기여를 하였다. 군인 신분의 현역 군종목사와 민간인 신분의 군선교교역자가 동역함으로써 군선교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었다. 대대급을 포함해 독립중대급까지 거의 모든 부대에 군선교교역자들이 위촉되면서 군선교를 위한 거점들이 마련되었고 군선교는 새로운 부흥의 길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군선교 현장에서 군선교교역자와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² 언제부터인가 군선교교역자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임지 마련을 위한 방편으로 사역지 분할 일명 ‘사역지 쪼개기’³ 현상이 초래되었고 군선교교역자 제도의 취지

¹ 육군규정 191 “민간성직자 관리 규정” 제3조에 의하면 “군 종교 활동 지원 민간 성직자”로 명칭이 정해져 있으나 이는 타종교와 함께 사용하는 명칭이고 기독교는 “군선교교역자”로 호칭하고 있다.

² 이 문제는 이미 2003년도 5월 22일에 열린 제3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에서 박기영 목사가 발표한 논문인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군선교사역자 간의 윤리적 제안”에 심각하게 언급되어 있다. 13년 전에 이미 현장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³ 현역군종목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역지임에도 불구하고 군선교교역자들의 임지 마련을 위해 사역지를 떼어 주는 현상을 이르는 말로 이 현상으로 인해 현역 연대군종목사는 작은 연대본부교회 한 곳만 사역하고 예하 3개 대대교회는 모두 군선교교역자가 맡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으며 대대를 맡고 있는 군선교교역자들은 대대를 대상으로 한 연대군종목사의 군종활동과 목회활동을 목회 침해라고 항의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가 무색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군선교교역자들의 일탈행위로 인한 선교지(부대) 갈등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또한 여러 면에서 대대급 교회의 사역 여건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군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원인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군선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역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들은 누가 뭐래도 군선교 현장의 두 주체임에 틀림없다. 군선교교역자들은 현역 군종목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동역자들이다. 이들의 동역과 협력 사역이 군선교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군종목사들은 물론 대다수 헌신적인 군선교교역자들을 실망시키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군선교 현장에서 발생했다. 동역자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었던 문제의 사례들을 군이 이 논문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냉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군종목사단과 군선교교역자 내부에서의 자성과 혁신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모든 문제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다수의 군종목사들과 군선교교역자들이 군선교의 효율성과 성과를 위해 더 이상 이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⁴

이에 필자는 군선교연구소 정책분과위원장으로 “군선교교역자 제도 혁신 방안”을 정책분과의 연구주제로 채택하여 지난 2년 동안

⁴ 군선교연구소 정책분과에서는 현역군종목사(2016.6.24. 육군군종목사단 정기총회시)와 군선교교역자들(2016.8.9~23.)을 상대로 군선교교역자 제도 혁신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설문조사 형태로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군선교교역자 제도 혁신 필요성에 대하여 현역 군종목사는 총 응답자 152명 중 136명(89%)이, 군선교교역자는 총 응답자 184명 중 162명(88%)이 찬성하였다. 자세한 설문결과는 본 논문 부록에 실려 있다.

두 명의 연구위원들과 함께 연구해 왔으며 올해는 육군군종목사단 예하 강원북부지역(3군단) 지역군목단 내에서도 세 명의 목사로 자체 T/F를 구성하여 동일 주제를 가지고 정확한 현장의 각종현황들을 리서치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며 혁신방안들을 검증해 왔으며 그 연구결과를 이 논문에 담았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군선교교역자 제도의 역사와 군선교교역자들의 상황에 대해 고찰해보고 현 제도의 부족함을 보완할 혁신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혁신 방안들 중에는 단기과제와 중기과제가 공존해 있다.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후 논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줄고를 통한 제안들이 군선교 현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군종목사단의 혁신 작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공적인 군선교를 위한 혁신 작업은 군선교교역자들에게만 국한된 일일 수 없다. 군종목사단은 이미 가장 효율적인 전략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군종목사단을 통해 여러 관점과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인 선교 전략을 수립하고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하고 있으며 “One team, One Ministry!”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체 군인교회가 일치된 마음과 열정으로 군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군선교교역자 혁신 방안들이 현역 군종목사들의 일방적인 강요로 오해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끝으로 안타까운 일은 이 연구가 육군교회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해군과 공군 그리고 해병대는 그 특성상 군선교교역자의 수가 극히 소수이며 그 운용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 각 군의 실정에 맞는 연구와 제안이 각각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후에 더 훌륭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2. 군선교교역자에 대한 고찰

1) 선행연구들

군선교 현장에 관한 다양한 학위 논문들이 있다. 학위논문들 외에도 육군 군종병과 정기간행물인 『군종』지에 매년 군종활동 및 군선교현장에 대한 군종목사들의 소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2001년 만들어진 한국군선교신학회에서는 매년 현역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 그리고 군선교에 관심 있는 민간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논문을 공모하여 군선교 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군선교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고 있다. 저자 대부분이 현역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들이다.

이들은 논문에서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들의 직무와 사명 그리고 현장에서 겪는 갈등과 한계상황들을 언급하였으나 대부분의 논문들은 주로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실천적인 주제들이 대부분이며, 군선교 현장에서 군선교를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군선교교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다만 2014년 안남기 목사가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으로 발표한 “군선교교역자의 스트레스 경험 연구”는 군선교교역자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최초의 논문이라 할 수 있다.

연구논문 외에 단행본으로 출간된 책 또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군선교교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김창제 목사의 저서 『군선

교』(2009)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책에서 군선교의 이론적 분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특수한 상황의 군선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가능토록 하였으며, 무엇보다 현장선교에서 적용 가능한 선교 전략적 노하우를 충실히 다루어 제시하며 군선교교역자들 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2) 군선교교역자 현황

현재 군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군선교교역자들에 대한 각종 현황은 군선교교역자 제도 혁신을 위해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총인원이 몇 명인지, 연령별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소속교단 분포는 어떠한지, 사역형태는 전담인지? 비전담인지? 혹은 부교역자인지, 직분과 성별에 따른 분류, 그리고 군선교교육원 수료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서 정확한 현황자료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군선교교역자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MEAK가 보유하고 있는 현황자료들은 한눈에 보기에 오류가 너무 많았고⁵, 육군군종목사단 예하 지역군목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은 현역 군종목사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와 그 예하부대 자료를 가지고 있을 뿐 육군 전체의 자료라고 하기에는 허점이 너무 많았다. 이에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군선교연구소 정책분과와 3군단 지역군목단 T/F 그리고 육군군종목사단 예하 16개 지역군종목사단 총무들의 도움을 받아 육군전체 사역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표1>~<표5>와 같이 조사하

⁵ 현재의 위촉절차대로라면 MEAK가 정확한 현황자료를 보유하기가 어렵다. 반드시 MEAK를 거치지 않아도 위촉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MEAK에게 실질적인 추천권(1차 선발권)을 그리고 지역군목단과 해 부대가 최종 선발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였다. 모든 현황의 기준 일자는 2016년 9월 15일이다.

〈표-1 사역 형태별 군선교교역자 현황〉

구분	전담	비전담	부교역자(전담)	계
인원	455	144	32	631

〈표-2 연령별 군선교교역자 현황〉

구분	20대	30대	40대	50~55세	56~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65세 초과	계
전담	1	35	53	84	138	19	30	19	21	10	45	455
비전담	0	4	34	29	44	10	6	3	3	3	8	144
부교역자	0	20	4	3	3	2	0	0	0	0	0	32
총계	1	59	91	116	185	31	36	22	24	13	53	631

〈표-3 교단 및 직분별 군선교교역자 현황〉⁶

구분	통합	감리	합동	기성	기장	고신	기하성	침례	백석	예성	기타	계
목사	108	105	126	12	4	17	21	56	87	16	57	609
강도사	0	0	0	0	0	0	0	0	1	0	1	2
전도사	7	5	3	1	0	0	1	1	2	0	0	20
총계	115	110	129	13	4	17	22	57	90	16	58	631

〈표-4 기타교단 군선교교역자 현황〉⁷

교단	개혁	그리스도	나사렛	독립	복음	성경장로	성서침례	예장선교	웨신	중앙총회	피어선	한영	합동개신	합동개혁	합신	호헌	계
목사	6	5	1	18	1	1	1	1	2	1	1	2	1	2	12	2	57
강도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⁶ 교단 순서는 2016년 9월 기준 군종목사 인원수에 따라 정리하였다.

⁷ 기타 교단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였다.

전도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총 계	6	5	1	18	1	1	1	1	2	1	1	2	1	2	13	2	58

〈표-5 육군 지역군목단별 군선교교역자 현황〉

지역군목단	경기서부 (1군단)	재춘지역 (2군단)	강원북부 (3군단)	경기북부 (5군단)	경기북부 (6군단)	경기동부 (7군단)	영동지역 (8군단)	경인지역 (수도군단)	계
인 원	86	48	32	56	76	34	42	64	631
지역군목단	서울지역 (수방사)	서울남지역 (국직부대)	대전자운 지역	충북지역	충부지역	영남지역	호남지역	재원지역	
인 원	31	0	30	14	4	56	37	21	

〈표-6 군선교교육원 수료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인원	47	49	49	49	49	53	48	47	54	45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계
	11기	12기	13기	14기	15기	16기	17기	18기	19기	
인원	52	49	44	41	50	44	48	46	47	911

3) 군선교교역자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은 군선교교역자들에 대한 최초의 연구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안남기 목사의 2014년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군선교교역자의 스트레스 경험 연구” 2장 부분을 발췌, 요약하여 정리한다.⁸

⁸ 안남기, “군선교교역자의 스트레스 경험 연구”(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4), 14-20 요약

(1) 다양한 소명의 동기를 갖고 있는 목회자

군선교교역자들은 군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이다. 사역의 형태에 따라 전담사역자와 비전담사역자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군선교 현장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두 번째 사역으로 부름 받은 목회자들이라는 특성이 있다. 군선교교역자들이 사역을 하게 된 동기를 구분해보면 전담사역자는 민간교회 사임 후 군선교교역자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역 장교 및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 후 군선교교역자가 된 경우도 있고, 주중에 개인 직업을 소유하고 주일에 사역하는 군선교교역자도 있으며 군종목사 전역 후 다시 군선교교역자가 된 사역자가 있다. 대부분 중년기에 소명을 받아 군선교 현장에 목회의 첫발을 내딛는 사역자들이라 할 수 있다. 비전담 군선교교역자의 경우, 민간교회 담임목회를 하면서 수시로 종교행사(예배)를 지원하기도 하고, 민간교회 부교역자로서 예배를 지원한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주중 생업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주말에 지원하는 사역자들이 있다.

군선교교역자들은 군의 공식적인 직책(계급, 유급 직책)이 아닌 위촉된 자비량 사역자들이다. 그리고 각 교단에서 안수 받은 소속 교단의 목회자들이다. 일부 교단에서는 전도목사, 군선교사로 호칭하기도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교단이 정식적인 파송절차나 선교비 후원, 선교사로의 양성과 교육, 선교사 관리 등 전반적으로 선교사로서의 자리매김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긍정심리학자 셸리그먼은 직업 정체성을 생업, 전문직, 천직으로 구분하고, 천직이란 나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직업을 말하는데, 만족을 얻은 만큼 물질적 보상보다는 일 자체에서 큰 보람을 얻는 직업이라 하였

다.⁹ 이런 의미에서 군선교교역자들은 생업으로서의 직업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마지막 선교의 보루라 할 수 있는 군대에서 목회를 천직으로 여기고 사역하고 있는 군선교사라 할 수 있다.

(2) 갈등의 구조 속에 있는 위기 목회자

갈등은 어떤 사람의 목적이나 욕구를 좌절시키는 의견 또는 목적의 차이로 정의한다. 이 갈등은 개인 내 갈등, 개인 간 갈등, 집단 간 갈등, 조직 간 갈등 등 개인의 내적인 유형으로부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도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신학적으로 갈등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죄라고 볼 수는 없다. 성경은 모든 갈등이 나쁘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 갈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 갈등을 잘 처리하지 못할 때 갈등은 죄가 될 수 있다(Sande, 2000). 군 조직은 엄격한 계급과 직위 및 권한을 바탕으로 하는 위계적 집단으로서, 지휘계통을 통한 상급자의 합리적인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세대 장병들에게 통제된 조직 속에 있다는 부담감과 속박감은 가장 큰 내재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사소통 측면에서도 주로 상급자와 하급자 개개인 사이의 수직적인 의사소통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소통의 내용도 상급자로부터의 지시와 부하로부터의 보고 형태를 갖추고 있다. 또한 모든 업무나 지시사항은 ‘즉시’에 수행되어야 하고 ‘반드시’ 철저한 보고와 명령 계통에 의해 긴장된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군에서 스트레스 해소 기

⁹ 마틴 셀리그만, 『긍정심리학』 김인자, 우문식 역(서울: 물푸레, 2009), 251.

법이 절실히 요청된다. 군종목사들의 경우, 군 조직 안에서 성직자와 장교로서의 이중적 신분과 역할로 인해 갈등을 겪는다. 계급적인 갈등도 경험하게 되며, 지휘관의 개인참모로서 지휘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부대의 규율과 통제를 받아야 하며 성직자로서의 품위와 역할뿐만 아니라 장교로서의 품위도 행동도 요구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목사인가 장교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휘관과의 갈등, 타종교 성직자들과 신자들과의 갈등, 진로에 대한 갈등, 신자들 안에서의 갈등 등 다양하게 갈등의 양상이 드러난다. 군종목사들은 임관 시 실무 교육이나 선배들의 조언들을 통해서 군선교 현장에 대한 통전적 이해를 갖게 되면서 적응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과 개인의 신앙, 가치관에 따라 갈등의 강도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군선교교역자들의 경우, 첫째, 민간인 신분으로 이러한 규정과 통제가 자연스러운 타문화권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적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군종목사와는 다른 민간인 신분과 제한된 역할은 군종목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갈등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군이라는 타문화권 사역에 대한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 있다. 군을 타문화로 이해하는 전제로 군선교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문화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규제하며, 경험을 해석하고, 타인의 행동을 평가하는 정의(definition)인 것이다. 조직의 목적과 조직체계, 의사소통방법이 사회와는 현저하게 다른 군 문화 특성을 성육신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때 군선교교역자들의 개인 심리적인 관계와 사역에 있어서 갈등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들은 ‘군선교’라는 같은 목표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군선교사들이다. 그러나 각 집단이 원하는 대로 서로의 요구가 충족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는 데서 갈등의 요소가 있다. 군종목사는 군이라는 조직 안에서 권위와 경제적 안정 및 신분을 보장 받는다. 그리고 다양한 군선교를 위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선교교역자들은 같은 조직 안에 있으면서도 제한적인 신분, 역할로 인하여 욕구좌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책임과 권한 면에서 차이가 있다. 군종목사는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군선교교역자가 대대급 교회를 맡아서 목회 활동을 하더라도 군종목사는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권한이 있다. 재정사용 문제, 외부교회 초청행사, 정기예배 외에 특별행사, 부대원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하여 군종목사와 상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군선교교역자들은 자신들의 목회에 걸림돌로 여기며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셋째, 타종교와의 갈등의 요소를 갖고 있다. 군은 다종교군 공동체 사회라는 특수한 현실을 가지고 있다. 군 안에 종교들은 교리와 전통이 다르지만 서로 평화롭게 상호 공존해야 하며 신앙을 통한 무형 전력향상을 극대화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이석우, 2003). 그러나 이제까지의 기독교의 선교는 교회 중심을 통한 신자화 운동이었다. 이러한 선교활동들은 군이라고 하는 상황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타종교도 군을 장병 신자화를 위한 전략적 현장으로 삼고 천주교 군종교구, 불교 군종교구 및 원불교 군종교구를 창설하여 체계적이고 조

직적인 선(포)교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적 신자화를 위한 선(포)교의 모습은 군 내부의 단합을 해치는 갈등의 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

국방부 인사 복지국에서 한국 국방연구원(KIDA) 인력 개발연구센터에 의뢰하여 “장병 종교 활동 제도 개선방안 연구(2003)”의 제목으로 군종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보고서에서 현 군종제도의 문제점들을 종단 종파 간 갈등, 포교 위주의 군종장교 활동, 즉 교세 확장에 치중하는 것 등으로 군종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이 군종의 기본 기능과 역할을 훼손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석우에 의하면 현재 한국군의 위상이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향후 국군은 정예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군인의 수는 양적으로 축소될 수 밖은 상황에서 군선교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¹⁰.

(3) 창끝 선교지에 있는 목회자

군에서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창끝부대 전투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창끝부대란 전투력 발휘의 핵심이 되는 부대라는 개념으로 즉각적이고 실천적인 임무 수행 능력이 가능한 부대를 의미한다. 육군으로는 대대급 부대라 할 수 있다. 군장병의 70%가 창끝부대원인 것이다. 군의 구조 안에서는 군종목사들이 대대급 부대들을 대상으로 전·평시 군종참모활동, 장병인성교육, 상담 및 선도 활동 등 기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체 예하대대를 대상으로 하기는 물리적으로도 어려울 뿐더러 선교의 효과를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동역할 군선교교역자들이 필요한 것

¹⁰ 이석우, “다종교 문화권에서 본 군선교에 대한 신학적 고찰”, 『군선교신학』 8(2010).

이고 군의 제대를 감안하면 거의 모든 군선교교역자들은 창끝 부대인 대대급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다.

(4) 군선교교역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들

군선교교역자들은 군선교 현장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들을 경험하고 있다. 안남기에 의하면, 그들의 스트레스 원인은 아주 다양하다. 군선교교역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스트레스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실패한 목회자라는 심리적 위축감, 사역지가 없는 목회자라는 비애감, 마지막 사역지라는 절박감, 무관심으로 인한 초라함, 신뢰받지 못함에 대한 불쾌감, 민간 목회자들과 비교에서 오는 부적절한 자기 평가, 해외 선교사들과 상대적인 대우에서 오는 소외감, 군종목사들과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차별감, 65세 은퇴 규정에 대한 압박감,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하는 부담감, 열악한 재정 후원으로 생계에 대한 압박감, 간부 신자들의 부족과 잦은 이동 그리고 지휘관에 따라 유동적인 사역 환경에 대한 불안감, 군종목사의 통제 역할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 세대 차이 나는 병사들과 소통의 어려움, 군종병의 일탈행동으로 인한 의욕상실, 교회 제직들과의 소통의 미숙함, 군대를 선교지로서가 아니라 목회지로 이해함에서 오는 사역의 갈등, 민간 목회에 대한 생각과 사역의 기쁨 사이에서 오는 갈등, 주중 사역을 하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 성과 위주의 군선교 정책에 대한 실망감, 공감적 설교에 대한 부담감, 장병들의 저조한 교회 출석에서 오는 자괴감 등이다.

현역 군종목사들은 군선교교역자들의 이러한 스트레스와 그 원인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동역자들의 스트레스와 갈등은 곧 현역 군종목사들의 문제이기도 할 뿐 아니라 군선교 현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4) 군선교교역자 제도의 역사

(1) 군선교교역자 명칭의 변화

군선교교역자들은 “군선교교역자”라는 명칭이 확정되기 전에 아주 다양하게 불려왔다. 민간 교역자¹¹, 민간인 지원교역자¹², 민간 성직자¹³, 군선교 일반교역자¹⁴, 군선교 지원 일반교역자¹⁵ 등이다. 이 가운데 국방부 훈령이나 육군 규정처럼 전체 군의 공식적인 규정에 포함될 때에는 타종교를 모두 아우르는 명칭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최초로 군선교교역자들을 공식 규정에 담은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훈령 제572호, “군종업무에 관한 규정령”(1997년 10월 27일) 제14조가 “민간교역자의 종교활동”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교역자”라는 기독교 용어가 타종교 성직자까지를 아우르는 용어로 채택되어 사용된 것이다. 이는 수년간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선교교역자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각종 규정을 정비하여 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기독교 측 즉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이하 MEAK)의 끈질긴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군선교교역자 제도 정착 과정

¹¹ 국방부, “군종업무에 관한 규정령,” 국방부훈령 제572호(1997년 10월 27일) 제14조 민간교역자의 종교활동

¹² MEAK, 『제28차 정기총회보고서』(1999년 2월 9일), 73.

¹³ 국방부, 『군종업무지침』(1999년 12월), 89.

¹⁴ MEAK, 『제29차 정기총회보고서』(2000년 2월 8일), 72.

¹⁵ MEAK, 『제30차 정기총회보고서』(2001년 2월 20일), 102.

군선교교역자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 제도가 군에서 확고하게 정착되기까지 몇 차례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MEAK 주관으로 1996년 5월 13일~15일까지 2박3일 동안 소망수양관에서 102명의 군선교교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수련회가 열린 것이고, 둘째는 1997년 10월 27일 발령된 국방부훈령 제572호, “군종업무에 관한 규정령” 제14조가 “민간교역자의 종교활동”이라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군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성직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위촉에 대한 첫 규정을 만든 것이며, 셋째는 국방부가 1999년 12월 『군종업무지침』을 발간하며 이 책에 민간교역자 관리 지침을 구체화하여 실은 것이고,¹⁶ 넷째는 육군이 국방부에서 발간한 『군종업무지침』을 근거로 육군규정 191 “민간 성직자 관리규정(전·평사용)을 2001년 1월 1일자로 제정하고 그해 11월 12일 국방부가 훈령 제691호 “군 종교활동 지원 민간성직자 관리 훈령”이 제정한 것이다. 다섯째는 2006년부터 국방부 예산사업으로 “군 종교활동 지원 민간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며, 마지막 여섯째는 2007년 MEAK가 군선교교역자들의 선발 관리와 자질 향상을 위해 군선교교육원을 신설하여 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EAK 주관으로 1996년 5월 13일~15일까지 2박3일 동안 소망수양관에서 102명의 군선교교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수련회를 갖게 되는데 이는 제도권 밖에서 군선교에 헌신하던 사역자들을 처음으로 한 곳에 소집한 수련회

¹⁶ 국방부, 『군종업무지침』 (서울: 국방부, 1999), 89~97.

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군선교 현장에서 사역에 많은 제한을 느꼈던 군선교교역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결집되었고 수련회에 참석한 당시 군선교교역자들은 본인들의 사역과 신분을 군에서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군선교교역자들의 자치회를 조직하는 등 군선교교역자들이 군내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분명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역사적인 첫 수련회에서 터져 나온 군선교교역자들의 다양하고도 간절했던 염원들은 군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 기독교 내부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한 일들이었고 오히려 군의 제도 정착 과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MEAK의 결정으로 2년간 수련회가 중지되었다가 1999년에 다시 재개되었다.

또한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남아 있는 통계자료상으로는 2000년 이전에 군에 들어와서 활동하던 군선교교역자가 몇 명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 다만 2000년도에 404명이었다는 것과 <표-8>에 1996년 첫 수련회 참석자가 102명이었다는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 이전에 이미 상당수의 군선교교역자들이 군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진중교회 건축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진중교회 신축과 기부채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대대급 교회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는 장병들의 종교활동 환경 개선 및 군선교교역자들의 증가로 이어졌다. MEAK가 국방부에 제출한 2000년 당시 통계 <표-10>를 살펴보면 기독교는 이미 군종목사보다 군선교교역자의 수가 더 많은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7 연도별 군선교교역자 현황〉¹⁷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담	·	·	·	·	·	·	341	·	354	389	370	367	388	362	447	430
비전담	·	·	·	·	·	·	134	·	268	287	274	223	222	216	179	173
총계	404	·	·	·	·	684	475	680	622	676	644	590	610	578	626	603

〈표-8 군선교교역자 수련회 실시현황〉¹⁸

구분	일 자	인 원	장 소	구분	일 자	인 원	장 소
1회	1996.5.13-15	102명	소망수양관	11회	2009.4.21-23	223명	소망수양관
2회	1999.5.11-13	114명		12회	2010.4.21-23	204명	
3회	2000.4.10-12	91명		13회	2011.3.29-31	193명	
4회	2002.6.18-20	108명	천마산기도원	14회	2012.3.27-29	219명	안성수양관
5회	2003.9.15-17	102명		15회	2013.3.25-27	195명	
6회	2004.11.1-3	105명	여전도회관	16회	2014.3.25-27	175명	포도나무교회
7회	2005.11.14-15	132명		17회	2015.5.13-15	167명	
8회	2006.10.31-11.2	230명	소망수양관	18회	2016.4.4-6	166명	
9회	2007.11.14-16	232명					
10회	2008.10.9-11	202명					

〈표-9 군인교회 기부채납 연도별 현황〉¹⁹

연 도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교 회	4	10	12	5	8	8	14	33	34	55	35	33	37	44	50	33	20
연 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교 회	22	23	26	29	22	26	19	21	22	18	15	15	10	14	11	26	754

¹⁷ MEAK, 『제45차 정기총회보고서』(2016년 2월 25일), 370.

¹⁸ *Ibid.*, 370. ※2006년도의 급격한 감소는 전체적인 추세로 볼 때 부정확한 통계로 보인다.

¹⁹ MEAK, 『대한민국 1004 군인교회 총람』(서울:MEAK, 2011), 845. 2011년 이후 자료를 추가함.

〈표-10 2000년 군내 종교별 현황〉

구 분	총 계	기독교	천주교	불 교
종 교 시 설	약 1,600동	약 1,000동	약 250동	약 350동
군종장교인원	497명	307명	76명	114명
일반교역자인원	519명	404명	23명	92명

이렇게 현역 군종목사보다 더 많은 군선교교역자들이 군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했다. 이미 1993년부터 국방부에 민간교역자 관리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MEAK는 선발, 관리, 교육, 선교비, 신분보장 등을 규정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²⁰ 물론 야전에서도 각급 부대별로 자체적으로 군종목사들과 군선교교역자들의 동역을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MEAK는 한국군종목사단과 함께 군선교교역자 제도의 군내 정착을 위해 국방부 청원을 계속하여 1997년 최초로 국방부 훈령에 군선교교역자가 언급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1년 11월 12일 국방부 훈령 제691호 “군 종교활동 지원 민간 성직자 관리 훈령”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06년에 이르러 매년 향토사단들을 대상으로 집행되던 국방부 예산사업 “향군종 소집교육”이 “군 지원 민간 성직자 소집 교육”으로 변경되었다. 향토사단에서 예비군 교육 지원과 일부 종교활동 지원까지 담당하던 향군종 교역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으나 이미 그 활동은 많이 위축된 상태였고 국방부 입장에서는 훈령에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그 존재와 필요를 인정했고 또한 향군종에 비해 인원도 몇 배로 증가되어

²⁰ MEAK, 『제30차 정기총회보고서』(2001년 2월 20일), 102.

있던 군 지원 민간 성직자 교육과 관리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여 매년 소집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또한 MEAK에서는 제35차 정기총회(2006.2.24.)에서 군선교교육원 개원을 신설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마침내 2007년 4월 3일 군선교교육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군선교교역자 제도가 군내에 비로소 완전하게 공식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3. 협력선교-효과적인 군선교를 위한 선교형태

1) 협력선교의 신학적 개념과 성경적 근거

『선교학 사전』에 의하면 ‘협력선교’란 차이와 불균등한 상황에서도 서로(파트너, 동역자)를 용납하는 것으로, 그 파트너에게 동일한 자격과 권리를 보장하면서 결정의 자유를 존중하며 선교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²¹ 협력선교에서 동역자(파트너)에게 동일한 자격과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불균등한 상황에서는 협력적 선교보다 어느 한쪽의 주도적 선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역자 간의 자격과 권리를 조율하고 보장하는 일은 협력선교를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핵심이다.

협력선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선교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온 중요한 선교형태이다. 선교학자인 랄프 윈터는 “교회와 선교단체는 각각 그물의 수직선, 수평선과 같으며, 이 둘이 연합(협력)하여 만들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 낚시로 고기를 잡는 어부보다 짧은 시간

²¹ 칼물러, 테오순더마이어편, 『선교학 사전』, 한국기독교학회 선교신학회 편역 (서울: 다산글방, 1999), 716.

내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며, 선교에 있어 협력이 매우 중요한 개념임을 밝힌 바 있다.²² 비전시너지²³ 대표인 필립 베틀러는 『협력 관계가 가진 힘(Power of partnership)』에서, ‘협력’은 성경적이고, 공동체 증거가 지닌 힘의 본을 보여주며 교회를 발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²⁴ 네덜란드의 선교학자 소가드(Viggo Sogaard)에 따르면, 선교 협력이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합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보다 높은 차원의 위탁이요 위임이다. 사역을 위한 책임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어 소유하며 성과의 질을 배양하며 모두가 이기는 윈-윈(Win-Win)을 추구하는 것이다.²⁵ 또한 루이스 부시(Luis Bush)는 ‘협력선교’의 개념에 대해 “둘이 나 그 이상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여 그들의 관계를 보다 능력 있도록 결집시키고 상호 간의 목표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²⁶

루이스 부시가 언급했듯이 협력선교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신학적 근거는 성경이다. 바울서신의 여러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엡 1: 23)으로 표현한다. 모든 조직이 유기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데에서 교회는 그 바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22 서성민, “한국장로교회 선교의 협력,” 『선교와 신학』 제8집 (2001. 가을호), 195. 재인용.

23 ‘비전 시너지’(Vision Synergy)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국제 기독교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하고 있는 사역단체로 1985년 시작됐다.

24 “비전 시너지 베틀러 대표가 말하는 협력선교 방법”, 『국민일보』 (2009.6.22 기사)

25 김혜정, “협력선교의 근거에 관한 연구”(장로교신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0. 재인용.

26 신주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통한 협력선교 연구”(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8. 재인용.

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엡 1: 22). 몸은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머리’ 즉 뇌의 명령을 전달받아 모든 유기체가 움직이고 행동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을 실천하는 순명적 공동체라 할 수 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최대 명령은 ‘선교(전도)’이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 어느 환경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결국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묶여 있는 하나의 ‘선교적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협력선교의 신학적이며 성경적인 근거가 존재한다. ‘머리’에서 시작된 하나의 명령으로, 하나 된 유기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가장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선교형태’이다. 또한 이 말은 하나 된 유기체가 되기 위해 협력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선교적 교회는 서로 협력해야 하며 그 분명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협력선교는 선택적 개념이 아닌, 선교의 가장 중요한 뿌리요, 전제이며, 기초가 되는 필수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셔서 선교(전도)하게 하신다. 그리고 선교(전도)를 위해 협력하게 하신다. 이는 선교의 주체들로 하여금 차이와 다양성을 뛰어넘게 하는 근원적 힘이다.

협력선교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학자들 이외에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 정의와 개념이 연구되어 왔으며 그들의 정의와 성경적 근거

를 종합해볼 때, ‘협력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주체들이 반드시 구축해야 할 선교형태이며, 동역자의 자격과 권리를 보장해주며 서로 연합하여 추진하는 ‘성경적 선교형태’라 할 수 있다.

2) ‘협력선교’ 개념의 군선교 적용: ‘협력적 군선교’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협력선교 개념은 반드시 군선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앞에서 밝혔듯이 협력선교는 선교의 주체들에게 있어 선택적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가진 필수적인 선교개념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의 군선교 상황을 볼 때, 군종목사와 군선교 교역자는 군선교에 있어 반드시 협력해야 할 동역자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협력하여 군선교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앞에서 필자는 『선교학 사전』의 내용을 인용하여 협력선교가 동역자의 자격과 권리를 보장해주며 서로 연합하여 효과적으로 선교하는 ‘성경적 선교형태’라고 기술하였다. 신분, 나이, 재정적 여건이 완벽하게 같을 수 없을지라도 지나친 불균형 속에서는 협력적 군선교가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협력선교의 군선교 적용 방향은 군종목사의 동역자이자 파트너인 군선교교역자들이 호소할 수 있는 문제들(신분의 한계 및 재정문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제도를 전략적으로 보완해가는 방향으로 추진,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가드가 언급한 대로 신분과 선교적 여건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최소화하고 ‘함께 잘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가 서로 협력할 때 보다 더 효과적인 군선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동역자의 지위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어 모든 군선교사들이

‘함께 잘 할 수 있는’ (Win-Win) 선교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협력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다. 이것이 특수선교인 군선교 현장에서의 바람직한 협력선교 적용 방안이다.

4. 군선교교역자 제도 혁신 방안

필자가 본 논문을 통해 제안하는 9대 혁신 방안은 MEAK가 2016년 제45차 정기총회 자료집에서 군선교교역자 관리와 관련하여 언급한 3대 정책 “체계화, 전문화, 정예화” 및 5대 방향 “적임자 선발, 전문교육, 안정적 후원, 종합인사관리, 신분보장”²⁷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 군선교교역자 제도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며 9대 혁신 방안을 제안한다.

1) 정원제

군선교교역자의 정예화를 위해 우리가 시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군선교교역자 정원제’이다. 위 II-B “군선교교역자 현황”에서 밝혔듯이 2016년 9월 15일 현재 대한민국 육군 군인교회 안에는 총 631명의 군선교교역자가 사역하고 있다.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총 군인교회 사역지 수와 군종목사에 의한 추가사역 가능부대 수를 고려할 때, 현재 육군 군선교교역자 수는 분명 초과 상태이다.

적정한 사역자 수를 고려하지 않은, 필요 이상의 초과 위축은 군선교교역자들의 정예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원제 시행을 위해 군선교교역자의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선발과정을 강화하여 군선교교역자들의 정예화를 추구하

²⁷ MEAK, 『제45차 정기총회보고서』(2016.2.25.), 179.

는 것이 효과적인 군선교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군선교교역자 정원제는 제도 혁신 방안들 중의 핵심이자, 필자가 제안하는 여러 방안들을 포괄하는 중심개념이다.

정원제는 현재 631명에 이르는 군선교교역자의 수를 필요 인원 대비 초과상태로 보고 16개 지역군목단 단위로 효율적인 사역지 분배 계획을 수립하여 군선교교역자의 지역군목단별 정원을 확정하고 이들을 적절하게 배치 운용하여 군선교 사역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군목단 단위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하며 국방개혁 및 부대개편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아주 많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지역군목단별 군선교교역자 정원을 정확하게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역군목단 단위의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선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차후 군선교연구소 정책분과와 육군군종목사단 실행위원회 차원의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 군선교교역자 정원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정원제 추진 방향과 의의를 중심으로 제안하도록 하겠다.

정원제를 실시하는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군선교의 열정을 가진 우수한 군선교교역자를 선별하여 위촉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초과해서 양성하고 위촉하다보니 군선교에 대한 특별한 비전과 소명의식 없이 군에 들어와 사역하는 일부 교역자들이 발생했고, 그들에 의해 빚어진 갈등은 군선교의 열매와 성과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어 왔다. 따라서 군선교교역자의 정원을 확정하고 선교의 열정을 가진 우수한 교역자를 선발하여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군선교 발전과 혁신의 시작이자, 반드시 추진해

야 할 현안이다.

둘째, 정원제를 시행함으로써 군선교교역자들에 대한 ‘선교여건 보장’(재정후원 등)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전술한대로 군선교 상황에서의 협력선교는 군종목사들이 군선교교역자들의 선교적 여건을 보장하여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뒷부분에서 군선교교역자에 대한 후원제도 정비 방안도 소개하겠지만, 굳이 그 방안을 논하지 않아도 군선교교역자가 ‘정예화된 소수’가 될수록 후원 및 여건보장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631명이나 되는 군선교교역자 모두에게 공평한 제도적 보장을 추진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정원제에 대한 현재 군선교교역자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필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군선교연구회 정책분과에서 군선교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선교교역자들의 74%가 정원제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정원제가 시행될 경우 당연히 감축의 대상이 되는 군선교교역자들까지도 효과적인 군선교 사역을 위해 정원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선교적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군선교교역자 제도 혁신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다. 아래는 해당 설문의 질문 내용과 답변 비율이다.

6. 현재 사역중인 군선교교역자 총원은 약 680명²⁸(비전담 포함)입니다. 게다가 교회 공식보다 사역 지원자가 많은 공급 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여러 면에서 효율적인 ‘군선교 여건보장’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대별로 군선교 여건보장(재정후원, 신분보장 등)을 위해 군선교교역자 정원제(정예화)를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136명 / 74%) ② 반대 (23명 / 13%) ③ 기타 (13%)

(1) 정원제를 위한 사역지 조정

군선교교역자의 정원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역지 조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군종목사들이 사역지를 추가하는 방법이고 둘째, 우수한 군선교교역자에게 두 교회를 맡기는 방법이다.

아래의 <표-11>은 현재 육군 군종목사 및 군선교교역자들의 사역 현황과 군종목사의 추가 사역이 가능한 교회 현황이다. 이 통계를 보면 군선교교역자들의 다소 과도한 위촉 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원제에 있어 필요한 일차적인 사역지 조정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²⁸ 설문조사 당시 MEAK가 보유하고 있는 현황에는 육·해·공군 군선교교역자가 678명이었다.

〈표-11 육군 지역군목단별 사역지 현황 및 군종목사 추가사역 가능 현황〉

	총교회	군목	군목 사역교회	군선교 교역자	군선교 교역자 사역교회	군종목사 추가사역 가능교회	
						2017년 가능	교역자 사임시
경기서부지역 (1군단)	106	18	31	86	80	1	6
재춘지역 (2군단)	69	13	21	48	49	0	5
강원북부지역 (3군단)	68	13	27	32	40	1	4
경기북부지역 (5군단)	85	16	26	56	59	2	1
경기북부지역 (6군단)	110	17	33	76	76	1	13
경기동부지역 (7군단)	49	15	17	34	34	0	7
강원영동지역 (8군단)	47	10	26	42	21	1	3
경인지역 (수도군단)	76	13	14	64	62	1	5
서울지역 (수방사)	39	10	10	31	30	0	5
서울남지역	6	5	6	0	0	0	0
중부지역	6	8	5	4	3	0	0
충북지역	17	7	4	14	13	0	0
대전자운지역	39	10	8	30	31	0	3
영남지역	56	12	9	56	53	0	0
호남지역	33	7	5	37	35	0	2
재원지역	29	7	8	21	21	0	0
총 계	8352 ²⁹⁾	1813 ³⁰⁾	250 (29%)	631	607 (71%)	7	54

²⁹⁾ 육군 군인교회 835개는 군종목사가 담당하고 있는 250개 교회와 군선교교역자가 담당하고 있는 607개 교회를 합한 857개 교회와 차이가 난다. 이는 두 교회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군선교교역자들과 교회 건물은 있으나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부대가 있기 때문이다.

³⁰⁾ 2016년 9월 15일 현재 육군 군종목사는 총 186명이다. 지역군목단에 속해 있지 않은 인원은 5명이다. 해외파병 2명, 국내위탁 1명, 국외위탁 1명, 미 OAC입교 1명.

군종목사 추가사역 가능교회를 조사할 때에 반드시 군종목사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로부터 30분 이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 군종목사의 사역일정상 무리가 없는 곳으로 한정하였으며 군종목사가 예배만 주관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인 목회가 가능한 곳을 조사했다. 또한 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교회일 경우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조사했다. 2016년 말 정년은퇴에 따른 공석이 발생하여 2017년 1월부터 군종목사에 의해 지원이 가능한 경우와 2017년 이후 군선교교역자의 해촉 또는 사역지 조정 등을 통해 공석이 발생하면 군종목사에 의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경우를 조사한 것이다.

위의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육군 군인교회 사역지 중, 군종목사가 29%의 사역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71%의 사역지는 군선교교역자가 담당하고 있는데, 71%의 사역지 중에는 군종목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역지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종목사가 추가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지 수를 조사한 결과 그 수는 61곳이다. 그런데 이 조사는 추가 사역 가능성 부대를 주로 사단 단위로만 제한했던 조사로서, 그 사역지를 지역군목단 단위로 확장하여 가까운 지원부대들을 포함시킬 경우 훨씬 더 많은 사역지들이 군종목사 추가 사역지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앞서 기술했듯이 상황에 따라 검증된 우수한 전담 군선교교역자들에게 두 곳의 사역지를 겸임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래 <표-12>는 현재 두 교회를 겸임사역하고 있는 군선교교역자 현황이다.

〈표-12 두 교회를 겸임사역하고 있는 군선교교역자 현황〉

지역군목단	경기서부 (1군단)	재춘지역 (2군단)	강원북부 (3군단)	경기북부 (5군단)	경기북부 (6군단)	경기동부 (7군단)	영동지역 (8군단)	경인지역 (수도군단)	계
인원	0	0	7	3	0	2	0	0	13
지역군목단	서울지역 (수방사)	서울남지역 (국직부대)	대전자운 지역	충북지역	충부지역	영남지역	호남지역	재원지역	
인원	1	0	0	0	0	0	0	0	

지금까지 많은 사역대기자들이 사역지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군선교교역자가 두 교회를 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필자가 단장으로 있는 강원북부(3군단)지역에는 현재 7명의 군선교교역자들이 두 개 교회씩 맡아 사역하고 있는데 그 평가와 결과들이 대부분 양호하다. 검증된 군선교교역자들이라면 두 교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군선교교역자들의 수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교비 후원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2) 단계적 정원제 추진

아래 〈표-13〉를 보면 육군 군선교교역자들의 연령분포와 정년 은퇴에 따라 매년 발생하게 될 사역지의 공석 수를 알 수 있다.

〈표-13 군선교교역자 연령분포에 따른 정년은퇴인원 연도별 현황〉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65세 초과	계
인원	1	59	91	252	49	31	36	22	24	13	53	631
은퇴					49	31	36	22	24	66		228
정년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년말		

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규정상 2016년 말 65세 정년이 도

래하거나 이미 초과한 66명의 군선교교역자들을 포함하여 향후 5년 내에 정년 은퇴하는 228명의 군선교교역자들이 담당했던 사역지를 매년 우선적으로 군종목사의 추가 사역지로 고려하고 군선교교역자 제도 혁신 9대 방안 중 하나인 순환보직제와 연계하여 군선교교역자들을 재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각 지역군목단장은 군선교교역자들에 의한 지역군목단 내의 '겸임사역 가능 사역지'를 파악하여 사역지를 조정해야 한다. 이 때 지역군목단장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개편 계획을 철저히 파악하여 사역지 조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진행하면 지역군목단별로 군선교교역자 정원을 확정할 수 있다. 이후 지역군목단장은 할당된 인원을 다시 예하 부대의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운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군선교교역자 위축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군선교를 위해 헌신할 우수한 자원들을 군선교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당면해 있는 1차 과제로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규정에 따른 은퇴시기 준수이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행 없이는 정원제, 정예화, 제도혁신 모두 불가능하다. 그동안 정년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역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등 규정 미준수 사례들이 많이 있다. <표-13>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65세가 초과하였음에도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군선교교역자들이 53명이나 된다. 이는 모든 제안과 혁신의 추동력을 잃게 하는 부적절한 초범행위이며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대로 정원제의 목적은 무조건적인 군선교교역자 조직 감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육군 변화의 흐름에 따라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하는 과제이며, 현장에 필요한 정확한 군선교교역자 수요를 파악하고, 우수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군선교교역자들을 정예화하는 데에 정원제의 목적이 있다.

(3) 국방개혁 및 부대개편을 고려한 정원제 계획

본 논문 집필을 위해 사전 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육군선교 관련 각종 현황들을 함께 조사하였다. 육군 전체 교회수, 군종목사 인원, 군선교교역자 인원, 미사용 중이거나 철거된 교회들, 교회이름 변경 등이다. 조사를 진행하며 2011년 MEAK에서 발간한 『1004 군인교회 총람』은 각종 현황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2011년 이후 현재까지 5년 동안 매우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가운데 주목할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육군에서 통합, 해체, 이전 등의 부대개편 이유로 사라졌거나 미사용 중인 교회들이 48개나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난 5년보다 더 많은 부대개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보안의 문제로 본 논문에 자세한 자료를 실을 수는 없지만 육군 9개 군단급 부대의 부대개편 계획에 의하면 조만간 31개 교회가 폐쇄되거나 기능 정지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육직부대 및 국직부대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부대개편 계획 변경에 따라 이 교회 수는 변경될 수 있다. 부대개편 계획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선교현장의 변화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정년단축

다음으로 군선교교역자 정예화를 위한 군선교교역자의 정년단축을 제안한다. 현재 군선교교역자의 연령 정년은 만 65세로, 대령

기준 현역 군종목사의 정년인 만 56세보다 훨씬 높은 연령이다. 군 선교교역자의 자질과 연령이 반비례한다는 차원에서 정년단축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선교대상인 군인들과 크기는 40년 이상의 연령 차이, 세대 차이가 발생하여 군선교 현장 안에 여러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앞 장의 <표-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육군 군선교교역자들의 약 77%(616명 중 477명)가 50대 이상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이 사실 여부를 떠나 실제 군선교 현장에서 대두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현역 군종목사들도 중령 이상이 되면 신우들과 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이 때문에 신우들과의 소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거의 유일한 대안은 바로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 대한 선교와 양육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제시한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들인 청년들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군(軍)이다. 군 외에 이십대 청년들을 이렇게 쉽게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현장이 있는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사람을 바꾸면 된다.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바뀌려면, 사람 즉 다음 세대들인 청년들이 복음 안에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군선교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현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군선교 현장이 노년에 마땅한 목회 임지가 없는 목회자들에게 목회사역을 정리하게 하는 곳, 목사 안수의 과정을 펼치기 위한 ‘징검다리’, 다른 사역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동안 군선교 현장에 대해 이해 되어온 생각과 전 이해들이 그렇다면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 그러한 현장이 되기엔 군선교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다음세대(청년)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군선교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다. 군선교에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다.

그러므로 군선교는 반드시 경쟁력을 갖춘 전략적인 영적사업이 되어야 한다. 선발과정을 강화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임지에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자원들을 포진시켜야 한다. 예전과 비교할 때 선교 환경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군(軍)은 여전히 선교의 '황금어장'이다. 시간을 선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략적으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터이다. 세대 차이, 열정 부족, 선교 대상과의 이해 차이로 겪는 갈등으로 시간을 소모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되는 현장이다. 선교대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아가 그들을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우수한 자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군선교교역자의 정년단축이 필요하다. 현재 군종목사들의 정년과 동일한 만 56세로, 위촉 연한을 만 54세로 단축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경과기간을 두어 현재 위촉된 교역자에 대해서는 재위촉과정을 통과한 경우에는 현재의 정년까지 목회여건을 보장하는 것으로 하여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은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술한 대로 정년단축의 목표는 단순히 고연령 교역자들을 해촉 시킨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월제와 함께 지혜롭게 추진하여 군선교교역자들을 정예화하고, 나아가 급변하는 시대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도 풍성하게 열매 맺는 군선교의 토양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3) 평정작성

세 번째 제안사항은 군선교교역자에 대한 평정작성이다. 군선교 교역자들의 재위촉 및 타 부대에서의 위촉 시 객관적으로 활용할 사역평가 정보가 지금은 전무한 상태다. 이로 인해 타 부대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해촉 당한 사람이 자신의 경력을 숨기고 다른 부대에서 재위촉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를 위해 군선교교역자들의 활동 내용과 평가사항들을 데이터화시키고 축적하여 활용해야 한다. 1년에 두 차례, 전반기(6월)와 후반기(12월) 현역 군종목사들과 동일하게 군선교교역자들의 사역활동평가를 작성하여 축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1차 평정권자는 상급부대 목사가, 2차 평정권자는 차 상급부대 목사가 되며 군선교교역자들의 사역지 부대 건제에 따라 1차 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정보는 지역군목단을 경유하여 육군군목단과 MEAK가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다만, 평정결과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분명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위촉과 타 지역 군목단 신규 위촉 시 경력조회를 통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평정작성의 목표는 단순히 군선교교역자들에 대한 평가와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평정작성 전에 차상급 부대 군종목사(2차 평정권자) 주관으로 상급부대 군종목사(1차 평정권자)가 함께 목회 지도 방문을 실시하여, 군선교교역자와 함께 사역지 부대 형편에 맞는 선교적 비전을 수립하고 선교의 방향과 지침을 공유하며,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더 나은 선교여건 보장을 위해 힘쓰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군선교교역자로 하여금 더

질 높은 군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돕는 데에 평정작성의 목표가 있다. 아래의 양식을 군선교교역자 평정표 양식으로 제안하며 이를 위한 DB구축 등 실천적 사항들을 반드시 육군군목단과 MEAK가 함께 연구하고 발전시켜 가야 한다.

〈표-14 군선교교역자 평정 양식〉

군선교교역자 평정표						
작성일자	2016. 09. 20	작성구분	전반기 정기 <input type="checkbox"/> / 후반기 정기 <input type="checkbox"/>			
성명	직분	소속	교회명	보직일		
홍길동	목사	3군단 00대대	00교회	2013.01.01		
	내용		평가분포			
구분	1, 2차 평정자는 <input type="checkbox"/> 에 해당 등급을 평가할 것 군선교교역자로서의 특징이 식별되도록 핵심사항 위주로 평가하여 종합의견 기술					
자질/품성	1차	군선교교역자로서의 소명의식, 선교적 열정 및 도덕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역평가	1차	주간출근횟수, 토요일 군종병 교육, 세례인원 녹색 카드제출, 성도관리, 교회관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규정준수	1차	각종 규정 및 방침 준수 상급부대 군종목사 목회지도 이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종합의견	1차					
	2차					
사역지속 적합여부 평가						
등급구분	①계속사역적합		②지속관찰(평가유보)		③계속사역부적합	
1차 평정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차 평정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③번 선택시 이유설명								
평정자 인적사항	구분	소속	직책	계급	군번	성명	보직일	서명
	1차							
	2차							

4) 순환보직제: 관리의 체계화

군선교교역자 제도 혁신 방안 네 번째는 순환보직제이다. 문자 그대로 군선교교역자들이 한 부대에서 일정 기간 사역하면 다른 부대 사역지로 순환시켜주는 제도이다. 이는 군인교회가 장기간 한 명의 교역자에 의한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하며, 사역자 본인들에게도 다양한 선교지 경험을 통해 사역의 활력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구체적 추진 방안으로 군선교교역자의 순환은 각 지역군목단 내에서의 순환을 원칙으로 하되 사유 발생 시 중앙 심의를 통해 타 지역군목단으로의 전출도 가능하도록 한다. 보직순환의 주기는 48개월~60개월로 하며, 한 교회에서의 사역이 48개월이 도래하면 이동 대상자가 되고 반드시 60개월 이내에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역지 이동은 4/4분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매년 3/4분기에 지역군목단 총무는 군목단 내 이동 대상자와 대상자들의 이동희망 부대를 종합한다. 이후 지역 군목단장이 위원장이며 사단급 군종 목사들과 지역군목단 총무가 각각 위원과 간사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이 때 군선교교역자 대표 1인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킨다.

그리고 순환보직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후임자 간의 인수

인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심의 결과 통보 후에, 각 지역 군목단은 이동하는 전임자와 후임자가 함께 충분히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보장하고, 각 군인교회마다 목회와 선교 흐름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이를 위해 평시 군선교교역자들이 목회 활동 간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서류들을 정하여 매주 작성하도록 지역군목단 차원에서 지도해야 한다. 해당 교회의 교적, 주간일지, 세례인명부, 녹색카드 제출현황, 재정장부, 목회 결산보고서, 목회활동 계획표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순환보직체계 정립은 단순한 보직이동의 의미 이상으로, 군선교교역자가 감당하는 현재의 사역에 더 집중하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그 숨은 목적과 의도가 있다.

결론적으로 순환보직제는 군선교교역자들에게 군선교사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다양한 선교지 경험을 통해 목회적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무엇보다 자신의 목회활동 시행에 대해 철저히 정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이는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져 군인교회의 활기를 가져다주는 유의미한 체계혁신이 될 것이다.

5) 인턴십 제도: 선발과정 강화

인턴십 제도를 통한 군선교교역자의 선발과정 강화이다. 리더십의 권위자 존 맥스웰(John Maxwell) 목사는 “어떤 멤버를 뽑느냐 하는 것이 멤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³¹ 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군선교 현장에 누가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하느냐에 따라 군선교의 성패가 좌우된다. 따라서 우수한

³¹ 존 맥스웰, 『인재 경영의 법칙』, 임윤택 역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03), 235.

자원들을 선별하여 위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는 사역지가 있을 경우 군선교교육원을 수료하고 큰 흠결이 없는 한 무난히 위촉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군선교교역자 제도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발과정을 강화해야 하며, 그를 위해 군선교교육원의 교육 수료과정을 강화해야 함을 제안한다.

군선교교육원 수료 자격 강화를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턴십 제도 적용’이다. 군선교교육원 커리큘럼 마지막 과정(수료 직전)에 인턴십 제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인턴십 제도는 모든 이론교육 이수 후, 최종 실습차원으로 실제 군선교 사역지를 방문하여 군종목사와 함께 군선교 사역 전반을 1개월 내로 경험해보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해 감독했던 군종목사의 최종평가와 군선교교육원 교육 결과를 종합하여 군선교교육원 수료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군선교교육원의 수료가 MEAK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실제 사역할 현장에서 함께 협력해야 할 육군군종목사단이 공동으로 검증, 평가하여 수료자를 배출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것이다. 인턴십 과정에서 불성실하거나 도저히 실제 사역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과감히 수료를 제한하고 인품, 선교적 열정, 능력과 자세, 자격조건 구비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턴십 과정 및 실제 군선교사역을 소개하는 매뉴얼과 인턴십 과정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육군 군종목사단과 MEAK가 함께 연구, 제작하여 활용할 것을 아울러 제안한다.

그리고 인턴십 제도와 함께 선발과정 강화를 위해 추가로 제안할 사항은 군선교교역자 위촉 시 사역할 부대와 실제 거주지의 거

리를 고려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중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현재 대다수의 군선교교역자들이 주일 사역만 감당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군선교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6) 비전담 군선교교역자 관리

지금까지 제안한 군선교교역자 제도 혁신 방안들은 거의 전담 군선교교역자들을 대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번 일곱 번째 제안은 현재 사역하고 있는 631명의 군선교교역자 가운데 144명(23%)이나 되는 비전담 군선교교역자들에 대한 제안사항이다. 이들은 현재 군선교 사역지의 약 1/4을 책임지고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주체들이다.

육군규정과 MEAK 규정에 전담과 비전담을 구분하는 기준이 상이하다. 육군규정에는 전담지원 성직자를 해당부대 종교시설의 관리책임을 위임받아 종교행사 및 종교 업무를 전담하는 성직자를 말하며, 비전담지원 성직자는 특정한 날의 종교행사만을 지원하고 종교시설 및 종교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성직자를 말한다.

이에 반해 MEAK 규정에서 뜻하는 전담지원 성직자는 겸임하는 지역교회 없이 군인교회만 전담으로 사역하는 교역자를 뜻하며, 비전담지원 성직자는 지역교회를 담당하며 추가적으로 군인교회를 겸임하는 교역자를 의미한다. 이번 장에서 사용하게 될 비전담지원 성직자는 MEAK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따른다는 것을 밝혀둔다.

아래 <표-15>는 비전담 군선교교역자들의 군선교 교육일 수료현황이다.

〈표-15 비전담 군선교교역자들의 교육원 수료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비전담	2	5	3	3	2	0	2	0	1	2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계
	11기	12기	13기	14기	15기	16기	17기	18기	19기	
비전담	3	0	1	2	1	1	1	0	1	30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군선교교육원을 수료한 비전담지원 군선교교역자는 전체 144명 중 30명(21%)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필자의 야전 경험상 매년 국방부에서 각 지역별로 실시하는 군선교교역자 소집교육에 참석하는 비전담 군선교교역자들은 아주 소수이다. 이는 지역교회를 담임하며 군 교회를 지원하는 비전담 군선교교역자들은 지금까지 MEAK나 군의 영향력으로부터 거리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군선교교역자들을 모두 전담으로만 위촉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이제 비전담 군선교교역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선교교육원의 과정도 신설하고 이들의 사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비전담 군선교교역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군선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선교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비전담 군선교교역자들이 가진 가장 큰 선교적 강점은 지역교회 네트워크이다. 지역교회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비전담 군선교교역자들은 군인교회와 지역교회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선교적 다리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또한 군종목사가 추진하는 선교적 대민업무를 가장 원활하게 도와줄 책임자가 바로 비전담 군선교교역자들이다. 군선교는 대내적으로 선교주체들 간의 협력은 물론, 대외적으로 그 지역의 교회들 및 교단과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역교회 못지않게 군선교의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나아가 군인교회와 민간교회 사이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동기부여하고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선교교육원에 현재 사역 중인 비전담교역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교육(Intensive) 코스를 개설하여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 교육은 그 내용상 반드시 실제적이고 현장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미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목회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목회 전반에 대한 이론적인 강의를 진행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과 군이라는 특수 선교 상황을 함께 이해하고 지역교회 및 교단과 군인교회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안들을 서로 토의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효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 비전담 군선교교역자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그들의 역할이 증대될 때 군선교 현장에는 기대 이상의 효과들이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7) 군선교교육원 혁신

군선교교육원 교육과정 및 운영에 대한 혁신이다. 아래 <표-16>는 군선교교육원 1기~19기까지의 수료자 현황과 현재 사역 인원을 조사한 통계이다.

〈표-16 군선교교육원 수료 및 사역인원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수료인원	47	49	49	49	49	53	48	47	54	45
현재사역	22	22	22	21	11	34	18	15	16	14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계
	11기	12기	13기	14기	15기	16기	17기	18기	19기	
수료인원	52	49	44	41	50	44	48	46	47	911
현재사역	19	25	15	19	20	21	14	13	9	350

위 통계를 통해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사역하고 있는 631명의 교역자 가운데 281명이 교육원을 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원 미수료자 281명 가운데 비전담 교역자 114명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167명의 전담 교역자들이 교육원을 거치지 않고 사역하고 있다. 둘째, 19기까지의 전체 수료 인원 911명에 비해 현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역자는 350명으로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이는 정년 은퇴자와 민간교회 사역으로 돌아간 교역자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동안 군선교교육원의 교역자 양성이 군선교 현장의 사역지 공석 이상으로 과다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최근 교육원을 수료한 사람들 가운데 현재 사역인원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거의가 사역지를 찾고 있는 대기자들로 해석된다. 이는 필요 이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수료생을 배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군선교교육원에 입교하는 교육생들 중에는 반드시 군선교사역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개발을 위해 입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러나 이는 매우 소수이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군선교교역자 필요인원을 고려하여 입교시킴으로 교육 수료 후에 사역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선교교육원 관련 몇 가지 혁신 방안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연 2회의 양성교육과정을 1회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

둘째, 군선교교육원을 수료하고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계속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앞서 제안한 인턴십 과정을 커리큘럼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넷째, 비전담 군선교교역자들을 위해 집중교육(Intensive) 과정을 신설한다.

다섯째, 매년 군선교교육원 입교 인원을 군종목사단과 함께 심의하여 결정하고 수료인원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군선교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MEAK가 육군규정 #191 “민간성직자 관리 규정” 제4조(선발)에 명시된 대로 군선교교역자 추천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재는 MEAK를 통하지 않고도 지역군목단(심의위원회)이 다른 경로로 추천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현재 사역하고 있는 631명의 군선교교역자들 중에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281명(45%)이 군선교교육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채 사역하고 있는 기현상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는 군선교교역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상당한 맹점으로 작용한다. MEAK가 추천권 행사를 통한 1차 선발, 지역군목단(심의위원회)가 최종 선발을 하는 형태로 시행된다면 MEAK가 군선교교역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군선

교역자들의 해촉 및 민원제기 시에도 MEAK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지게 될 것이다.

8) 군선교교역자 파송교단 정비

현재 26개에 이르는 군선교교역자 파송교단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군선교교역자들의 교단별 분포를 살펴보면 10개 군종목사 파송교단 외에도 16개의 다양한 소수 교단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의 표는 II-B “군선교교역자 현황”에 나오는 <표-3>과 <표-4>를 다시 실었다.

<표-3 교단 및 직분별 군선교교역자 현황>³²

구 분	통합	감리	합동	가성	기장	고신	기하성	침례	백석	예성	기타	계
목 사	108	105	126	12	4	17	21	56	87	16	57	609
강도사	0	0	0	0	0	0	0	0	1	0	1	2
전도사	7	5	3	1	0	0	1	1	2	0	0	20
총계	115	110	129	13	4	17	22	57	90	16	58	631

<표-4 기타교단 군선교교역자 현황>³³

교단	개혁	그리스도	나사렛	독립	복음	성경장로	성서침례	여장선교	웨신	중앙총회	피어선	한영	합동개신	합동개혁	합신	호헌	계
목 사	6	5	1	18	1	1	1	1	2	1	1	2	1	2	12	2	57
강도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전도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총계	6	5	1	18	1	1	1	1	2	1	1	2	1	2	13	2	58

³² 교단 순서는 2016년 9월 기준 군종목사 인원수에 따라 정리하였다.

³³ 기타 교단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였다.

군선교 현장의 특성상 군선교교역자들은 소속교단의 군중목사 단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 및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군목파송교단 외의 교단들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더불어 다음장에서 언급할 선교후원 제도 마련 등 교단과 군목단에서 함께 힘을 실어 보장해주어야 할 부분에서 사실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군선교교역자 파송교단을 군중목사 파송 10개 교단으로 제안한다. MEAK와 육군 군중목사단은 향후 군선교교역자 선발과정에 있어 자격요건 중 하나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선발된 군선교교역자들이 소속교단의 군중목사들과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9) 후원제도 정비

군선교교역자들에 대한 후원제도 정비를 제안한다. 지난 8월 군선교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군선교교역자들의 55%가 현재 사역하는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을 재정 문제로 꼽았고, 73%의 군선교교역자들이 군선교여건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재정후원을 꼽았다.

2. 현재 사역하시는 현장에서 군선교교역자 신분으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 ① 부대 내 자유로운 선교활동 제한 (47명 / 26%) ② 재정문제 (101명 / 55%)
- ③ 군목과의 관계 (2명 / 2%) ④ 부대원들과의 관계 (1명 / 1%)
- ⑤ 기타 (선교활동 제한, 민간인신분, 인력문제, 시대적 상황과 환경, 종교시설 무단사용, 부대장과의 문제)

3. 군선교여건 보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복수선택 가능)

- ① 부대 안에서의 신분보장 (63명 / 34%) ② 재정후원 (135명 / 73%)
- ③ 군목과의 파트너십 (20명/11%) ④ 보직순환 (5명 / 3%)
- ⑤ 기타(군간부의 인식전환, 교회시설 이용 주인의식, 부대 내 상담활동, 양육교사·군중병 부족)

사실 그동안 군선교교역자들은 ‘자비량 선교사’의 신분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군선교 사역을 감당해왔다. 이제는 군선교교역자에 대한 인식과 관리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완벽한 보장에는 한계가 있더라도 최대한의 여건을 보장해주며, 군선교교역자들이 더 안정적인 지원 속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MEAK는 이미 제31차 정기총회자료집에서 군선교교역자 제도 관련 핵심 추진사항에 선교비 확보를 포함시켰고 부분지원 교역자들에게는 월 10만원~50만원을, 전임지원교역자들에게는 월 50만원~150만원 지원으로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한 바 있다.³⁴ 또한 제45차 정기총회 자료집에는 안정적 후원을 사업내용에 포함시켜서 군선교교역자 1인당 연간 선교활동비로 1,200만원(월100만원×12개월)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종목사단과 MEAK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MEAK는 군목과송교단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후원재원 마련에 힘써야 하며, 군종목사단은 군인교회들을 대상으로 군선교교역자 후원 부담금을 지정해서라도 군선교교역자에 대한 기본적인 후원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단, 모금된 모든 후원금은 MEAK를 단일 창구로 하여 모든 자료가 축적되고 공개되어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실시한 설문에서도 후원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 32%의 군선교교역자가 MEAK에서 중앙모금 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그 금액도 월 100만원이 적절하다고

³⁴ MEAK, 『제31차 정기총회보고서』(2002년 2월 21일)

응답한 교역자가 57%이다.

4. 군선교교역자들에게 일정금액의 사례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가예산지원 (54명 / 29%) ② 군선교연합회 지원 (58명 / 32%)
 - ③ 군인교회모금 지원 (9명 / 5%) ④ 소속교단 지원 (49명 / 27%)
 - ⑤ 민간교회지원 (38명 / 21%)
 - ⑥ 기타 (개인후원자 확보, 민간교회 1개군인부대 담당, 파송교회 전액, 일정금액 정기지원)
5. 군선교교역자들에게 일정금액의 사례를 보장한다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은?
- ① 월 50만원(14명 / 8%) ② 월 70만원(20명 / 11%) ③ 월 100만원(104명 / 57%)
 - ④ (기타 : 150~200만원 6명, 250만원~300만원 3명, 최저생활비와 생활정도 고려 2명)
24. 투명성 확보와 평준화, 후원자의 지정기탁 등 후원시스템의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서 현재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있는 후원금을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① 소속교단 총회의 담당부서로 일원화하여 개인지정 후원 (43명 / 23%)
 - ② 군선교연합회로 일원화하여 개인지정 후원 (46명 / 46%)
 - ③ 기타 (상급부대 통장, 교회명의 통장 7명, 군선교회로 모금 일원화 4명, 사역지 교회로 직접 후원 4명, 전체적인 군선교 컴퓨터 시스템 일원화, 지교회 명의 통장, 부대이름으로 통장, 카드, 인터넷뱅킹 마련, 파송교단 지원, 군선교연합회등 단체를 통해 지원 2명)

교단들의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MEAK뿐 아니라, 각 교단 소속 군종목사들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각 교단 군목단은 교단의 군선교부와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군선교교역자 후원제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청된다. 성공적인 군선교를 위해 군선교교역자들의 안정적 후원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MEAK와 군종목사단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장기연구과제 제안-계약직 군무원 제도

앞 장에 군선교교역자 제도 혁신과 관련하여 9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당장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방안들도 있다. 그런데 이 9대 방안 모두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한 가지 있다. 이 방안은 군선교교역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분야인 군내 신분보장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계약직 군무원 제도”이다. 군선교교역자들을 계약직 군무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정원제, 정년제, 순환보직, 평정작성, 파송교단 정비 및 생활비 지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군선교교역자들의 정예화, 체계화, 전문화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방안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는 타종교와의 합의 및 구체적인 절차와 군선교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방안에 대하여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제도이다. 병영 내 장병 상담과 사고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12년 군 인사법 일부를 개정하여 신분보장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아래 <표-17>을 보면 2005년 6명으로 시작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은 2016년 369명이며 내년도에는 37명이 증원되어 406명이 된다. 이들은 월 267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활동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년이며 1년 단위의 재계약이 가능하며 신분은 군인사법시행령을 근거로 한 기간제근로자이다.

〈표-17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연도별 현황〉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원	6	8	20	42	105	106	95	148	199	246	297	367	406

이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제도는 군선교교역자들에게 아주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다만, 군의 필요성을 따져 볼 때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야전에서 대령 및 장관급 지휘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외로 이 제도에 찬성을 하는 분들이 많다. 군선교교역자들이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들이 가지고 있는 상담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또는 406명에 이르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들의 절반 정도를 군선교교역자들에게 할당하여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게 하는 방안도 있다. 철저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군선교교역자들을 통한 군선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6. 나오는 말

군선교교역자들은 군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군종목사들의 동역자이다. 군종목사들과 군선교교역자들의 동역과 협력 선교가 제대로 꽃을 피울 때 군선교를 통한 청년선교, 민족선교 더 나아가 복음을 통한 조국 통일의 꿈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비전을 공유하고 더 나은 선교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필자는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을 통해 군선교교역자 제도 혁신을 위한 9대 방안과 장기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방안들 중에는 당

장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방안들과 장기간 연구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방안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논의들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절대로 한 번의 발표로 끝나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이다.

군종목사단과 MEAK 그리고 군선교교역자들이 군선교 관련 제도 혁신과 군선교 확장을 위해 더욱 협력하며 효율적인 제도가 확립되도록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군복음화와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자 선물이다.

부록(Appendix)

1. 군종목사 설문조사 결과

I. 설문 진행사항

- ① 조사대상 : 육군 군종목사 전원
- ② 설문조사기간 : ① 육군군종목단 임시총회 (160624) 시 실시
② 미실시자 메일 발송 후 접수
- ③ 회신결과 : 총 152명 응답

II. 설문 결과사항

1. 군선교교역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52명 (34%) ② 그렇다 84명 (55%)
- ③ 그렇지 않다 7명 (5%) ④ 매우 그렇지 않다 0명 (0%)
- ⑤ 모르겠다 5명 (3%) ⑥ 무응답 4명 (3%)

2. 현재 목사님께서 담당(설교)하고 있는 각 군인교회는 몇 개입니까?

- ① 1개 교회 담당 : 86명 (57%) ② 2개 교회 담당 : 36명 (24%)
- ③ 3개 교회 담당 : 11명 (7%) ④ 4개(이상) 교회 담당 : 17명 (11%)
- ⑤ 교회를 맡고 있지 않음 : 2명(위탁) (1%)

3. 현재 담당 교회 이외에 설교 지원이 가능한 인근 부대가 있습니까?

: 종합 결과 98개로 추산되나, 5년 차 미만 군종목사의 경우 주변 부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서술이 어려웠으리라 판단됨

4. 군선교교역자 제도 보완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추진사항 중 우선순위를 체크해주시오.

- ① 부대별 정원제 : 20명 (13%) ② 정년 단축 : 18명 (11%)
- ③ 선발과정 강화 : 81명 (51%) ④ 평정 작성 : 19명 (12%)
- ⑤ 순환보직제 운영 : 18명 (11%) ⑥ 무응답 : 3명 (2%)

5. 군선교교역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자유 기술)

구 분	내 용 (중복응답 제외)
행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에 따라 군교회사역 종결 시 환송감사예배를 매년 MEAK에서 한국군종목사단과 협업하여 진행 - 여단 및 사단 참모의 통제와 협조 유지, 단독 사역,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역 지양 - 상급 제대에서 적절한 감독 수단 마련, 엄격함이 필요하며 확실한 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운용되어야 함 - 군목과 군선교교역자가 갑과 을처럼 보이지 않아야 하며, 수고하는 교역자들의 사기를 꺾지 않기를 바람 - 군선교교역자와의 협조와 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요청(갈등해소를 위한 간담회, 연합수련회 등)
순 환 보직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경우 문제는 교회 사유화에서 시작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임기 4년 순환보직제가 좋다고 생각함 -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사명의식 약화됨, 순환보직제를 통해 사명감 고취하고 사역 감당토록 여건 보장 필요
선 발 강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선교교역자 선발과정에서의 정확한 자격 검토가 필요(선발 후 부적격 모습 식별) - 제출서류에 교단장 추천서 외 동료 목사 2인 및 노회장 추천서 포함 - 인턴십 과정 정례화, 군목 후보생(신대원생) 대대교회 인턴십 과정 연구 - 교단 군목단장의 책임제, 평가서를 교단으로 발송 - 선발 과정에서 심사를 강화하고 필요 정원과 교육원 수강 인원을 맞추어야 함 - 인턴십 과정을 통하여 선발 과정을 강화하는 것은 참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됨 - 인성, 영성, 대인관계 등 군선교 사역에 핵심인 몇 가지 역량들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필요 - 위촉 시 소속 부대 군종목사의 지도에 순종하고, 어길 시 해촉도 감수하겠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작성 필요
평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선교교역자들에 대한 평정작성이 순기능으로 활용되려면 평소 소통 및 지도방문이 필요함 - 군선교교역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군종업무에 공식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 평정보다는 군선교교역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현역군목에게 필요(외부로부터의 압력 시 보호) - 정년단축에 따른 해촉보다 평가에 의한 조정 필요(모범적인 성직자라면 60세 이후에도 사역가능) - 군선교의 용이함을 위해 지역 민간교회 목사님에게 더 문을 열되, 평정작성을 통해 부적절한 인원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정작성은 군선교교역자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다른 부대에 위장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함 - 군선교교역자 평정은 평가 저조자(사역중단)와 우수자(혜택제공)를 가려 양질의 군선교를 만들 수 있는 제도임
<p style="text-align: center;">교 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선교교역자뿐 아니라 군목들에게도 관련 규정 교육 필요 - 보수교육 시 예배 및 예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 - 매너리즘에 빠진 사역자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요, 설교, 목회 전반 편차가 너무 큼 - "선교", "목회"에 초점을 맞춘, 현장에 맞는 인턴교육이 분기 1회 이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됨 - 군선교교역자 선발기준 강화 및 윤리기준 및 지침 제시, 현역 군목단과의 정기적 모임 마련이 필요함
<p style="text-align: center;">정 예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선교교역자의 제도를 혁신하되, 각기 다른 군선교 현장상황에 맞는 유동성 있는 제도혁신이 되어야 함 - 주일예배 여건이 토요일 예배보다 더 나은 면이 없다면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확대 가능 - 부대에서(근무지에서) 가까운 교회라면 제대를 넘어 사역 - 지역단위 목회지원 필요(군단 지역 내 군사령부 예하 대대 교회를 군단 예하부대 군종목사가 담당) - 군선교교역자의 전문화된 사역을 위하여(설교역량 강화, 장병들 눈높이, 세대 공감) 교육 과정 신설 필요 - 군종목사에 의해 사역이 가능한 곳은 최대한 지원하고, 불가능한 곳에 군선교교역자 효율적인 배치 필요 -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 야간, 주말 예배를 활성화하여 현역에 의한 예배인도를 늘려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정 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선교교역자 연령제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청년선교에 맞는 군선교교역자가 선발되어야 함 - 정년 관련 해촉 과정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면 좋겠음 - 현재 연령을 넘었으나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군선교교역자에 대한 정리가 시급함 - 군목들 대령 정년이 56세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군선교교역자의 정년을 만 56세로 건의함 - 민간 교회 어디에서도 60세 이상의 교역자에게 청년선교를 맡기지 않음. 선교지 특성과 연령에 대한 재고 필요

재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지원 창구를 군종으로 일원화할 수 있지 않으면 제도 개선이 어려울 것임 - 후원 약정 사문화가 아닌 실질적 지원 과정 추천 선발 시 검증 - 교회 및 개인 군선교 후원 시 후원 경로 투명화(군선교연합회 계좌를 통해서만 지원, 교단 지원 포함) - 군선교교역자 생활 및 사역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support plan의 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 군선교교역자 교육 과정에서 재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야 함 - 민간교회의 완전 지원을 통해 군종목사와 협력사역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어야 함 - 지역군목단에서 군인교회 운영지침대로 대대급 교회까지 재정 감사를 실시해야 함 - 군선교교역자에게 군교회, 군선교연합회, 교단이 힘을 모아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시켜나가기야 함
해 촉 관 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역군목단에 있는 해촉 권한을 유지하되, 군선교교역자 불응 시 육군종목사 단으로 재심의 요청이 가능토록 제도를 마련하면 지역군목단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공신력을 높여 대민 갈등요소를 줄일 수 있음 - 해촉 심의 시 군선교연합회도 함께 하는 것이 좋겠음. 군단/사단 목사가 해촉에 짊어지는 부담이 과중함 - 군선교교역자는 군에 '위촉'되어 활동하므로 군목의 지도에 잘 따라야 하며, 연대 목사에게도 해촉할 권한이 필요 - 연령초과자 은퇴(해촉) 시 권위 있는 권고(혹은 서면)가 필요. 한국군종목사단 차원의 정식 행정조치 필요 - 군선교교역자의 해촉 여부 및 해촉 사유 공유 시스템 구축 - 물의를 일으킨 분들에 대해서는 자료 누적하여 군 교회 퇴출 및 재진입금지등의 조치가 필요 - 윤리위원회를 조직하여 비위 사실 적발 시 해촉
기 타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선교교역자 파송이 힘든 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례비 지원 등)가 요망됨 - 군선교를 위하여 군목, 군선교교역자가 질서 있게 조화롭게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을 부탁함 - 초임 군종목사들에게 군선교교역자와 관계를 잘 쌓는 노하우가 전수되어야 함 - 군선교연합회에 의한 군선교교역자의 관리 감독이 미흡함. 규정 보완, 책임자 선정을 명문화해야 함 - 군선교교역자 선발 가능 교단을 군목 파송 교단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 - 사단이나, 군단 차원에서 수고하시는 민간인 목사님들 격려하고, 협력할 수 있는 모임 강화

2. 군선교교역자 설문조사 결과

I. 설문 진행사항

- ① 조사대상 : 군선교교역자 (총 516명)
 - 전담 390명, 비전담 88명, 부교역자 35명, 기타 3명
- ② 설문조사기간 : 2016년 8월 9일(화)~23일(화) / 15일간
- ③ 회신결과 : 총 516명 중 184명 응답

II. 설문 결과사항

① 군선교 여건보장

1. 귀하는 군선교교역자의 '질 높은 군선교여건 보장'을 위한 제도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162명 / 88%) ② 아니다 (9명 / 5%) ③ 기타(2명 / 1%)

2. 현재 사역하시는 현장에서 군선교교역자 신분으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 ① 부대 내 자유로운 선교활동 제한 (47명 / 26%)
- ② 재정문제 (101명 / 55%)
- ③ 군목과의 관계 (2명 / 2%)
- ④ 부대원들과의 관계 (1명 / 1%)
- ⑤ 기타 (선교활동 제한, 민간인신분, 인력문제, 시대적 상황과 환경, 종교시설 무단사용, 부대장과의 문제)

3. 군선교여건 보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부대 안에서의 신분보장 (63명 / 34%) ② 재정후원 (135명 / 73%)

- ③ 군목과의 파트너십 (20명/11%) ④ 보직순환 (5명 / 3%)

⑤ 기타 (군 간부의 인식전환, 교회시설 이용 주인의식, 부대 내 상담활동, 양육교사·군종병 부족, 존재감 환경과 지지)

4. 군선교교역자들에게 일정금액의 사례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가예산지원 (54명 / 29%) ② 군선교연합회 지원 (58명 / 32%)
- ③ 군인교회 지원 (9명 / 5%) ④ 소속교단 지원 (49명 / 27%)
- ⑤ 민간교회지원 (38명 / 21%)

⑥ 기타 (개인후원자 확보, 민간교회 1개 군인 부대 담당, 파송교회 전액, 일정금액 정기지원)

5. 군선교교역자들에게 일정금액의 사례를 보장한다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은?

- ① 월 50만원(14명 / 8%) ② 월 70만원(20명 / 11%)
- ③ 월 100만원(104명 / 57%)

④ (기타 : 150-200만원 6명, 250만원-300만원 3명, 최저생활비와 생활정도 고려 2명)

② '질 높은 군선교 여건보장'을 위한 제도혁신 방안

6. 현재 사역중인 군선교교역자 총원은 약 680명(비전담 포함)입니다. 게다가 교회 공석보다 사역 지원자가 많은 공급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여러 면에서 효율적인 '군선교 여건보장'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대별로 군선교 여건보장(재정후원, 신분보장 등)을 위해, 군선교교역자 정원제(정예화)를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136명 / 74%) ② 반대 (23명 / 13%)

③ 기타 (상황에 맞게 대응, 수도권 집중 현상, 군목들 중 여러 교회 하면 된다는 생각 시정, 기존 군선교사 활용 비전담 축소, 대대급 교회 전담 사역자 증진)

7. 정월제(정예화) 시행에 있어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이후 군선교교역자 선발 축소를 통한 점진적인 정월화 (121명 / 66%)
- ② 정년단축 시행하여 연령초과자 해축을 통한 정월화 (46명 / 25%)
- ③ 연 2회 평정(평가서) 작성을 통해 사역 평가 부진자 해축 (28명 / 15%)
- ④ 군종목사 및 군선교교역자의 복수 사역지 편성 (24명 / 13%)
- ⑤ 기타 (군목·군선교교역자 증가, 교육 미 참가자 해축, 정월제도보다 지속적인 사역자 관리, 정년65세 지키기, 신분과 경제적 안정 확보)

8. 정월제(정예화)를 위해 정년연한 단축을 시행한다면 몇 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50세 (3명 / 2%) ② 만 55세 (11명 / 6%) ③ 만 58세 (8명 / 4%)
- ④ 만 62세 (43명 / 23%) ⑤ 만 65세 (67명 / 36%) ⑥ 만 70세 (21명 / 11%)

9. 군선교교역자 선발과정 강화를 위해, 인턴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턴제 : 위촉 전, 일정기간동안 군인교회에서 군선교사역 활동 체험 및 평가

- ① 필요하다 (인턴기간 및 발전적인 방안 자유롭게 기술 : 100명 / 54%)
- ② 불필요하다 (58명 / 32%)

10. 군선교교육원에서 양성되는 군선교교역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수에 비해 사역지는 제한되어 있어 수료 후에도 사역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기술)

구분	내용 (중복응답 제외)
양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 내 교회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필요. 당분간 수요가 없으면 중단하고 필요시 재개 - 지나치게 많은 수의 교역자 양성은 바람직하지 않음, 소수정예로 양질의 교육 시행 - 군선교교육원에서 너무 많은 수를 양성하였음. 교육생을 정원하에 모집할 필요가 있음 - 기존 회원들에 대해 보호를 해야 함. 차후에 교육숫자를 줄여가야 함 - 교역자 수급 현상을 봐가면서 손실을 판단하고 손실에 의한 보충계획 수립하여 학생 모집 - 군선교교육원의 교역자 남발로 인한 이단 침투를 막아야 함 - 현역들과 같이 전방 내지 취약지 사역을 일정 기간 마치게 하여 진정한 복음사역 실시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강화 또는 정년단축, 단기사역자 임명하는 제도 보완 필요 - 무엇보다 진정한 사명감과 열정과 복음의 헌신이 매우 중요함 - 사명감, 정신적, 재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 군선교에 뜻이 없는 사람은 걸러낼 필요 - 선교지가 예정되어 있는 분들만 교육원에서 양성하는 제도가 필요 - 지역적 편중 해소와 지원 자격의 엄격화 - 기존목회자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과 사역에 대한 평가 필요 - 앞으로 사역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사역자가 필요한 교회에 대한 조사와 연결 - 사역자가 결정된 자들에 한하여 교육원 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지속적인 군선교사에 대한 평가, 부적절한 사유로 평가된 목회자는 엄중한 처벌 필요 - 군선교교역자 추천과정이 필요와 사명에 의한 투명성이 있어야 함
사역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종목사가 담당하는 교회에 군선교교역자의 달란트 별 특화하여 배치 - 한 교회에 다수 교역자 공동 사역의 길을 터주어야 함. 협동목사로 팀사역을 통해 해결 - 병력이 많은 부대는 사역자 배정을 나누는 방법 고려 - 군선교교역자의 선발 축소 방법과 군목과 함께 동역함도 바람직함 - 사역자 연령을 낮추고 2개씩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에 대해 다른 사역자에게 기회를 부여 - 일정기간 의무제를 통한 격오지 담임 필수 - 일반교회와 병행하는 비전담자를 줄여야 함 - 군종목사님들이 여러 부대를 겸임 사역하는 것보다 민간 군선교교역자를 투입
인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기간 인턴제를 먼저 선행하고 인턴제를 통과한 분들 대상으로 2차 교육 실시 - 인턴제를 통한 부적격자 검증 후 선발 - 인턴제 경험이 필요, 군선교 사역 활동 체험을 할 수 있게 함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선교교역자가 전담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 재정후원과 사역의 실질적 지원 대책 - 교육 이수자로 담임을 바꾸고 정년을 만 60세로 줄임 - 전방과 중부전선에는 교회가 있음에도 전담자가 없음 - 65세 초과자부터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
-----	---

**11. 군선교교역자 정원조정 및 선발요건 강화를 위해, 군선교교육
원 운영에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자유 기술)**

구분	내 용 (중복응답 제외)
교 육 인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와 공급을 현실화하여 편성, 소수정예화. 군선교연합회를 통해서만 총원, 일원화 - 학력, 군필 여부, 목회 경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 개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결신자를 얻어 본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 - 교육과 함께 수료자에게 사역지 연결에 대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필요 - 군선교교역자 의무사역 연한을 최소 5년 이상 조건부여 필요 - 출석이나 교육태도 등을 성실히 체크하여 선발에 반영, 교육 이수자에게만 사역 허용 - 20명의 정원 제한, 장기, 단기 군선교사 비율을 적절히 배분 - 일차로 시험 거쳐서 군선교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교육 - 부대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모집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대기자만 양성하지 말고, 현재 사역중인 사역자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 - 현재 군선교사역자들을 구체적으로 자주 교육해야 함
연 령 제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얼른 정년퇴임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 수강비 할인 없이 시행, 응시자 나이제한을 더 낮춘다, 수료조건 강화 - 교단과의 협의가 중요, 연령대의 제한
교육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을 늘려서 실질적인 다양한 군선교의 교육 시행, 충분한 사전교육 필요. - 적성검사 등 군선교 교역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필요 - 거리가 먼 사람을 위한 통신강좌, 강좌요일 자유선택 - 각 교단 차원에서 군선교교역자를 받도록 해서 사례비도 각 교단에서 주면 됨. - 군선교 교육생 선발은 많아도 좋다 - 교육과정 다양화, 심층화, 실습화 - 투철한 사명감과 비전에 대한 확신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진정한 사명자를 기다리는 소초교회들이 많이 있음. 군선교연합회의 주목이 필요 - 군선교의 소명을 받은 분들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 - 2주간 숙식을 하면서 집중적 교육 실시

사명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명감과 헌신할 수 있는 요원을 뽑고 훈련시킴, 재정적 후원의 정착화 - 사명감을 가진 사역자 선발, 군소교단이 아무에게나 목사 안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함 - 군대의 이해가 있는 사역자 우선 선발, 군선교 연합회의 적극적인 후원 지원 - 군선교에 얼마나 열정이 있고 사명감을 갖고 사역하는지 수시로 점검해 보기 - 군선교에 대한 분명한 동기부여 필요함
협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선교 사역자의 기본생활비 후원할 수 있는 민간교회를 찾아 걸연 맺기 - 전방부대에 있는 교회는 그 주변의 민간교회와 연결해서 지속적인 유대관계 필요 - 군종과의 연계와 군대와의 연계 - 각 교단과 조직적인 관리와 소통, 교단내의 역할 분담에 책임 - 지역별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교체할 수 있는 자리 마련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군목들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 현재 2회 양성교육을 1회로 줄여야함, 1년 1회 교육이 바람직함 - 군선교 사역에 대한 자세를 보고 교단별로 배분하여야 함 (교단에 일임하여 파송) - 청소년 및 청년 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함 - 정통 교단의 교역자, 확실한 역사관과 국가관, 군선교에 자신만의 특기를 갖추어야 함 - 군목 파송 1개 교단에서만 군선교사를 선발하던 정책이 실행되지 않고 있음. 개선되어야 함 - 현역 출신에게는 선교 교육을 의무로 하지 않았으면 함 - 정원을 늘리고 선발요건을 완화해서 교역자들이 군선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수 선발 자격심의를 철저하게 검증한 후 교단에 세워야 함 - 군선교교육원의 요청하에 각 교단별로 군선교 교육 이수 자격을 지정해야 함 - 군선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고 군 부대교회로 가시는 목사님은 다른 교육도 필요함 - 군목 파송 교단 군선교사를 우선 교육파송, 군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풀타임 사역자 선발 - 1차 소속교단, 2차 군선교연합회, 3차 군종목사단을 통해 선발해야 함 - 군선교교육원에서 군사역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교육을 해야 함 - 군선교교육원 과정 통과 및 군선교 실습 과정통과 및 건강한 인격자 - 강력한 허가 및 심의기관이 되어야 함, 교육수료 및 시험, 후견 사역자 제도, 확실한 재정후원 - 교육 기간 중에 직접 군선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 정원조정은 사역지에 고려해야 함 - 군선교교역자를 필요로 하는 국방부 군종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 일정기간 동안 사역을 하고 평가제를 도입 - 철저한 서류심사, 군선교교육원 교육을 통해 부적격자 선발금지, 인턴제 등 - 비전담 교역자 배제되어야 함 (아직도 군선교교육원 수료 후 사역 못하는 대기가 많음) - 사역 중인 군선교사들이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군선교 환경 개선 - 모자란 지역으로 균등 배치, 특히 강원도 - 경험자들의 사례 청취 및 토론 /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야 함

12. 군선교교역자 정원화를 위해 평정(평가서)을 작성한다면, 평정작성은 누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① 1차 상급부대 군종목사 (38명 / 21%)
- ② 1· 2차 상급부대 군종목사 (20명 / 11%)
- ③ 지역 군종목사단장 (14명 / 8%)
- ④ 해당 부대 지휘관 (41명 / 22%)

⑤ 기타 (군종목사와 해당 부대지휘관 4명, 현 상황에 맞지 않음 5명, 현재 위촉 절차 보완, 본인사역일지 작성, 14번 고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1,2차 상급부대 군종목사+ 해당부대지휘관, 교회출석 병사들 3명, 군선교역자 담당, 교우들 2명)

13. 군선교교역자의 효과적인 군선교사역을 위한 순환보직제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33명 / 18%)
- ② 반대 (124명 / 67%)

③ 기타 (군선교사 재정지원, 도움이 필요한 교회선별, 순환제는 주인의식 결여, 필요한 부대만 우선 실시, 주거 문제가 보완되면 연대단위로 순환은 찬성, 분기별, 원하는 사람끼리 조정)

14. 순환보직제를 시행한다면, 한 교회당 연한은 몇 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2년 (15명 / 8%) ② 3년 (27명 / 15%) ③ 4년 (5명 / 3%)
- ④ 5년 (28명 / 15%) ⑤ 기타 (불필요, 6년, 7년 3명, 10년 6명, 비효율적)

15. 순환보직제를 시행한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시행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시오.(자유 기술)

구분	내 용 (중복응답 제외)
반 대 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순환보직제는 올바르지 않다. 순환보직제의 시행은 현 군목들에게만 가능한 일 - 사역의 여건을 갖추어 주고 시행해야 함 - 지역교회에서 건축한 교회는 해당 교단에서 운영하는 교회가 있음에 참조 - 장병들이나 간부들이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역자는 순환할 필요 없음 - 순환보직을 검토하려면 군선교사들도 군종목사처럼 보수 등을 지급해야 함 -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순환보직제 자체가 매우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많은 부작용 있을 것이라 예상됨 - 왜 이런 문항을 제시했는지 모르겠음. 자비량선교를 하고 있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람 - 선교후원비와 사택(사역지와 사역자의 사택 간의 거리)이 가장 문제 - 한 부대에 오래 있는 것이 타 부대에 비해 선배 격이 되어 사역하기가 더 좋아짐
찬 성 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적으로 찬성, 각 부대의 특성 파악 우선 - 현재 지역 내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내의 반경에 있는 교회로 순환 사역 - 인근지역에서의 순환보직 - 확실한 지위 보장, 경제적 지원(생활비와 주거가 안정된 상태라면 좋은 방안임) - 가능하면 군선교교역자 거주 지역 고려 - 현재 소속된 지역, 사령부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순환 - 처음 위촉할 때 격오지 사역을 원칙으로 할 것 - 취약지 및 미선호지에 대한 우선 선택권 보장, 월별 활동비 지급, 신분보장 - 더욱 열심히 사역할 것이라 생각 -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다수가 공감하는 선에서 시행해야 함 - 거주지 지역을 감안한 지역별 순환보직을 하되 원활하지 않을 경우 희망 지역별 순환보직 - 순환보직은 군선교교역자가 속한 지역 내에서 군교회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필요함 - 신청자에 한하여 순환하도록 해야 함 - 상급군종목사가 보직 임명 - 전국을 보다 세분화하여 희망사역지 신청 - 순환보직제 찬성, 그러나 예외성을 두어야 함 - 3년 중임제 - 교단의 군선교교역자 정원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 교단별 실시 - 1차적 연대 내 순환 2차로 사단 내 순환 - 1, 2, 3차 희망지역 의건 수렴 후 제비뽑기 - 교역자 연고지와 가까운 교회, 연고지가 멀다면 군 속소를 제공받음, 5년의 순환보직기간

③ 군종목사단과의 동역의식 강화

16. 군선교교역자와 군종목사와의 파트너십 및 유대강화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은?

- ① 전체 영성수련회 개최 (42명 / 23%)
- ② 지역별 간담회 개최 (93명 / 51%)
- ③ 지역별 단결활동 실시 (39명 / 21%)
- ④ 군목에 의한 목회 지도방문 실시 (15명 / 8%)

⑤ 기타 자유로운 의견 : 목회협력, 군목·부대지휘관·군선교교역자 간담회 개최, 만남을 통한 유대강화, 군목들의 고압적인 자세지양, 지역별 매월 조찬기도회 운용, 분기별 식사, 1박2일 수련회, 군선교교역자들의 사고방식 변화, 서로 신뢰, 대화 필요, 군선교교육원 수료하는 수료들에게 파트너십과 유대강화 교육, 군선교사의 특별 사역을 서로 이해하고 협조, 연말 군선교사 초청예배 실시, 위축의 권한이 군목에 있는 한 현재 상태유지가 바람직)

17. ‘동역의식 강화’를 위한 필요한 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 기술)

구분	내 용 (중복응답 제외)
의 사 소 통	- 자주 만나서 의견과 방법을 서로 교환, 지역중심, 부대중심의 간담회 및 네트워크 운영 - 정기적인 미팅, 유대감 강화, 솔직한 의사소통, 대화와 기도모임, 양질의 수련회 개최 - 정기적인 만남과 교제, SNS를 통한 소통,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식 - 조찬기도회가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군단 주관 전체 조찬기도회를 하면 효과적일 것임 - 사단 목사 부임한 지 만 2년 되었으나 위촉식 외에는 한 번도 군선교교역자와의 모임이 없음 - 군목 및 군선교교역자 간 강단 교류 활성화 - 연 1회 이상 사령부 예하 부대교회 연합예배, 교단별 군목과 군선교교역자의 연합

동역자의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종목사가 열린 마음으로 군선교교역자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 - 군목은 '갑'이 아니고, 군선교사도 '을'이 아니다. 군종목사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길 바람 - 각 사역과 지위를 존중, 군종목사들이 우월감을 버려야 함, 협력자 의식, 섬김의 마음 필요 - 군종목사들의 군선교교역자들에 대한 동역자로서의 의식 함양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종목사만큼은 아니더라도 군선교교역자들도 군에서의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책임 다함 - 행사를 위한 행사를 지양하고 군복음화를 위해 함께 진솔한 토론을 해야 함 -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교역자 모으기 - 군선교사 선발을 군목추천에서 군선교연합회로 단일화 및 총괄 - 군종목사의 현장 지도 방문 증가, 일대일 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 아무리 의식을 강화해도 서로를 위해 일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의식이 아님 - 불편한 사항을 수용 및 개선해나가야 함, 동반자 선교에 대한 관심과 대안이 필요함 - 마음과 가치를 얼마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느냐가 동역의식 강화의 관건임 - 목회자로서 상호 존중 및 배려, 군 교회의 발전을 위해 일체감을 만들어야 함 - 하나님의 일은 돈과 권력의 자리가 아님 - 서로 협력, 계급의식이 장애요인, 군종병집체교육에 군선교사들이 함께 참여 - 부대 지휘관과의 인간관계를 위한 도움 - 대대교회는 재정적 어려움도 있지만 교육할 수 있는 성도가 부족함 - 신분보장, 군선교교역자에게도 지원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

④ 후원제도관련 (MEAK 정책 참고용)

18. 현재 선교비를 후원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상급부대교회 (98명 / 53%) ② 민간교회 (94명 / 51%)

③ 소속교단 (22명 / 12%) ④ 개인 (25명 / 14%)

⑤ 기타 (가족과 본인 4명, 국군중앙교회 3명, 육본교회 1명, 시무한 민간교회 1명, 없음 4명, 미래선교네트워크 등)

19. 선교비의 후원 주기는?

① 매월 (146명 / 79%) ② 연 2회 (1명 / 0%) ③ 연 1회 (0명 / 0%)

④ 부정기적 (16명 / 9%) ⑤ 기타 (없음, 연4회)

20. 선교비 금액은? (연평균 월 후원금액)

- ① 50만원 미만 (84명 / 46%)
- ② 50만원 이상~100만원 (43명 / 23%)
- ③ 100만원 이상 ~ 200만원 (18명 / 10%)
- ④ 200만원 이상 (3명 / 2%)
- ⑤ 기타 (10-40만원 6명, 400만원 1명, 활동비만 개교회에서 부담, 자비량)

21. 군선교 후원을 받을 때 용도의 구분은?

- ① 군인교회 선교비 (95명 / 52%)
- ② 교역자 활동비 (12명 / 7%)
- ③ 군인교회 선교비 + 교역자 활동비 (46명 / 25%)
- ④ 교역자 사례(생활)비 (27명 / 15%) ⑤ 기타 (간식지원)

22. 후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군인교회 선교비와 군선교교역자 활동비 및 사례비(생활비)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구분되어야 한다 (146명 / 79%) ② 무방하다 (12명 / 7%)
- ③ 기타 (민간사역자가 담임일 경우 구분, 구분할 필요 없음, 후원은 군인교회 선교비로 받아야 함)

23. 군인교회 선교비로 지원받는 금액은 어느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까?

- ① 교회 명의 통장 (124명 / 67%)
- ② 담임목사 명의 통장 (31명 / 17%)
- ③ 교회 직분자 명의 통장 (5명 / 3%)

24. 투명성 확보와 평준화, 후원자의 지정기탁 등 후원시스템의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서 현재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있는 후원금을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① 소속교단 총회의 담당부서로 일원화하여 개인지정 후원 (43명 / 23%)

② **군선교연합회로 일원화하여 개인지정 후원** (46명 / 46%)

③ 기타 (상급부대 통장, 교회 명의 통장 7명, 군선교회로 모금 일원화 4명, 사역지 교회로 직접 후원 4명, 전체적인 군선교 컴퓨터 시스템 일원화, 지교회 명의 통장, 부대이름으로 통장, 카드, 인터넷뱅킹 마련, 파송교단 지원, 군선교연합회 등 단체를 통해 지원 2명)

⑤ **기타설문 (서술형)**

군선교교역자 제도의 발전을 위한, 귀하의 자유로운 의견을 기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기술)

구분	내용 (중복응답 제외)
재정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인 뒷받침 필요, 군선교교역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사례가 있어야 함(월 150만원 정도) - 협소한 예배당과 간식비의 급증에 대한 관심 필요 - 실질적인 재교육 필요, 안정적인 재정 지원, 재정문제의 평준화, 최소한의 생활여건 보장 - 부대 교회를 지정하여 개인이나 교회 이름으로 후원을 하도록 연합 - 각 교단으로 하여금 파송교회가 선정되어 종합적인 지원 - 군선교사역비를 개인당 월 150만원 정도의 지원 필요
관심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교회 민간인 사역자분들의 관심 필요, 각 교단별 군선교사역자에 대한 홍보 및 지원 - 군선교사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제도적으로 마련
선발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이 의심 되는 사람 선발이 너무 많음. 무분별하게 선발해서는 안 됨 - 엄격한 선발과정과 관리, 바람직한 운영, 공정성과 공정성 - 군선교교역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개혁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발전을 위한 꾸준한 연구와 정책화 - 전반적인 군선교 현장에서 방해가 되는 현상 타파 연구가 필요함

<p>동역자의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선교사역은 군종목사와 군선교연합회, 교역자의 서로 협력관계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음 - 군선교교육원 과정이 분명한 기준으로 사역자를 검증하면 정예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무임목사의 흡수 방식으로는 진정한 사역자들의 사역을 막을 수 있음 - 현역장교로 수십 년간 군생활을 통해 익힌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협력 - 군종목사와 함께 허심탄회한 군선교의 효율적 방안들을 모색 - 군선교제도의 발전을 위해 군선교연합회의 명실상부한 역할을 기대함(친밀한 교제 및 정보교환) - 군종목사와 지역 군선교사역자들의 친교모임, 1년에 한 번은 전체 영성수련회 필요 - 제도개선보다 현 제도에서 군선교교역자들이 사역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
<p>문 제 제 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항목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함,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대책을 세우길 바람 - 설문지 내용이 이미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음,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었으면 좋겠음 - 불필요한 제도나 일을 만들어 현재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혼선을 빚는 일은 없어야 함 - 사역자 교육 강화와 정예화는 아직 때가 이르다고 생각됨 - 정책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향후 분명히 답해주시길 바람 - 우리나라의 군에서 군선교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음 - 군선교사역자를 줄이면 대대교회는 병사들의 외출로 예배에 제한이 있을 것임
<p>소 명 의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명감이 투철한 수료자가 발굴되면 인턴을 하면서 사역지를 물려받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제도적인 틀도 중요하지만 열정과 충성이 있는 사역자를 뽑아야 함 - 담당직원을 두고 군선교교역자에 대해 1대1 후원자 개발에 주력해야 함 -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 제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군선교의 본질을 찾아야 함 - 선교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 필요, 전체적인 군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목회의식 필요 - 선교는 제도보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심정을 갖는 것이 더 우선순위임 - 자신들의 영예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써,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다짐이 필요 - 군선교교역자의 사명감과 자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 과정이 필요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찬기도회 출석 강요보다 다양한 보수교육 활성화 요망 - 신학교 시절에 군선교사역자를 선발하여 인센티브 제공, 심리테스트, 소속교단의 책임감 - 너무 먼 미래를 보지 말고, 지금의 문제들에 대해 대안을 찾자 - 군선교교역자의 정원화, 일정 사례 보장, 순환보직제는 시급히 시행되어야 함 - 대대교회의 자비량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청년들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미래지도자가 되도록 육성해야 함 - 매월 발송되는 오늘의양식과 다락방, 도서들이 전방소초 병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됨 - 대대급교회는 전담보다는 비전담으로 지역교회 목회자를 활용하기를 바람 - 군선교교역자들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교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급 필요 - 군선교연합회의 철저한 보고 및 통제, 군선교도 일반 행정시스템처럼 전산화가 필요 - 전군에서 자살 예방 및 인성 교육 차원에서 "1인 1종교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를 바람 - 일요일 오전은 종교활동 및 독서활동만 하도록 국방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람 - 군선교사 선발, 배치, 후원금 관리를 군선교사 연합회에서 총괄하여 효율적, 탄력적으로 관리
-----	---

표 목 차

- 〈표-1〉 사역 형태별 군선교교역자 현황
- 〈표-2〉 연령별 군선교교역자 현황
- 〈표-3〉 교단 및 직분별 군선교교역자 현황
- 〈표-4〉 기타교단 군선교교역자 현황
- 〈표-5〉 육군 지역군목단별 군선교교역자 현황
- 〈표-6〉 군선교교육원 수료 현황
- 〈표-7〉 연도별 군선교교역자 현황
- 〈표-8〉 군선교교역자 수련회 실시현황
- 〈표-9〉 군인교회 기부채납 연도별 현황
- 〈표-10〉 2000년 군내 종교별 현황
- 〈표-11〉 육군 지역군목단별 사역지 현황 및 군종목사 추가사역 가능 현황
- 〈표-12〉 두 교회를 겸임사역하고 있는 군선교교역자 현황
- 〈표-13〉 군선교교역자 연령분포에 따른 정년은퇴인원 년도별 현황
- 〈표-14〉 군선교교역자 평정 양식
- 〈표-15〉 비전담 군선교교역자들의 교육원 수료 현황
- 〈표-16〉 군선교교육원 수료 및 사역인원 현황
- 〈표-17〉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연도별 현황

Abstract

Through the study of innovative measures in the military civilian chaplain System, various problems were pointed out within the current system and with conducted surveys suggesting that current military chaplains and civilian chaplains'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did not differ from the findings, further research was conducted for this paper. And after analyzing previous studies regarding civilian chaplains and organizing and reviewing various materials the name change and institutional settlement processes for civilian chaplains were organized.

And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cooperation with military chaplains a potential plan was presented for effective military evangelism and concrete measures were proposed for 9 aspects, which were institutional innovation of the quota system, the lowering of the retirement age, the efficiency rating system, the rotation system, internship, the management of non-exclusive civilian chaplains, the renovation of civilian chaplain training center, the arrangement of dispatch denominations, and the improvement of the supporting system. And also a long-term research plan for the transferal of civilian chaplains to temporary contracted military civilian employees was proposed, with survey results for a survey targeted towards military chaplains and

civilian chaplains being included in the Appendix. And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investigated for the study were organized into 17 tables as well.

주제어(Key words):

군종목사(Military chaplain)

군선교교역자(Civilian chaplain)

정원제(Quota system)

협력선교(Cooperation mission)

군선교(Military evangelism)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강화 방안 연구”와 “군선교교역자 제도 혁신 방안 연구”에 대한 논찬

A Comment: “A study for effective partnership about military chaplain to military mission minister” and “A Study of the Renovation Plan of the Civilian Chaplain System”

■ 이규철 Lee, Kyu Chul

- 서울신학대학교 및 동 대학원(M. Div., Th. M.)
 - 피츠버그대학교 수학
- 계명대학교대학원(Ph. D.)
 - (예)육군군종목사 45기
 - 계명대학교 출강
 - CBS 방송 설교
 - 안동성결교회 담임목사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실행위원



1. 각 발제 논문의 주요 내용

논찬자는 먼저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파트너십 강화를 부르짖는 두 발제자의 뜨거운 염원이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의 마음이요 군선교를 통한 민족복음화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복음전도자의 충심임을 알기에 모두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금할 길 없다.

1) 안만국 목사께서 발제한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강화 방안 연구”는 비전2020운동의 실제 장(場)인 대대급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군선교교역자의 공통된 마음을 대변하면서 진지하게 군종목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장병복음화를 위해 매진하기를 열망한다.

안만국 목사는 그의 논문 2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군선교 현장의 문제의식을 개진한다. 3장에서는 군선교 현장에서의 두 날개인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신분과 역할을 짚으면서 사역의 특성을 분석하며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내면에 자리한 고민과 갈등의 요인을 조심스럽게 추려낸다.

4장에서는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 사이의 파트너십의 실제적 상태를 점검한다. 논자는 설문 자료를 가지고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가 서로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면서 피드백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파트너십 강화의 선결과제는 양자의 인식의 변화가 선결과제임을 명료하고 용감하게 지적하며 몇 가지 실천 방안과 군선교교역자 제도와 환경 개선을 제안하며 결론에 이른다.

2) 정재원 군종목사께서 발제한 “군선교교역자 제도 혁신 방안 연구”는 군선교의 주된 역할을 감당하는 군종목사들과 군선교교역자들은 복음의 동역자라는 확고한 인식의 전제하에 군선교 현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군선교교역자 제도의 혁신 방안을 제안한다.

정재원 목사는 그의 논문 2장에서 군장병 70%가 복무하는 군 선교의 최전선인 창끝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군선교교역자들의 현황에 대해 최신화의 수고를 감내하며 군선교교역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확장한다. 여기에는 목회자로서의 군선교교역자들의 인간적인 애로와 제 갈등의 중첩됨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을 분석하면서 공감을 표명한다. 더욱이 군선교교역자 제도의 형성과 정착은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진중교회 건축운동과 매우 연관성이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진중한 공로가 있음을 분석하여 눈길을 끈다.

3장에서는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가 제반 여건의 상당한 차이와 불균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십이 공고한 동역자로서 서로를 대우하고 협력하는 ‘협력선교’를 통해 ‘함께 잘 할 수 있는(win-win)’ 길로 나아가자고 역설한다.

4장에서는 군선교사 제도 혁신에 관한 통전적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논자는 대대급교회의 실제 현장 상황에 철저히 기초하여 ‘정원제, 정년 단축, 평정 작성, 순환 보직제, 인턴십 제도, 비전담 군선교교역자 관리, 군선교교육원 혁신, 군선교교역자 파송교단 정비, 후원제도 정비’등의 혁신 과제와 그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제안하며 결론에 이른다.

2. 평가

1) 위 두 논문은 군 구조 개편과 맞물린 병영문화의 다변한 상황에서 군선교 현장이 직면한 실재적 어려움의 현실에서 문제 인식을 같이 한다. 동시에 군선교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며 극복하

는 중요한 방안으로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서는데 매우 공감되어 고무적이라고 사료된다.

2)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는 군인교회와 해 군인교회에 속한 신자를 “설교와 성례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교회의 규율(discipline of the church)에 의하여 교회적으로 그들을 훈련시키는”¹ 목회자이되 군선교라는 동일 지평에서 선 복음의 사역자라는 점에서 양자 간의 파트너십은 당위적이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일부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어 대대급교회를 활성화하여 비전2020실천운동의 강력한 시너지를 발하는 데 제약이 되어 왔다는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발제 논문에서 이미 지적된 바, 일부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파트너십의 약화’와 ‘동역자 의식의 미약함’은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 것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도리어 군선교사역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한국교회의 군선교역량을 총괄적으로 집약하여 섬기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공히 지난날의 부조화(不調和) 측면을 반성하면서 전향적 성숙을 위해 군선교교역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2016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을 통해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통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논제라고 평가한다.

3) 일반인을 상대로 한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군선교에 헌신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파트너십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있어 파트너십은 서로를 복음의 동역자로

¹ 김병원, 『목회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6), 12.

인식하는 마음에서 피는 꽃과 같기 때문이다.

동역자를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συνεργός이다. συνεργός는 συν(함께)과 ἐργάζω(일하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서 ‘함께 일함, 협동’(working together, cooperation)의 의미가 내포된 ‘원조자(helper), 동역자(fellow-worker)’를 뜻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 6-9의 ‘하나님의 밭’ 비유를 통해 분파주의에 노출된 고린도교회의 적폐를 극복하되, 바울 자신과 아볼로가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천명한다. 아볼로와 사도 바울은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사역자들이라는 점에서 사역의 다양성을 드러내지만, 이들의 사역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고전 3: 5)이라는 사역의 목적에서 통일성을 이룬다. 이 사역의 합목적성은 ‘하나 됨’(Einheit)에서 온전해지는데, 그 하나 됨은 같음(Gleichheit)이 아니라 동역(同役)을 의미한다. 바로 이 점이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협력선교가 이루어져야 하는 성경적 이유이자 신학적 근거이다.

4) ‘군선교교역자 제도 혁신’ 제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짚어야 할 국면이 있다.

첫째, 군선교교역자 제도는 1997년 10월 27일 ‘국방부 훈령 제572호 제14조 민간교역자의 종교 활동’에 의거 공식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군선교교역자와 한국군종목사단, 그리고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규정과 방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둘째, 군선교교역자 제도는 비전2020실천운동이 대대급교회 활성화에 집중되면서 더욱 긴요해졌다. 따라서 군선교교역자 제도의 발전과 운영 또한 대대급교회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

런 점에서 군선교교역자들이 보다 ‘체계화, 전문화, 정예화’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여러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실정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를 위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한국군종목사단과 군선교교역자 대표가 망라된 Task Force를 구성하여 군선교교역자 운영발전 5대 정책사항인 ‘적임자 선발, 전문교육(신임, 보수교육 병합), 종합인사관리, 안정적 선교비 후원, 신분보장’과 관련된 개선 여지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현재 군선교교역자가 초과 보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군선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군구조 개편과 연계되어 군선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은 군선교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군선교교역자들의 정원제 실시와 사역지 조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보임의 안정성을 피하고 복음의 전진 측면을 강화해 나가야 되리라고 사료된다. 동시에 군선교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우수한 군선교교역자가 군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군선교교육원을 통해 1차 선발하고 지역군목단과 협의하여 최종 선발되도록 하는 방향의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군선교교역자의 안정적인 사역 활동을 위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은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되, 군선교교역자에 대한 재정후원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단일 창구로 함이 좋을 듯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군선교교역자 제도를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에 준하는 계약직 군무원제도로의 전환 문제를 국방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는 한국교회의 보물이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군종목사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 열악한 사역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군인교회와 기독 장병들을 섬기고 있는 군선교교역자들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위와 근무 여건을 더욱 보강해주는 파트너십과 동역자 정신을 강화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선교교역자는 군종목사의 위치와 역할을 존중하면서 동역정신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가 파트너십에 기초한 동역자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고 후원하는 일에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One Team, One Spirit”은 군선교에 임하는 모든 사역자의 영혼과 삶에 새겨져야 한다.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 그리고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군선교의 파트너이자 하나님의 밭의 동역자이다.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와 지도력에 관한 연구(II) 모세와 여호수아

The Military Leadership and Leadership in the Old Testament

- Moses and Joshua

□ 강사문 Kang, Sa Moon

■ 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실행위원



시작하는 말

이 논문은 지난번 군선교신학 13호(2015)에서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와 지도력”에 관한 연구의 두 번째 속편이다. 우선 지난 호에서 지면 관계로 다 수록하지 못한 모세의 나머지 지도력에 관해서 보충하려고 한다. 지난 호에서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모세의 지도력 세 단면을 살펴보았으나¹ 이번 호에서는 모세의 나머지 지도력 네 덕목을 살펴보려고 한다.²

¹ 강사문, “성경에 나타난 군(軍) 지도자(指導者)들과 지도력에 관한 연구,” 『군선교신학』 13 (2015), 124-151.

² 위 내용은 이미 『하나님 나라와 선교』라는 서정운 명예총장 은퇴 논문집(2001, 352-

초월적 지도자란 우선 선택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도받는 백성으로부터도 신뢰받는 지도자가 참 지도자임을 엿볼 수가 있다. 특히 요즈음 민주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선출하는 과정에서 말과 행동에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월적 지도자란 자기의 구원을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배울 수 있다. 더욱이 자기의 치적과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후계자에게 돌리며 후계자를 양성한 것에서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모세는 단순히 자기의 역량과 능력으로 백성을 지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수한 지도자라는 면에서 그의 초월적 지도자의 특수성을 찾을 수 있다. 이제 그의 나머지 지도력에 관한 네 덕목을 차례로 고찰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는 모세의 후계자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유산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토착민들과의 전쟁에서 큰 공헌을 한 모세의 부관이었던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1. 초월적 권위의 군 지도자 모세

1)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에게 신뢰받는 지도자였다.³

출애굽기 3: 11-15에서 모세가 자기 민족 해방을 위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지만 그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야 한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자신감이 없었다. 그는 자기에게 위임된 사명을

55)에 게재되었던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³ 강사문, “신뢰에 찬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면서,” 『기독교사상』 468 (1997/12), 204.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 애굽 바로 왕과 그의 부하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우선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증은 물론 자기 백성들에게서도 신뢰를 얻는 일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모두가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했으며 또 조상의 하나님이 파송한 것이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백성들이 순종하고 추종하였다. 그러나 모세 때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여호와라고 불렀다. 모세 시대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런 현상은 이스라엘 종교사에서 족장 시대까지는 하나님도 개인 혹은 가족의 하나님이었으나 모세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개인이 아닌 민족 공동체의 새로운 하나님이 되었음을 암시한다⁴

그래서 출애굽 시대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은 개인이나 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 전체 즉 신앙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세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본격적으로 주어진다. 모세의 위약성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는 신적 보증을 한다(12절).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라도 백성들이 모세를 불신하였을 때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처신하였느냐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지도자를 믿지 않을 때 우선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도록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신뢰케 했다(출 4: 31). 그런데 모세의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 그

⁴ 창세기 4장 26절에 이미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를 불신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최종적인 신뢰는 출애굽 사건이 완료된 시점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야아미누)”(출 14: 31). 지도자로서의 모세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 문제가 해결된 셈이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와 보증이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지도자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지도자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 상태에서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도자란 지도자 신뢰에 대한 신적 보증과 백성들의 신뢰가 함께 주어져야만 지도자의 참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보증은 출애굽기 3: 14에서 주어진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스스로 있을 자가 너(모세)를 보냈고, 그리고 그가 나를 너희(백성)에게 보냈다”고 하라고 한다. 이는 모세를 파송하는 하나님이 과거 조상들의 하나님과 다름없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역사의 주이심을 백성들에게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증에 따라 모세는 그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지도자란 지도자와 백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간의 신뢰가 결정타이기 때문에 백성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한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 놓고 지도자를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험한 들에서라도 양들이 안심하고 목자를 따르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신뢰 관계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모세가 신적 권위를 부여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백성들의 신뢰가 확고해졌음을 알 수 있다(출 3: 11). 이는 모세를 하나님의 종(민 12: 6-8; 수 1: 1, 7; 왕하 8: 12), 또는 하나님의 사람(신 33: 1; 수 14: 6; 시 90: 1)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2) 모세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구원을 포기하고 희생한 지도자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전적 신뢰를 받고 출발했지만 광야에서 행군을 계속하는 동안에 식량과 물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면서부터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었다. 홍해를 건넌 후 신 광야에 이르러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을 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거세게 불평과 원망을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출 16: 3) 하면서 거세게 불평과 원망을 했다. 이런 백성들의 항의와 거부를 모세는 신앙으로 감수해야만 했다.

더욱이 인간의 힘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광야에서 백성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거부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출애굽기 32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오래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바 우상숭배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했을 때 모세는 그들을 위한 중보자로서 하나

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구했다. 즉 ‘기록된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 달라’(32절)는 간원까지 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포기하고 대신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간원과 기도로 그들을 심판에서 구원한 중보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음을 알 수 있다. 광야란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장소로 범죄의 유혹도 많은 곳에서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 받아, 백성의 지도자로 훈련받았고 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백성과 동고동락한 곳인 동시에 그가 초월적 지도자로서 그의 지도력을 검증받을 수 있었던 곳이었다. 광야란 인간의 힘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곳으로서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 수 있는 훈련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겸손한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갖추기에 적합한 영적 훈련장소로 알려진다.⁵

3) 모세는 자기의 업적과 영광을 후계자에게 돌린 지도자다.⁶

모세는 80여 년간의 긴 고생을 자신이 감당하였으나 후에 그 어떤 기대나 영광을 바라지 않고 영광을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돌리는 모습에서 모세의 참된 지도자 상이 엿보인다. 출애굽기 3: 9를 보면 모세에게 위탁된 사명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일이었다. 이 사명 중에 전반부는 그의 의해서 성취되었으나 후반부 과업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모세 생존 시에 이미 모세는 가나안 땅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끝나는 것으로 계획된다. 민수기 20:

⁵ 강사문, “성경에서 광야(사막)의 주제.” 『장신논단』 16 (2000), 23.

⁶ 강사문, “신뢰에 찬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면서,” 206.

12와 27: 12-14에서는 모세 자신의 불신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가나안 입성이 좌절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고로 너희는 이 백성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고 한다. 그러나 신명기 1: 37에서는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모세의 가나안 입성이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된다. “여호와께서 너희(백성들)의 연고로 내(모세)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의 가나안 입성의 실패가 누구의 잘못이던 간에 모세는 가나안 입성과 그 영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신명기 34: 7에서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죽음으로 120년의 수난의 일생을 마쳐야 했던 것이다. 이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마감된 것과 유비된다. 모세는 부활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준 것이 다른 점이라 하겠다.

모세의 죽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의 자리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한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는 마치 영광의 부활이 없는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과 같은 느낌이다. 지도자로서의 그의 전 생애는 고난의 발자취일 뿐이다. 그러므로 목자로서의 모세 같은 지도자란 백성의 생존을 위해 평생 동안 헌신적인 책임 수행에 오로지 수난만을 감수하며 민족을 구원한 민족적

지도자가 모세였음을 회상할 수 있다. 모세처럼 후계자를 키우고 그에게 업적과 영광의 자리를 쾌히 넘겨주는 지도자가 우리 주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4)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수한 지도자다.

모세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와 인류에 공헌한 것 중에 최대 공헌은 하나님의 토라(Torah)를 시내 산(출 19-2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여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한 지도자이다. 여기서 모세의 기능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해야 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준 자이다. 본래 토라(Torah)는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율법이라고 번역되지만 이는 좁은 의미에서 법적 의미일 뿐이고, 광의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다. 토라는 애굽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생명의 길일뿐만 아니라 인류가 살아가야 할 생명의 길을 제시한 책이다. 하나님의 뜻을 법이라는 형식을 빌려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지상에 이루는 데 일차 목적이 있다. 법은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 회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요 원칙이다. 지도자 역시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토라 역시 공동체에 속한 자들의 생존의 길이요 진리다. 법은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창세기에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의미의 토라는 없으나, 출애굽기에서부터 공동체 생존을 위한 토라가 주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성경의 토라가 세계 역사 속에서 인류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 필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도

지도자 모세의 공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가 토라의 전수자로서의 공헌은 군 지도자로서의 공헌뿐만 아니라 유대-기독교 공동체에 지대한 공헌을 한 영원한 초월적 지도자라 할 수 있다.

2. 가나안 땅 정착에 헌신한 군(軍) 지도자 여호수아

1) 여호수아의 지도력

여기서는 출애굽 여정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세의 부관이었던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관해서 살펴볼 것이다. 여호수아는 청년 때부터 모세를 추종하고 보좌했던 자로서 모세의 지도력을 계승한 자이기도 하다. 여호수아는 이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보좌관으로 아말렉과 싸워 승리를 이끈 자였다(출 17:8-16).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모세의 지도력을 계승하였고 그의 창의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 드디어 약속에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대로 그들의 지파들이 필요한 대로 필요에 따라 분배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공정한 지도자였다. 우선 그는 어떤 인물인지를 성경과 주어진 전승을 통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1)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의 총사령관은 물론 군의 영적 지도자였다.

여호수아는 눈(Nun)의 아들로서 본래 이름은 호세아(Hosea)였으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는 시점에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꾸어 준 이름이다. 호세아(Hosea)나 여호수아(Joshua)나 두 이름은 다 '구원자'라는 의미의 어근(𐤒𐤑)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란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구원자(Jesus) 곧 예수라는 뜻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구약의 예수라고 부를 수 있는 이름

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여호수아, 예언자 호세아, 혹은 예수는 모두 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여호수아는 군대 장군이였다. 출애굽기 17: 8-16의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에서 보는 대로, 13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으로서 아말렉과 싸워 이길 때 모세를 도운 군(軍) 장군이였다고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때 그의 나이는 20대에서 30대 어간에 속하는 청년으로 추정되는 장수(將帥)였기 때문이다. 이는 사무엘하 18: 5에서 압살롬을 쫓은 무사(나아르)라고 할 때 쓰인 히브리어와 같은 용어인 ‘나아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나이는 그때가 2-30대 청년이었다는 것을 추측하게 된다. 만약 그때 그가 2-30대 청년이었다면 모세와 함께 40년간의 광야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정착 후에 얼마 동안 세월이 지난 다음 110세로 그의 일생을 마쳤다고 본다면, 그는 가나안 정착 후에도 한 세대 이상을 가나안 땅에서 보낸 것이다.

여호수아기 1-13장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모습은 군 지휘관으로서 전장(戰場)에 임하는 군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수없이 언급된다⁷.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

⁷ 수 1: 10, 4: 8, 17, 6: 10, 8: 4, 18: 8에는 ‘명령하다’는 동사 מצא가 쓰였고, 1: 13, 2: 1, 3: 6, 6: 6에는 ‘말하다’는 동사 אמר가 쓰인다.

이라”라고 명령한 것을 알 수 있다. 가나안 땅 진입을 진두지휘하는 총사령관으로서 그는 명령하다(ניצח)란 어휘와 말하다(אמר)란 말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군대를 지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가톨릭 성경에 포함된 외경(外經)에 의하면 그는 예언자(預言者)로 언급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전장(戰場)에서 용감하였고 예언하는 일이 있었고 모세의 후계자였다고 한다. 그는 그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위대한 구원자였고, 반항하는 원수들을 가차 없이 쳐부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땅을 차지하게 하였던 장군이었다는 것이 공동번역 집회서 46: 1에 나타난다.⁸ 이러한 전거(典據)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무사와 같은 용감한 군인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진 영의 사람, 즉 영적(靈的)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다. 정경 호세아서 12: 14(한글성경 13절)를 보면 여호수아를 예언자로 암시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또한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하여금 보호받았거늘”이란 표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자 모세에 의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예언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보호받았음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민수기 27: 18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군인으로서 물리적인 힘만이 아니라 영적 힘까지 소유한 영육간의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또 다른 면은 그가 군 지휘관이었고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민수기 13장에 의하면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탐꾼의 한 사람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로서 40일간 이스라엘 전

⁸ 공동번역(1977년), 193-194.

역을 전부 다 정탐하고 돌아온 장군이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위로 올라가서 시리아의 하맛 어귀 르홉까지 갔다가 40일 걸려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탐험가적인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후에 그는 갈렙과 함께 12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정탐의 결과를 모세에게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용감한 군사 지도자였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였다고 정의할 수 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특명을 받고 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하나님 여호와와의 종이였다는 사실을 신명기 31: 7에서 발견할 수 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불러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모세의 막중한 위탁과 신적 보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명을 수행한 자가 여호수아임을 그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가 차지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110세를 일기로 임종한 그의 마지막 장면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볼 때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모세는 후계자를 양성한 시대를 초월한 지도자였다는 것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양육하지 못했다는 데 약점이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수아의 지도력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대까지 이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 때문에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즉 여호수아의 시간적 공간적 기능으로 설명한다면, 시간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모세와 사사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 중개자 기능을 가졌던 인물이고, 출애굽 시대의 그 모세의 신앙과 사사기 시대의 신앙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대를 대표하고 사사들은 불순종과 순종의 시대를 대표한다고 할 때, 순종은 구원으로 혹은 불순종은 심판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는 구원의 때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주도했던 군 지도자임을 알 수 있다.

공간적인 범주로 본다면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애굽과 모압 땅까지 모세와 동행했던 지도자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가 건너가지 못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활동무대는 애굽과 모압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를 활동무대로 해서 그의 평생을 보낸 지도자로,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 반도를 거치고, 또 시내 반도의 북단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를 거치고 그리고 모압 땅을 거친 다음에는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했던 장군이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활동무대를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 중세기 회당에 안치된 여호수아의 모습은 얼핏 보기에는 외모가 그렇게 위풍당당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그 분이 바로 이스라엘 군의 장군이요, 영적지도자요, 민족의 지도자였

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통일 찬송가 382장의 가사를 보면 그가 그런 막중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라는 찬송가를 부르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도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라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고 군사령관으로서 이스라엘 전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늙은 군 지도자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2)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군(軍) 지휘관(The Military commander)이다. 여호수아에게 위탁된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두 번째 임무는 그 차지한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균등하게 안배하는 일이다. 그 첫 번째 임무는 여호수아기 1-12장까지의 이야기에서 언급되고, 두 번째 임무는 여호수아기 14-21장까지의 이야기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 임무부터 알아보자. 여호수아기에 나타난 가나안 땅 진입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는 물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조상들에게 여러 번 약속되었고 모세오경(창세기-신명기) 안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어진 주제다. 이런 배경 속에 주어진 여호수아의 임무는 막중할 수밖에 없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에 의해 약속의 땅으로 약속되었지만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 땅은 적들이 살고 있던 적군들의 땅이다. 이런 적군들의 땅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 적을 와해시키고 그 땅을 평정하느냐가 우선 주어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여호수아기 1-5장까지는 책 전체의 서론 부분으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가나안 땅 진입 준비에 최우선 과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할 지도자의 선택이었는데 이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지도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다. 그는 성령 충만하고 예언자적 권위를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였다(민 27: 18; 신 31: 22-23; 수 24: 29).

가나안 땅 진입 이야기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진입을 명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여호수아기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진입을 명령하자, 곧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진입을 위한 준비를 명령하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절대 복종할 것을 다짐한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2장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도성인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두 명의 정탐꾼을 파견한다. 그들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 정탐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그때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승전보고(勝戰報告)를 듣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여호와를 믿었던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다. 여호수아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 건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건넜다. 여기에는 두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첫째 조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었고, 둘째 조건은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 도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여호수아기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다. 여호수아기의 서론적인 마지막 부분 5장에서는 세 가지의 종교의식이 나타난다. 곧 할례, 유월절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수를 만남이다. 할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 몸이 정결해야 함으로 광야에서 행하지 못한 남자의 할례식을 하여 군병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생산된 새 곡식으로 유월절 행사를 하므로 출애굽 때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자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가 그쳤다. 마지막 의식은 시내 산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가 여호와를 만난 것처럼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장군을 만남으로 가나안 땅 진입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다.

(3)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토라) 준수에 충실한 군 지도자였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수행할 때에 승리하게 된 근본 원인은 율법 준수에 있었다. 가나안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하기를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수 1: 8). 이는 시편 1: 2-3과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율법을 준수를 필수로 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리라고 한다. 구약은 토라의 기초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의 토라 책이라고 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세운 집의 왼쪽 기둥은 전기예언서(여호수아-열왕기하)이고 오른쪽 기둥은 후기 예언서(이사야-말라기)라면 전기예언서의 시작도 토라(수 1: 8)이고, 후기예언서의 마지막도 토라로 끝난다(말 4: 4). 또한 성경 집의 지붕에 해당되는 성문서 역시 토라로 시작된다(시 1: 2) 집이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과 형식 전부가 토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유대교에서 구약성경을 가리켜 토라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가나안 적들과의 전쟁은 우수한 무기로서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삼상 17: 47)이므로 전쟁 주관자의 의도와 말씀에 복종하면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적장의 목숨을 앗아 가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기 때문이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호수아는 알고 그의 말씀을 따랐고 그 뜻에 순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한 군사 지도자였다.

여호와의 전쟁이란 신명기 20: 16-18에 언급된 대로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를 하게끔 해주는 특수전쟁이다. 보통전쟁은 힘 있는 나라가 영토 확보나 이권을 위해 약한 나라를 치려 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경우, 즉 약한 나라가 그 화평 선언을 수락하고 강한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섬긴다면 공격을 하지 않고 끝내는 전쟁을 말한다. 그러나 만약 침공을 받은 나라가 화평을 거부하면, 침공한 나라가 계속 공격하여 상대를 멸망시키는 전쟁을 말한다. 이런 전쟁에서 적진의 대상들은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경우다. 가나안 땅 경내에 있는 민족들에게는 이런 보통전쟁에 해당되지 않고 여호와의 전쟁 맥락에서만 이해되어야 한다.

여호와의 전쟁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의 특징이 있다.⁹

첫째, 전적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주관하는 전쟁이다. 그리고 이

⁹ 강사문, 『사무엘상』, 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총서 제8권 (대한기독교서회, 2008), 516 참조.

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전제하에 행하는 신앙의 증언이요 신앙고백이다. 출애굽기 19: 5-6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언약을 지키면, 그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다.

둘째, 적들은 하나님의 적이다. 이때 하나님의 적이 이스라엘의 적과 일치될 때만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아닐 경우에는 여호와의 전쟁이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적이 되어 심판을 받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가 바로 주전 58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포로가 된 사건이다.

셋째, 적들은 가나안 땅 경내에 사는 이방 족속들이다. 이들의 정체성은 우상 숭배자들이다(신 13: 6).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다(출 22: 20). 동시에 또한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들이었다(신 13: 7-8). 우상숭배나 이방신을 섬긴다는 말은 힘,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행위다.

넷째, 여호와의 전쟁의 또 다른 특징은 정복전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호수아기를 보면 적대적 나라들에서 왕의 세력(Royal power) 제압한 후에는 언제나 본 진지인 길갈 진지로 돌아오곤 한다(수 10: 15, 43). 제압한 지역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배자와 지배세력을 진멸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뿐이다.

다섯째, 여호와의 전쟁 방법은 속결속전이 아니라 장기전(長期戰)이다. 신명기 7: 22에 의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여호수아의 전쟁기도 일조일

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을 반영한다.

여섯째, 여호와와의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싸우시고 적을 제압하는 것으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해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도강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한다(출 14: 14).

위와 같은 6가지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여호와와의 전쟁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 사람들이 싸우는 보통전쟁에 해당되는 것이다.

일곱째, 여호와와의 전쟁의 방법은 ①혼돈이나 공포로 상징되는 왕 벌들을 보내 적을 섬멸한다(수 24: 12). ②또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수 10: 14, 42, 11: 16-17, 23: 10). ③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적을 넘겨준다는 승리의 확신을 보낸다. ④자연 질서를 이용하여 적을 섬멸한다. 홍해를 동풍으로 바다를 말리신 것(출 14: 21)처럼 요단강 물을 말리셨다(수 3: 17). ⑤천체를 동원하여 적을 심판하신다(수 10: 12).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적을 심판하고 섬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쟁을 수행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증언하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 추종한 것이다.

(5) 여호수아 전쟁의 특성은 진멸(殲滅)이다.¹⁰

여호수아기의 전쟁 이야기에는 진멸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여호수아기 6: 21에 의하면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

¹⁰ *Ibid.*, 438.

멸하니라.” 보통 전쟁에서도 전장에서 싸우던 남자 군인들을 죽이든지 포로로 잡아 가는 경우는 있지만 군인이 아닌 남녀노소 심지어는 소와 양 같은 가축까지 죽이는 일은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기에서만은 이런 진멸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용어의 뜻은 무엇일까?

진멸사상은 여호와와의 전쟁을 수행 할 때 공격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방어전에는 진멸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섬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의 전쟁에서 진멸의 7가지 특징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진멸이란 말은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불태워 드린다는 말이다(레 27: 28-29).

둘째, 진멸의 대상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6-7개 족속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이들 족속 외에는 진멸의 대상이 아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와 신앙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임을 증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는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과 진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진멸이란 부정한 것을 파기하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 헌신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방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파기하고 새롭고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헌납한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진멸이란 새 시대를 창조하기 위한 청결식과 같은 의미이다. 혼돈의 세력을 멸하고 새로운 창조질서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여섯째, 진멸의 사상은 십계명 1-2조항에 신학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 된 것이다(출 22: 20; MT 19절).

일곱째, 어떤 민족도 새로운 영토에 정착한다는 것은 우주 생성적 사건에 속한다.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고 성화되고 헌납되기 때문이다. 즉 진멸이란 우주질서를 회복하는 원리에 해당된다.

여호수아기의 초점은 여호수아가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6(7) 족속(11: 3)들과 대결해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이다. 가나안 적들과 군사적 대결이 불가피한 것은 우선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이고, 그곳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신들을 섬김으로써 약속의 땅을 오염시킨 자들, 즉 하나님의 적들이기 때문이다. 이 단락에서 신학적 이슈는 여호와와의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승리로 얻은 적진의 모든 것, 곧 모든 전리품과 가축은 물론 남녀노유까지 쉼 쉬는 모든 것은 이방신들로부터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진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6: 21). 즉 승리로 얻은 모든 것은 승리를 준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야 한다는 뜻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은 이미 신명기 13: 15-17에 나타난다. 너 희가 알지 못하던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하거든,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하하렘),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 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진멸할(하헤렘)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18상-MT). 또 신명기 20: 16-18에도 같은 원칙이 나타난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헛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하하렘 타하림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 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 단락에서 진멸(盡滅)은 일반적인 전쟁에서 발생하는 집단 학살(虐殺)같은 살인(殺人)이 아니라 이 신명기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전적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한다. 오염된 것들을 온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원칙은 가나안 땅에 사는 (67) 족속에 한해서 적용된 것이다. 따라서 여호수아기 6: 17-19도 이 원칙에 준하는 것이고, 라합과 기브온의 히위 족속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취급되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이 원칙에 적용된다. 라합의 경우는 이미 약속되었기 때문이고(2: 9-11), 히위 족속은 신명기 20: 10-11의 원칙에 따라 이스라엘과 이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외가 된 것이다(9: 15).

또 다른 신학적 관심은 이 단락의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맥락에서 말할 때 여기 기록된 제의적 사실대로의 역사는 아니더라도 역사적 사실임에는 틀림없다. 왜냐하면 다음 단락인 13장에서 19장까지의 땅 분배 이야기가 역사성에 기초한 것이고, 땅 분배 이야기는 땅 소유를 전제하

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땅 분배의 성읍이나 도시 이름은 역사성을 반영한 것이고 본 단락의 이야기는 그러한 역사적 자료에 기초하여 여호와와 전쟁이란 맥락에서 재해석된 전쟁 이야기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역사적 사실의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곧 여호수아기 24: 11에 여리고 용사들(수 6: 2)과 여호수아의 군사들(수 6: 3, 7, 9, 13)이 여리고에서 싸웠다는 암시나 라합의 집에 자주색 줄을 내렸다는 것이나 성벽을 돌며 적진을 살피는 것들은 역사적 사실들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이다¹¹. 엄격한 의미에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현장 목격자 외에는 정확성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목격자의 진술도 그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단락의 이야기들은 사건이 일어난 지 오랜 후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재현하는 제의를 통해 '기억되어진 역사(the history remembered)이다. 이는 예수가 역사적으로 유대 왕이 된 적이 없으나 유대인의 왕인 것과 같은 의미다(마 2: 2, 27: 37).

여호수아기 저자의 의도는 우상들을 파괴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처럼(왕하 23: 4-20)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통해 새 시대의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둔 것이다. 특히 여리고 성을 차지하는 이야기는 길갈 성소에서 매년 거행되는 7일간의 유월절 '절기 제의'(Ritual ceremony) 때에 본래 사건과 그 내용으로 재현되었던 내용들을 하나님의 전쟁이란 맥락에서 해석되고 형성된 이야기들이 제의 전승을 통해 우리에게 전래된 것이다. 또한 여리고 성 점유

¹¹ E. John Hamlin, *Inheriting the Land: A Commentary on the Book of Joshua*, International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3), 45.

이야기는 나머지 가나안 땅 점유 이야기의 모델(수 8: 1-2, 10: 28-30, 24: 8-13)이 될 뿐만 아니라 역대기 전쟁 이야기(대하 13: 12, 13-14), 마카비 전쟁 이야기(마카비하 12: 15-16)에서도 사용되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기자(히: 30-31)나 요한계시록 이야기에서 종말의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 여리고 성 점유 이야기에서 제사장이 불었던 나팔 소리가 승리의 나팔 소리로(대하 13: 13-14), 주의 재림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나팔 소리(살전 4: 16; 고전 15: 52)로, 세상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나팔 소리(계 11: 15)로 활용되고 있다. 하나님의 승리를 영원히 후대에 전하기 위해 제의적 이야기로서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여호수아의 전술(戰術)

여호수아는 전략전술가(戰略戰術家)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전술과 전략을 활용한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요단 동쪽에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적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탐술, 요단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도하 작전술, 여리고 평야가 해저 400m인데 기브온 성은 해발 1000m 이상 되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기브온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급경사 지역인 이 지역에서는 전략상 후퇴와 매복전, 기습작전, 야간전술 등 지형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 전술이 요구된다. 지면 관계로 여기서는 정탐술과 요단강 도하 전술만 다루고 나머지 전술은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1) 공격 전(前)에 적진을 살피는 정탐술(偵探術)

우리 속어에 지피지기(知彼知己)는 백전백승(百戰百勝)이란 말이 있

는 것처럼 전쟁의 승리 첫째 요건은 적진을 잘 파악하는 일이다. 곧 적진(敵陣)을 정확하게 정탐하는 일이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여리고 성(城)의 상황파악을 위해 정탐꾼 두 명을 몰래 보내는 이야기가 여호수아기 2장에 언급된다. 혹자는 여호수아의 정탐꾼 파견은 여호수아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불신의 행위라고 한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자신의 의도에 따라 행한 정탐꾼 파견은 땅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수 1: 2)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이다.¹² 하지만 반드시 신앙의 결핍에서 온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모세도 백성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나안 땅 정탐을 실행했기 때문이다(민 13: 17), 더욱이 민수기 13: 1에서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하여 그 땅을 정탐할 것을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 정탐을 실행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전(實戰)의 모습을 보여준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한 곳은 요단강 동편 여리고 맞은편 싯딤이다. 싯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징계를 받은 장소이기도 하다. 이 반역의 장소는 이방인 가나안 여인 라합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룬 라합의 여리고와는 대조를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고 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그리고 여리고를 자세히 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땅과 여리고는 동격으로, 그 땅 곧 여리고를 자세히 정찰하라는 말이다.

¹² Robert Polzin, *Moses and the Deuteronomist: A Literary Study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Part 1* (Bloomington: Indiana Univ Pr, 1993), 86.

정탐꾼 이야기에서 호기심을 끄는 것은 정탐꾼의 행동이다.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여리고로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묵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쓰인 3개의 동사는 주로 성행위를 표현할 때 연계되는 동사들이다(창 6: 4, 16: 2, 30: 3, 34: 7, 19: 7, 10, 12 등). 사사기 16: 1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는 문맥에 2장 1절의 두 동사가 쓰였기 때문이다. 특히 1절의 마지막 단어 유숙했다, 묵었다(בִּישְׁכָּבָה)는 동사의 의미는 '샤카브'(שָׁכַב)에서 유래되는 바, '눕다, 잠자다'라는 말이다. 야곱과 레아의 경우(창 30: 15)에 쓰인 '이스카브'(יִשְׁכַּב)는 동침,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경우(창 39: 7)에 쓰인 단어 '샤카브 임미'(שָׁכַב אִמִּי)도 나와 동침하자는 뜻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정탐꾼의 경우도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 세 가지 해석이 있다. 기생으로 번역되는 '조나'(זוֹנָה)는 왕국 전(前) 시대의 모계(母系) 사회에서 창녀가 아닌 여자 주인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한다. 다음 해석은 라합의 집은 여관집이고 라합은 여관집 주인이라는 해석이다. 마지막 해석은 문자 그대로 라합은 기생이고, 본래 라합이라는 말은 열린 곳이라는 의미에서 우가릿 문화에서는 여자 성기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한다. 오히려 문자 그대로 성관계가 있을 수 있는 문장으로 묘사해서 여리고 왕의 부하들이 의심 없이 믿기 쉽게 하는 등, 하나님은 천하고 보잘 것 없는 변방의 인물들을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그의 역사를 전개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생이 오히려 라합의 직업에 어울린다는 것이다. 또한 기생집에는 이방 남자들이라도 의심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므로 라합이 기생이라는 것이 정탐꾼들에게는 잘 어울리고 안전하다는 이야기이다. 문제

는 라합이 기생 신분이지만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더 어울린다는 것이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 신앙을 전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방 문화권에서 그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다. 라합의 신앙고백에 의하면 기존의 가나안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고 그가 천상천하의 주재자임을 고백한다. 그러나 완전히 이스라엘 신앙으로 전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정탐꾼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11절)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도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해가 쉽다(마 21: 31). 마지막 해석이 더 박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정탐에 성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정탐꾼들의 절대적 협력자, 곧 기생인 라합을 만났기 때문이다.

어떤 여리고 사람의 제보로 정탐꾼들이 여리고 정탐을 위해 왔다는 것을 여리고 왕이 알게 된 건지는 몰라도 그 왕은 부하를 보내어 라합에게 정탐꾼들을 탐문한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정탐꾼들의 운명은 오로지 라합의 말에 달렸을 뿐이다. 하지만 라합이 어떻게 왕의 사람들을 따돌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는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음 단락에 나타난 라합의 신앙 고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라합은 여리고 왕의 부하를 거짓말로 따돌려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가게 만들고 여리고 성문이 닫힌 후에 안전한 상태에서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있는 삼대 단으로 숨겼다. 그녀는 여러 사람을 대하는 기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여리고 왕의 부하들은 쉽게 그녀의 말을 믿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라합은 서슴없이 거짓말을 한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

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은 따라 잡으리라”(2: 45)고 하였다. 이 거짓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바로의 명을 어기고 거짓말을 한 히브리 산파(출 1: 19ff.)들의 행함을 예로 삼을 수 있다. 바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라합도 히브리 산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므로 야고보는 “기생 라합은 다말처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약 2: 25)고 증언한다. 정탐꾼들이 이런 라합을 만난 것도 우연히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라합은 가나안 땅에서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첫 단계를 제공한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아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었다(마 1: 4-6). 그녀의 33대 후손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의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 4명이 있는데 라합은 그 중에 하나다. 그녀가 선택받지 못한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의 족보에 한 대를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 섭리의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비선민이 선민의 기능 이상 가는 구원사의 한 축을 이룬 셈이다. 이는 비선민(非選民)인 이방 여인 라합과 선민(選民) 유다 지파의 아간과 대조하여 보면 그녀의 위대함이 더 분명해진다.

	라합	아간
소속	가나안 사람	유다 지파(수 7: 24)
한 일	정탐꾼 숨김	전리품을 가지고 가서 숨김

신분	가난한 자(수 2: 6)	부자(수 7: 21-22)
공과	정탐꾼을 선대함(수 2: 12)	동족에게 고통을 줌(수 7: 11)
계약	이스라엘과 함께 계약맺음(수 2: 12-14)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수 7: 11)
결과	그녀의 가족을 구원함(2: 13-14)	그의 가족을 파괴함(수 7: 25)
신앙	이방신을 떠나 여호와께로 개종함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범죄(수 7: 20)

유대 전승에 의하면, 라합은 여호수아와 결혼하여 그녀의 후손에서 5명의 왕들과 8명의 예언자들이 배출되었다.¹³ 즉 라합은 이방신과 문화를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새 역사를 창조한 여인이다. 변방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구원사의 중심에 섰던 자로 성녀(聖女)가 된 창녀(娼女)이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탐에 성공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기 6장에서 전개되는 여리고 성 공격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요단강 도하작전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에 홍해를 건너야 하는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 있던 여호수아 일행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즈음은 봄 3-4월(유월절)이라 요단강 물이 만수위일 때였기 때문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상황인 셈이다. 요단강은 얼마나 넓고 깊은 강인가? 백여 년 전 기록에 의하면 요단강의 폭은 27-30m, 깊이는 1-4m 가량 되는 것으로 기록되지만¹⁴ 현

¹³ Louis Ginzberg, *The Legends of the Jews*, tr., Henrietta Szold (Amazon Digital Services, 2011), 4-6, 171.

¹⁴ G. A. Smith,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Harpe Collins Distribution Services, 1966), 312-313; R. G. Boling & G. E. Wright, *Joshua, The Anchor Yale Bible Commentaries 6*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82), 178.

재 요단강은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선이라 출입이 통제되어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조절하기 때문에 폭은 넓은 곳이 20m 정도 깊이도 낮은 편이다. 하지만 옛날에는 다윗이 나룻배로 요단강을 건넌 것만큼 물이 넘쳐흐렀을 것을 추정한다면 요단강의 수위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삼하 19: 18).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의 요단강 전체 길이는 205km(직선 104km)이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보다 넓고 깊었을 것이다. 특히 겨울철 우기에는 강물이 많지만 여름 건기에는 물이 적다. 여호수아 일행이 요단강을 건넌 때는 봄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많은 때이다(수 3: 15). 그 시기는 양력으로 3월말 4월초이다. 왜냐하면 성경 달력으로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편 경계 지점인 길갈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가서의 싯딤에서 길갈이란 사건을 회상하는 것을 보아 요단강 도하가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학적 형식은 요단강 도하 사건에 대한 역사적 전승에 근거하여 매년 길갈에서 거행되었던 봄 축제의 제의적 형식으로 표현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여호수아기 3: 5에 “너희는 성결케 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은 성전 입장 전에 취하는 행위를 암시하는 말로 이야기의 제의적 성격을 뒷받침한다. 이 제의의 목적은 요단강의 제의적 드라마에서 기적에 의한 홍해 사건을 재연하는 데 있다고 한다.¹⁵

요단강 도하 이야기의 문학형식이란 여호수아기 1-2장과 연계된 형식으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 했던 싯딤(수 2: 1)을 출발점으

¹⁵ 손석태, 『여호수아』, 대한기독교서회창립 100주년 기념총서 제6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04-105.

로 하여 이야기가 시작되고(수 3: 1), 요단강 도하도 정탐꾼이 3일 동안 은닉되었던(수 1: 11) 것처럼 3일 후에 실행될 것으로 명령한다(수 3: 2). 3일이란 표현은 구약이나(수 9: 16), 신약의 예수 부활의 때를 표시할 때 쓰인 것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때를 표현할 때 쓰는 은유적 표현법이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형식에 따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권위를 격상시키겠다는 말씀(수 3: 17)은 여호수아기 4: 14에서 이루어진다. 여호수아기 3: 13에서 흐르던 요단강 물이 한 곳에 쌓여 설 것이라는 여호수아의 말씀은 마침내 16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호수아기 4: 5에서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는 명령은 4: 8에서 명령대로 12돌을 유숙할 곳으로 가져갔으므로 명령에 복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 형식으로 기획되었다.

요단강 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다. ‘건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바르가 이 이야기에서 21회 쓰인 것도 ‘건너다’란 의미가 그 만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 단어는 자연적인 요단 골짜기의 경계선(신 2: 13-14), 나라의 국경선을 넘었다는 의미(신 2: 18)로, 또는 명령을 지켜야 할 선을 넘은 즉 명령을 위반(신 26: 13; 수 7: 11, 15)했다는 의미로 어떤 한계점 전환점을 넘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말은 지휘관들에 의해서(수 3: 2-4), 여호수아에 의해서(수 3: 5-6, 9-13),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수 3: 7-8) 사용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요단강 도하는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구원 사건임을 증언하는 데 있다. 이 사건 전승은 후대로 자자손손이 사건을 상기하기면서 하나님의 본성을 깨닫게 하는 데 의의

가 있다.

	홍해 도하 사건	요단강 도하 사건
물을 가르는 방법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14: 16-21).	제사장 발바닥이 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다(3: 13)
백성들이 건너 간 곳	바른 땅으로 가고 물은 좌우의 벽이 되었다(14: 29, 15: 19)	바른 땅으로 걸어감(3: 17)
적을 섬멸하는 방법	주의 오른손으로 적 쳐부숨(15: 6, 12).	살아계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쫓아 냄(3: 10, 4: 24)
기념비 세움	없음	요단강과 길갈 두 곳에 기념비 세움(4-9, 20)
적들의 반응	떨며 낙담함(15: 15)	
백성들의 반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세를 믿음(14: 31)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높이(4: 14)
주의 백성의 인도	기업의 산으로 인도함(15: 17)	육지로 인도(4: 18)

따라서 요단강 도하 사건은 출애굽 때에 모세의 지휘하에 홍해를 통과한 사건과 유비된다(수 4: 23). 출애굽기 14-15장의 표현과 여호수아기 3-4장의 표현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위의 비교표에서 보는 대로 홍해 도하는 애굽에서 압제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여 자유를 확보한 사건이다. 하지만 요단강 도하 사건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요단강은 가나안 땅과 이방인의 땅의 자연 국경선이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권에 접하는 시작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다(창 12: 7, 15: 7). 즉 요단강 도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구성된 단일 민족국가가 탄생되는 사건이다. 다윗 왕 때 그 실체가 구체화된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 유랑하던 족속이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농경으로 전환되는 정착문화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요단강 도하 사건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전승에서 요단강 건너는 일은 이 세상의 마지막 경계선인 죽음을 넘어 저 천국에 이르는 것으로 승화된다. 여러 찬송가 속에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보이는 집, 그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등의 가사를 통해 이 세상 나라의 국경선인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서 내세의 영생을 영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전승에서 가나안 땅은 저 세상 하늘나라로 이해된다.

그런데 요단강 도하 작전을 제의 형식을 통해 보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후에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나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기적적 도움으로 우리 백성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살게 되었다는 구속의 신앙을 전하는 데 이야기의 기술 목적이 있다. 여호수아기 3: 1-13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또는 온 땅의 주”라는 표현으로 묘사된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The Living God, 3: 10, 엘 하이)은 구약에 여러 기 외에 단지 7번(호 2: 1; 시 42: 3(한글 2), 84: 3(한글 2)) 사용된다 뜻은 단수이지만 형식은 남성 복수형태(엘로힘 하이)로 4번, 사 17: 4, 17; 왕하 19: 4, 16). 이 용어는 살아계신 하나님(the living God)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된 공식 타이틀이다. 이 용어가 복수 형태(엘로힘 하이)로 나타나는 이사야 37: 4, 17(왕하 19: 4, 16 병행)에서는 히스기아 왕이 앗수르의 랍사게가 너의 하나님은 이스

라엘을 구원할 수 없는 신이라고 했을 때 왕이 랍사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응수할 때 사용된 어휘다. 비슷하게 여기 본문에서도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용어가 쓰이고 있다(3: 10). 여기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나타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요단강 도하가 이루어졌음을 표현하는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다.

둘째, ‘온 땅의 주’(The Lord of all the Earth)라는 용어는 본문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주로서 그가 약속한 땅을 관할하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구약 전체에서 온 땅의 주라는 호칭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 범위를 넘어서 세계 온 땅을 지배하시는 분으로 지칭되었을 때 사용된다(시 97: 5; 미 4: 13; 숙 4: 14, 6: 5).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여호수아기 3: 11에 온 땅의 주는 언약의 궤와 동격을 이룬다. 즉 언약의 궤, 곧 온 땅의 주로 번역이 되면 하나님을 물상화하지 말라는 계명(신 4: 15-20)과 상치된다. 그래서 몇몇 번역은 뒤의 구(句)가 앞의 구(句)를 지배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온 땅의 주의 언약궤”로 번역한다. 그러나 여호수아기 3: 13에서는 또다시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언약궤와 온 땅의 주가 동격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온 땅의 주가 눈에 보이는 여호와와 궤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물상화의 오류에 빠진다. 그렇지만 후기에 이르러 법궤 없이 산 시대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칭하는 상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약궤와 요단강 도하는 전능의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기 3: 12은 후기에 첨가된 것으로 3장과 4장을 연계된 사건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주어진다. 이는 마소라 4: 2와 연

계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LXX(4: 2)에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이란 단어가 없다.

여호수아기 3: 14-17에서 요단강 도하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 도하보다는 도하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다. 요단강 도하를 통해 자기들을 구원해 준 그들의 하나님을 기리고 찬양하기 위함이다. 도하 시기도 물이 적은 여름철이 아니라 홍수가 한창인 봄철(1월 10일; 4: 19), 즉 양력으로 3월말 4월초가 되는 유월절 시기이기 때문이다. 16절에 요단강 도하를 묘사하는 4개의 동사가 등장한다.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섰다(아므), 그리고 사르단에서 맞은편에 있는 아담까지 물이 벽을 이루었다(카무), 그리고 아래 사해 쪽으로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끊이고(니크라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을 건넜다(아브루). 즉 언약 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들어서자 북쪽의 물과 남쪽의 물이 완전히 끊인 상태에서 백성들은 육지와 같은 마른 땅(하라바) 바닷을 건넜다는 것이다. 마른 땅이란 용어는 홍해를 건널 때(출 14: 21)에도 나타나는 용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활동을 보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특히 17절에 온 백성(콜 고이)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혈연적 관계로 맺은 백성(암)이라기보다는 종교-정치적 실체로 등장했음을 말한다(왕상 18: 10; 사 60: 12; 시 135: 10). 요단강 도하하기 전에는 사막에서 유리하던 백성이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처럼 국토를 소유한 하나의 민족이 되었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온 이스라엘이란 어휘가 여러 번 반복되는(수 3: 1, 7, 17, 4: 14) 것이다.

따라서 요단강 도하 작전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민족

이 12지파로 구성되는 새 민족으로 탄생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본래 모세의 의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도하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생존터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두 지파 반도 요단강 도하를 결행함으로써 나머지 아홉 지파 반과 합하여 12 지파로 구성되어 온 이스라엘이 형성하게 된 것이다(수 1: 12-18, 13: 8-12, 22). 이는 다음 시대인 사사시대에도 12지파가 하나의 실체로 단결된 때는 없었다. 사사기 4-5장의 가나안 하솔 왕과의 싸움에서 드보라의 소집에 응한 지파는 5지파(납달리, 스블론, 에브라임, 벤야미과 잇사갈)뿐이었고, 르우벤, 갓, 단, 아셀 지파들은 응하지 않았다. 아마도 여호수아의 절대적 권위에서만 12지파의 결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단강 도하 작전은 출애굽 때의 홍해 도하 사건과 같이 여호와께서 물을 마르게 하사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여호와와 그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항상 그를 경외함에 기록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사건을 보존하고 지속하는 방법은 제의와 예배를 통해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다. 신앙의 전승이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후세에 전하는 일이다. 예수에 관한 전승이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역사적 사건에 기초하여 전승된 기억들을 예배와 제의를 통해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기억케 함으로써 신앙을 전승하는 것과 같이 여호수아기 3장의 내용도 요단강 도하의 역사적 사건을 공동 기억을 통해 전승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세세토록 후손들이 항상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함에 근본 목적이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굳게 섰던 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 유숙할 곳에 두라고 한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뽑힌 열두 사람은 돌 12개를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서 가져다 두었다. 후세에 자손들이 묻거든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여호와와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여호수아기 4:9에서는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여호수아가 12개의 돌을 세웠다고 하고, 20절에서는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다고 하여 두 곳에 기념비가 세워진 것으로 표현된다. 이에 대해 두 견해가 있다. 첫 번째 해석은 4장 9절과 20절의 본문대로 두 번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것이다. 9절은 제사장들이 섰던 바로 요단강 강바닥에 여호수아가 돌 12개를 세웠는데 이 기념비가 본문 저자 당시에까지 있었던 것으로 표현된다(9절 하반기절). 반면 20절은 강변에서 여리고 쪽으로 얼마 떨어진 길갈에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기념비로 돌 12개를 세웠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여호수아가 원래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세운 것으로 이는 여름 물이 얇은 때는 보이던 것이 나중에 길갈로 옮겨져 후대에는 길갈 기념비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이 해석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길갈로 추정되는 곳에도 아무 흔적도 없다. 이 돌기둥들은 제사를 위한 제단도 아니고 원인론적 돌무더기도 아니고 미래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교육하기 위한 영원한 기념비일 뿐이다. 여호수아기 4:16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그들이 섰던 요단강 물에서 육지로 올라왔다(15절 베야알루, 16절 알루)는 표현을 함으로써 요단 도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완료되었고 동시에 요단강 물은 홍수 때처럼 원상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연도 복종하는 바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따라 요단강 도하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이 단락의 기능은 여호수아의 높임과 제사장들의 육지에 올라 새로운 땅에 도착함으로써 광야 유리 시대가 끝나고 약속의 땅에 이르는 새 역사가 전개되었음을 시사한다. 기독교 전승은 요단강 도하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안식의 상징으로 이해된다.

여호수아기 4: 23-24에서는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직접 요단강 물을 마른 땅(아바사)으로 말렸다고 분명히 언급함으로써 요단강 도하는 모든 백성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인 동시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권장한다. 5: 1은 요단 도하의 마지막 이야기의 요약이다.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1: 2-5)이나 라합의 증언(2: 9-11) 등을 반복함으로써 약속의 땅 진입은 기존 사실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미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요단강 도하 사건은 군사적 대결도 없이 가나안 적을 사전에 공포와 전율에 쌓이게 하여 전쟁도 없이 그들이 자멸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여호수아기 9: 1-4, 10: 1-2, 11: 1-5에서도 이제 는 여호와와 의해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적들의 절망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이는 신명기 31: 3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모세)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가 네 앞에서 건너가리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의해 적들이 멸해진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사용할 과제만이 남았을 뿐임을 보여준다.

Abstract

In the first chapter, first of all, we will discuss the four features of Moses' leadership, which I could not have pointed out in my previous article "The Military leader and leadership in the Old Testament" in the Journal of Military Mission Theology, volume 13(2015)". The first feature of Moses' leadership is that he was a leader whom both God and the Israelites firmly trusted.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trusted Moses. In Exodus 3: 12 God said to Moses, "I will be with you... and it will be the sign to you that I have sent you." At the same time the Israelites believed Moses because of the divine miracles that Moses performed before the people(Ex. 4: 30). The second feature that shows Moses' leadership is that he gave up his salvation in order to save his people who had sinned. Moses cried out to God, saying "please forgive their sin, but if not, then blot me out of the book you have written."(Ex. 32: 32) The third element of Moses' leadership is that he easily abandoned his glory and privilege which he deserved through his 40 years of hard effort to liberate the Israelites from Egypt to bring them to the promised land. In addition, Moses succeeded his glorious position to Joshua without seizing it. The

last feature of Moses' leadership is that he taught Torah to the Israelites and kept it for them. He pointed out that the success or failure in a war depends on whether or not to obey Torah, God's commandments.

In the second chapter we will deal with the leadership of Joshua as a national military leader who have led the people of Israel from the eastern side of Jordan to the land of Canaan which God had promised to give to Abraham, Isaac, and Jacob. First of all, the five positions of Joshua's leadership will be reviewed as the following order: The spiritual leader as well as the national chief-military commander, a military leader leading the Israelites to the promised land, a military leader devoted to the divine law, and a military leader conducting the war of Yahweh and Herem war. The first position of Joshua's leadership is the only leader who had conducted the plan of entering into the land of Canaan with Caleb. The next position of his leadership is the military leader who led the people of Israel to the promised land which had been promised to their ancestors long time ago. It will be pointed out that the land of Canaan and the promised land are not same area and concept. The third position of his leadership is the military leader who devoted to the law of God. Joshua did not leave out the book of Law from his mouth, but meditated it on a day and night(Josh 1: 8). The fourth position of Joshua's leadership is the military leader who have conducted Here War(Josh 6: 18-21).

This leadership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War of Yahweh.

Next, Joshua's two strategies, spy tactics and the plan of crossing the Jordan river are described. First of all, Joshua sent two spies from Shitim to Jericho to look over the land. The two spies went and entered the house of Rahab, a prostitute, and dramatically she helped them. As a result, Joshua and his Israelite army succeeded to take over the city of Jericho. Joshua's another strategy was the crossing of the Jordan River with the miraculous help of God like the Red Sea Crossing. Surely Joshua was a national chief-military commander in body and spirit.

주제어(Key words):

모세(Moses), 여호수아(Joshua)

요단강 도하작전(the plan of crossing the Jordan river)

여호와와의 전쟁(the War of Yahweh)

영적 지도자(The spiritual leader)

동성애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 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군선교

A Study on the Korean Church's Attitude on the Problem of
Homosexuality and Military Evangelism

■ 강찬영 Kang, Chan Young

- 육군 제39사단 군종참모 총무교회 담임목사
-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지난 4월 28일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NCCK: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영화감독 김조광수를 초청해 강연을 개최했다.¹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마당’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강연은 반대여론으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강연계획이 알려지자, NCCK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²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연합기관에서 적절하

¹ “기독교 네티즌들, NCCK 김조광수 씨 초청 행사 놓고 동성애 옹호 비판”, 『국민일보』 2016. 4. 21.

² 성경은 분명 동성애를 죄로 명시하고 있다. 창세기 19: 1-13; 레위기 18: 22, 20: 13; 로

지 못한 인사를 불러 강연을 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우리들의 차이에 직면하다: 교회 그리고 게이, 레즈비언 교인들’³을 발간했고, 2014년에는 동성애 옹호활동을 하는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커밍아웃 동성애자)에게 인권상을 수여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NCCK는 이번 강연 포스터에서 대화마당의 취지를 “마주 앉아 대화를 하다보면 그동안 몰랐던 어떤 이의 삶이 다가온다”면서, “다름을 강조하면 소중한 존재를 잃을지도 모른다. 이제 대화를 시작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진우 NCCK 인권센터 소장은 “한국사회에서 동성애는 낯선 문제”라면서 “사회적 소수자인 동성애자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만큼 어떻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것인지 대화하기 위한 말 그대로 대화마당”이라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NCCK는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다. 동성애 옹호를 한 적도 없다”면서 “발간한 책도 세계교회가 동성애에 대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이해를 알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⁴

현재 한국교회는 동성애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면전을 벌이고

마서 1: 18-32; 고린도전서 6: 9-10; 디모데전서 1: 8-11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상황적 문화적으로 해석하여 동성애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현대교회 속에 만연하고 있다. 존 스토틀,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정옥배 역 (서울: IVP, 2011), 509-517.

³ 알렌 브뤼쉬, 『우리들의 차이에 직면하다: 교회 그리고 게이, 레즈비언 교인들』. 이 책은 NCCK 북시리즈 3호로 출판되었으며, 언론사에 보낸 보도 자료에서 1) 성소수자들의 진솔한 대화의 자리 마련(ex, 간증, 간담회) 2) 건강한 토론회 예정 3) 추가적으로 해외교회에서 발간한 책 번역 작업,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김조광수 초청 토론회도 이런 맥락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교회협 언론』 2015-166호 (2015. 12. 17.) “NCCK 북시리즈 3호 『우리들의 차이에 직면하다』 소개”

⁴ “동성애문제대책위, NCCK 향의 기자회견 연다”, 『국민일보』 2016. 4. 22.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복음적인 교회들은 이 문제가 한국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 이러한 위기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군선교의 현장도 마찬가지이다. 한때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제안했던 미군은 2011년 DADT 법안⁵이 폐지되면서, 동성애자의 군복무가 합법화되었고, 2015년 미국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 후,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 2014년 군종목사단에서는 동성애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⁶ 하지만 이는 군내 동성애 처벌법과 관련된 입장 표명이었지, 군대 안에 현존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 글에서 한국교회와 군선교의 현장이 직면하고 있는 동성애의 문제에 대처하는 한국교회와 사회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교회의 입장을 표출하는 방식과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방안과 군선교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1) 차별 금지법 저지와 한국교회

2012년 11월 6일,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 외 10명 내외의 의원이

⁵ Don't Ask, Don't Tell(DADT: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은 1993년 12월 21일부터 2011년 9월 20일까지 시행된 미국의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 제도이다. 미군 중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를 강제로 전역시키는 법이었다. 2011년 폐지된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도 차별 없이 군복무 할 수 있게 되었다.

⁶ 군선교연합회와 군종목사단은 2014년 당시 이슈가 되었던,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동성애와 반대된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일보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반대” 군선교연 군종목사 220여 명 주장, 「국민일보」 2014. 4. 4. 2014년 ‘제23회 군종목사단 영성수련회’에서는 군내 동성애 처벌을 규정한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지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동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에 이어, 2013년 2월 12일에는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을 대표로 50명의 의원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하였고, 그해 2월 20일에는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과 진보정의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차별금지법이란, 성별/장애/ 병력/ 나이/ 언어/ 전과/ 출신국/ 인종/ 피부색/ 출신지/ 신체조건/ 혼인여부/ 종교/ 사상/ 학력/ 성적지향 등 수십여 가지 항목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시키고, 가해자에게 벌금형도 내릴 수 있는 법안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8년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발의된 법안들은 기존의 차별금지법에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하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1999년에 제정됐던 남녀 차별금지법이 남성이어서, 혹은 여성이어서 생기는 사회활동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표면상으로나마 줄어들게 했고, 무엇보다 성희롱으로부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성희롱과 같은 언어적 차별과 폭력 또한 분명히 잘못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누군가의 정치적 성향, 과거, 취향 등이 잘못된 것이라는 편견이 조금이나마, 표면상으로나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발의한 사람들의 주장이었다. 이는 이미 2007년과 2010년에, 두 차례 제정하려 했던 것들인데,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몇 년째 우리나라에 70개 항목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기 때문이고, 특히, 가장 민감한 ‘성적 지향’ 항목에 대해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강한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⁷

그러나 이름과 내용이 비슷한 이 법안들에 대해 기독교계를 중

⁷ 반기문 “한국, 동성애 금지시…걱정된다,” 『한겨레』 2013. 4. 30.

심으로 형성된 반대 여론은 강력했다. 과거에도 이런 반대로 인해, 일부 항목이 삭제된 채로 논의되거나 아예 제정되지 못했었고,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와 항의에 부딪혀 1개월 만에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종결되었다. 누군가를 차별하지 말라는 법안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의아하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기독교 단체들이 주축이 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대는 분명한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밖에 없었다.⁸ 물론 이는 법안 전체에 대한 반대하기보다는, 몇몇 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었다.

2) 배타성 표출방식의 중요성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이 한국 사회와 교회에 남긴 것은 무엇이었는가? 한국교회의 바람대로 법안 통과는 무산되었지만, 이 과정 가운데 한국교회가 잃은 것도 있다. 사실 교회에 대한 한국사회의 가장 큰 불만은 아무래도 배타성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 배타성과 관련된 오해가 더욱더 고착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보여준 태도를 일종의 호모포비아(Homophobia)⁹로 이해하는 것 같다. 물론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극단

⁸ 반대의 이유는 다음의 조항들 때문이다. 1.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해 차별금지 : 법안이 제정된다면 김일성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회사무처와 주요공직에서 자유롭게 적화활동을 펼쳐갈 것이다. 2. 성적지향(동성애), 성정체성(트랜스젠더)에 대해 차별금지 :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를 함께 가르치게 될 것이다.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며 후천적 환경 요인을 통해 학습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3. 전과자에 대해 차별금지 : 성폭행 전과자의 교사 임용, 보안법 위반자의 공직 기용 등의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2013년 4월 9일 / 전국 243개 시민단체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대).

⁹ 동성애 혐오증(Homophobia): 동성애자에게 가지는 나쁜 선입견. 사실 지금 한국교회의 입장을 정확히 혐오증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는 외부로 비춰지는 모습이 거의 혐오증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반기독교적 여론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표현방식의 미숙함 또한 일조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탈동성

적인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이런 오해와 반대를 무릅쓸 가치가 있다. 하지만 미국을 제치고 동성애 수용도 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¹⁰ 이 모든 과정들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교회를 더욱더 패쇄적이며 편협한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물론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한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보다 세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네덜란드 교회에서는 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소년들을 거세¹¹하는 일도 있었지만, 지금의 시대는 효율성을 따진다면, 일종의 태도적 관용을 보여주어야 하는 시대인지도 모른다. 타협할 수 없는 확고한 진리에 근거한 내용적인 배타성과 함께 태도적으로는 관용할 수 있는 전략적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사용한다. 하지만 동성애를 대하는 한국교회의 자세는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동성애는 죄며 미워해야겠지만,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들 또한 하

애자인 이요나 목사는 한국교회가 동성애 반대 과정에서 취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동성애자들의 회복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면서, 이슬화하는 것만 관심 있는” 단체들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동성애 탈출 과정을 책으로 엮어 내기도 했다. 이요나, 『리얼마마 동성애 탈출』 (서울: 키네마인, 2015).

¹⁰ 한국에서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증가율이다. 2007년 18%에서 2013년 39%로 증가했다.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가 조사한 39개국 중 최고의 증가율이다. 그 다음은 미국으로 11%다. 2007년 49%에서 2013년 60%의 사람들이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별 동성애 수용도 변화 / 퓨 리서치 센터(2013년 6월 6일)>

¹¹ 1950년대 네덜란드의 로마정교회에서 10대 소년과 21세 이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동성애를 방지할 목적으로 10여 명을 거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교회의 성적학대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던 관리가 찾아낸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다. 1956년대에 발간된 로마정교회 신문에 따르면 헨크 헤이루이스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세를 당한 사실이 보도됐다. 이 같은 사례는 추가로 9건의 사례가 더 밝혀졌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네덜란드, 교회 동성애 막기 위해 10여 명 소년들 ‘거세,’” 『아시아 경제』 2012. 3. 20.

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¹² 하지만 동성애 혐오증으로 비춰지는 한국교회의 반응은 그런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할 만큼 강력한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리와 창녀를 비롯한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¹³ 차별금지법을 입안한 사람들의 부주의함이 안타깝지만, 거기에 반응한 교회의 대처방법도 신중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교회는 동성애와 관련된 신중한 입장과 대처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적절한 대안을 내어 놓아야 할 시대적 부름 앞에 서 있다.

3. 원숭이 재판과 미끄러운 경사 길을 넘어서

1) 스콧스 재판(Scopes Trial)의 교훈

동성애 문제에 대처하는 한국교회의 자세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 원숭이 재판(Monkey Trial)으로 널리 알려진 스콧스 재판(Scopes Trial)이 그것이다. 1925년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기독교 근본주의의 영향으로 공립학교 내 진화론 교육을 금지하는 버틀러법(Butler Act)이 통과된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사인 존 스콧스(John Scopes)는 생물 수업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쳐 법을 위

¹² 동성애와 관련하여 매우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존 스토틀도 “성경을 믿은 우리는 동성애라는 현상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무도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비인간화할 자유가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존 스토틀, *op. cit.*, 503-504.

¹³ 물론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를 용납하셨을 때, 그들의 성적인 행위나 경제적인 부도덕함에 대해 면죄부를 주신 것은 아니다. 그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창조적인 자녀로 살 수 있는 잠재력이 그들에게 있다고 인정하셨던 것이다.” 리차드 마우, 『무례한 기독교』, 홍병룡 역 (서울: IVP, 2004), 28.

반한다. 변호인은 클레이언스 대로우(Clarence Darrow, 1857-1938), 기소인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William J Bryan, 1860-1925)이었다. 재판에 걸린 기간은 5일이었지만, 1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일 정도로 유명한 재판이다. 재판결과 유죄로, 스콧스는 1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스콧스 재판은 비록 학교 측 승리로 끝났지만 자유인권 연맹의 대로우 변호사를 비롯한 진화론자들은 이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다. 학교 측 변호사인 브라이언의 답변 가운데 비성경적 입장(상대 변호사의 여러 질문에 대하여 성경의 6일 창조를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등 비성경적이고 진화론적인 답변들이 많았음)의 모순을 지적하였고, 모든 미디어는 이를 확대 보도하였다. 그 후 1960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바람의 상속자(Inherit the wind)’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크리스천들은 비과학적인 것을 믿는 광신자들로 묘사되고, 진화론은 마치 과학인 것으로 그려졌다. 일명 원숭이 재판(Monkey Trial)으로 알려진 스콧스의 재판은 복음적이던 미국이 진화론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된다.

이처럼 스콧스 재판 이후 미국사회는 진화론이 점차 주도권을 차지하게 된다. 사실 재판에서 이긴 쪽은 창조론 진영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패한 것이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일련의 논의들도 어찌면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법안 통과는 저지되었지만 이를 통해 배타성과 관련된 사람들의 오해와 비판은 더욱더 가중되었으며, 오히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루고 있는 조항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조항과 관련 있는 단체들에게 일종의 홍보와 지지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또한 이러한 상황들이,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과 함께 진행된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사실 동성애 문제는 앞으로 미래에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사역의 한 부분이다.¹⁴ 아니 동성애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관련된 일련의 목회적 노력을 기울이 책임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당장 목회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낯선 것일 수 있지만, 서구 교회에서는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 가고 있다.¹⁵ 물론 서구가 그러하니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실 이런 상황은 생명윤리 분야에서 흔히 말하는 slippery slope¹⁶의 개념을 떠올리게 만든다.

실제로 미국 성공회의 분열과 끝없는 법정 분쟁을 보면서,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된다. 세계성공회는 지난 2003년 미국 성공회가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진 로빈슨(Gene Robinson) 사제를 주교로 서품한 데 이어 캐나다 성공회가 동성애자의 혼례를 승인한 이래 치열한 교리논쟁을 벌여왔다. 특히 신도가 급증하면서 발언권

¹⁴ 지금까지 교회는 결혼가정 중심의 공동체였지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독신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랜츠는 책의 3부 “인간의 성의 표현으로서의 독신”에서, 교회는 이전에 소외받았던 사람들을 감싸 안아야 하는데, 특히 사별한 사람과 이혼한 사람, 독신자를 배려해야 하며, 기혼자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의무가 교회에 있다고 말한다. 스탠리 그랜츠, 『성윤리학』, 남정우 역 (서울: 살림, 2003).

¹⁵ 잭 로저스, 『예수 성경 동성애』, 조정희 역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15). 조직신학 교수와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저자는, 미국의 PCUSA 교단의 20년간에 걸친 동성애 관련 논쟁과 동성결혼 승인의 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¹⁶ 이는 생명윤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념으로,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에 서 있는 것과 같이, 한번 시작되면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굴러 내려오고, 결국에는 추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동성애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준비 없이, 수용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다.

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 성공회는 세계성공회의 본산인 영국성공회가 동성애자 포용 움직임에 지지한다면 교단을 영구히 탈퇴할 것이라고 위협해 왔다. 영국 성공회는 이에 미국과 캐나다 성공회에 대해 교단과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동성애자를 포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과 캐나다 성공회는 일반적으로 행동한 점에 대해 사과했으나, 동성애자의 사제 서품과 동성 부부의 결혼 허용 결정을 철회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의 동성애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진보진영은 교회가 그들을 먼저 품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품고 나가야 하겠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공회는 동성애와 관련된 갈등으로 인해 교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¹⁷

동성애와 관련하여, 적합성 있는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한국교회는, 동성애와 관련된 깊이 있는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성애 그룹이 주장하는 이론적 토대의 특징은 물론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모순의 문제까지 비판

¹⁷ 다음은 미국 성공회의 건물을 빌려서 모이는 성공회 이민 교회의 목회자의 글이다. 동성애와 관련된 고민이 지역교회마저 뒤흔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늘 예배는 플라세티아에 있는 미국(북미)성공회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성공회 앞에 괄호를 치면서까지 동일해 보이는 명칭을 넣은 이유는, 그냥 ‘미국성공회’ 하면 The Episcopal Church이고, ‘북미성공회’는 The Anglican Church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성공회가 인정하는 두 개의 성공회가 미국에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가 속한 성공회 북미관구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미국성공회와 신학적 입장과 신앙적 고백이 다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교회는 이름이 두 개입니다. Bless Sacrament Episcopal Church와 Resurrection Anglican Church가 함께 있습니다. 동성애 수용의 신앙적 노선을 함께 할 수 없는 지체들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 그 준비를 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정도엔 Anglican인 Resurrection이 독립을 한다고 합니다.” <<http://cafe.naver.com/jjschurch>>

할 수 있는 성실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구교회의 상황을 타산지석 삼아, 동성애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몇 단계를 미리 내다보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교회 안에 동성애의 문제는 이미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4. 로템나무 그늘에 앉은 사람들

사실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한국의 경우 동성애가 비교적 금기시 되어 있고, 수면 아래 머무는 경우가 많았지만, 동성애자들과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와 개인의 부단한 노력으로 과거와는 매우 다른 위치에 있는 형편이다.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 등이 제작되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이제 동성애는 일종의 유행이나 감초처럼 드라마나 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문화적인 코드가 되어 버렸다. 커밍아웃 이후로 연예계를 떠났던 사람도 다시 복귀하여 예전 못지않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워졌다. 사실 교회 안에도 자신의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은 동성애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기독교 동성애자들의 모임이 없으리라 보장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조직은 그 특성상 비밀스럽게 점조직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파악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의 동성애 그룹 중에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

는 단체가 “로템나무그늘(이하 로템)”이다.¹⁸ 로템의 시작은 1996년 11월 동성에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두고 고민하던 ‘피텔리티’와 신학을 전공한 ‘보릿자루’라는 닉네임을 쓰는 동성애자들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종로의 한 커피숍에서 비정기적으로 모여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었는데, 이것이 동성애가 커뮤니티인 ‘친구사이’와 ‘153 전화사서함’ 등에 알려지면서, 삼성동 부근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1997년 12월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에 지도 목사인 J목사의 인도 아래 모이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조직과 순서는 기존교회와 유사하며, 헌금과 회비로 운영되었다.¹⁹ 2016년 현재 이 모임을 ‘로템나무그늘교회’라는 이름으로 매주 주일 예배와 성경공부 등을 진행하는 교회의 형태로 발전하였다.²⁰ 이미 20년 전에 동성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의 가치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로템의 구성원들의 커밍아웃의 경험과 관련된 진술들을 통해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혹은 목회자나 교회 공동체에게 자신들의 성정체성을 밝힌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다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지는 못했다. 물론 그런 결과가 당

¹⁸ 천주교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안개마을’이란 단체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통해 미사를 드리고 현재 회원은 카페 정식등록 회원 140명, 오프라인 모임 회원은 10-20명 사이로, 매주 모임을 갖는 ‘로템’에 비해 그 활동이 미약한 편이며, 불교의 경우에는 ‘불반’이라는 모임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근진, “한국 개신교 신앙공동체에서 동성애 정체성 연구: 로템나무 그늘을 중심으로,” 성공회 NGO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9.

¹⁹ *Ibid.*, 10-11.

²⁰ 로템나무그늘교회 홈페이지 <www.rodemchurch.com>

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템이라는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커밍아웃이란 간단히 말해 ‘밖으로 나온다’는 말이다. 이는 성적 소수자가 자기 정체성을 긍정하는 다양한 단계와 종류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둘러싼 지속적인 동요와 갈등의 과정을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커밍아웃은 단회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 자기(self)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실존적 차원으로 자신을 솔직하게 제대로 인식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차원인데, 이는 다른 동성애자들의 삶속으로,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행위와 관련 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차원인데, 이는 저항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자신의 모습을 널리 알려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려는 모습이다. 이성애적 제도 안에서 보장된 일련의 것들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단계이다.²¹ 사실 한국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고, 혹은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동성애자들의 경우 첫 번째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원에까지 나아가고 있다.²²

사실 충격적이지만 이미 20여 년 전에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동

²¹ 박근진, *op. cit.*, 63-64.

²² 지난 6월의 제17회 퀴어문화축제에서는 친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차세기연(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교인 연대), 열린문공동체교회(OpenDoorMCC), 섬돌향린교회, 로템나무그늘교회 등이 부스를 만들어 참가했고, 특히 ‘무지개 예수’ 부스에서는 성찬식이 진행되었다. “성소수자 위해 기독교 성찬식 연 목회자들,” 『한겨레』 2016. 6. 12. 과거 첫 번째 차원에서 머물던 한국교회 안의 동성애자들은 이제 정치적 차원의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성애 기독교인 그룹이 존재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보수적인 한국 교회 안에서 동성애의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교회의 외부에서 동성애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시점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동성애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의 상황은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윤리적인 면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론적 측면에서 교회의 대응과 관련된 시사점을 살피고자 한다.

5. 로마 가톨릭의 공식 문헌과 동성애

사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로마 가톨릭은 보수적인 입장을 지닌다. 특히 낙태와 안락사와 같은 의료윤리의 분야에서 더더욱 그렇고,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한 가톨릭의 공식문서들은 동성애와 관련된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을 위한 노력 또한 보여준다. 물론 가톨릭의 결과물이 만족스러운 결론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고민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 있다.

가톨릭에서는 이 문제를 매우 포괄적으로 접근한다. 특히 동성애 문제가 합법화되는 수준으로 진행될 경우, 성과 혼인 그리고 가정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사회 안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측면

에서 접근하려 한다.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성애는 성과 사랑의 분리이다. 둘째, 동성애는 성의 근본적인 목적에서 이탈했다는 것이다. 즉 생명의 탄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셋째, 동성애는 일종의 쾌락지향주의일 뿐이다. 하지만 동성애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로마 가톨릭은 적시성 있는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해 왔다.²³

1) 성윤리상 특정문제에 관한 선언²⁴

1975년 12월 29일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발표한 이 선언은 세계의 성도덕의 문란함을 비판한다. 대중매체와 대중오락을 통하여 성도덕이 타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개인 및 사회의 중대한 사안으로 교회가 침묵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 선언은 심각한 잘못과 널리 퍼진 이탈 행위에 대해 반박할 필요에 의하여, 몇 가지 특정 문제에 관한 교회의 교리를 재천명하려는 목적에서 발표되었는데,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 8장에서 제시되고 있다. 오늘날 동성애 문제에서의 특징적인 현상은 동성애 성향이 체질화되어 고칠 수 없는 경우, 그 성향에 따르는 삶의 방식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성향이 비록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일지라도 그에 따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객관적 도덕 질서에 따르면 동성애적 관계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목적(자녀출산, 부부간의 사랑)을 결여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동성애 행위는 자녀의 번식이라는 중대한 자연법적인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남녀의 결합에서 오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없는 만

²³ 다음의 내용은 김병주, “동성애에 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58-65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²⁴ 교황청 신앙교리성, “성윤리상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 1975. 12. 29.

큼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언은 현대의 도덕적 해이(解弛)로 인한 향락주의적이고 무절제한 성적 행위에 대해 반대하며 동성애 행위의 비윤리성을 지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언은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곤란과 사회 부적응에 대하여 현명하게 도와주도록 사목적 요청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은 부족하다.

2) 동성애자 사목에 관하여 가톨릭주교회의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²⁵

선언의 발표 이후 동성애적 상황 자체를 선이라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해석들이 대두되면서,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는 1986년 10월 서한을 통해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서한은 동성애 문제를 혼인이라는 맥락 안에서 접근하려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다 발전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1) 서한은 창조의 맥락에서 인간의 성이 지니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성은 보완성 안에서 인간 창조주의 내적 일치를 반영하도록 부름 받고 있다. 인간은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상호증여에 의한 생명의 전달로써 창조주와 협력하여 그 내적 일치를 놀라운 방법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성행위는 자녀출산에만 한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통해 생명 창조라는 풍요로운 의미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여자 남자의 관계 안에서 비로소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²⁵ 교황청 신앙교리성, “동성애자 사목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1986. 10. 1.

한편 동성애 행위에 대한 단죄에만 국한된 선언에 비해 서한은 동성애 성향과 동성애 행위를 구분하고 있다. “동성애자의 특수한 성향이 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적인 윤리악으로 기울어지는 다소 강력한 경향이다. 따라서 그 성향 자체는 객관적인 무질서로 인식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동성애 성향을 ‘객관적 무질서’라고 표현함으로써 많은 동성애자나 그들을 옹호하는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서한은 분명히 이것이 단죄하거나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서 이성애와 동등한 입장이나 가치를 둘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내적인 윤리악으로 기울어지는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 그의 인격 전체를 뜻하지 않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는 동성애자의 인간성 전체와 개인의 인격을 무질서한 것으로 보지는 않음을 밝힌다.

(2) 서한은 선언에 비해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목적 요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사목적 배려가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오늘날 동성애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 요청되고 있지만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난 배려인,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거나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목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권리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면서도 그들이 사회 안에서 차별과 무시를 받지 않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들을 위한 노력은 교회 안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하고 다양한 영적 상담이나, 기도, 성사생활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학문, 의학이나 심리학의 도움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도

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서한에서는 사목적 배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자인 주교들이 자신의 능력과 재량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사목을 지속해갈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러한 사목적인 노력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²⁶

3) 동성애자 결합의 합법화 제안에 관한 고찰²⁷

현재 세계적으로 동성 결합을 이미 합법화했거나, 추진함으로써 동성애 결합을 혼인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나라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혼인의 존엄과 혼인 제도를 구성요소로 하는 사회의 안정을 보호하고 증진할 목적으로 2003년 6월 ‘동성애자 결합의 합법화 제한에 관한 고찰’을 발표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했다. 고찰에서는 우선 혼인과 성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을 재확인한다. 혼인은 단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닌 창조주께서 재정하신 고유한, 본질적, 목적을 지닌 것이다. 고찰은 이러한 관점에서 동성애자 결합을 인정하거나 묵인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할 것을 지적하며 동성애자 결합의 합법화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올바른 이성의 질서에 따라 인간이 만든 모든 법은 자연법과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생물학적 인간학적 질서에서 보더라도 동성애자 결합은 인류의 번식과 생존에 이바지할 수 없을 뿐더러 인공적인 방법

²⁶ 동성애 합법화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교, 사제는 물론 평신도들의 역할 또한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정치인들과 대중매체에 관련하여 종사하는 이들은 신앙 안에서 자신의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 선택을 취함으로써 동성 결합 합법화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상준, “동성 결합 합법화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과 태도: 한국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대전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07.

²⁷ 교황청 신앙교리성, “동성애자 결합의 합법화 제안에 관한 고찰” 2003. 6. 3.

을 통한 생식과 출산은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성부부 입양의 경우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혼인에 바탕을 둔 가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찰은 가톨릭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오늘날 확산되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²⁸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톨릭은 동성애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와 입장 정리를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좀 더 신중하고 통합적인 사고가 엿보이면서도, 분명하게 중심을 잡고 있다.²⁹ 이런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천적인 접근 또한 보다 명확할 수 있는 것 같다.³⁰ 로마 가톨릭의 일련의 대응을 바라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원칙에 대한 양보는 없지만 현실적 상황에 대한 고려와 고민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언론의 비판을 피해갈 수

²⁸ 가톨릭 정치인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또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동성결합 합법화에 대한 법안에 반대하고 자신의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교구장 주교는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이러한 의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동성애자 결합의 합법화 제한에 관한 고찰, 10항)

²⁹ 교황 문헌,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2016. 3. 19: “교황 동성결혼 인정 안 해…가톨릭 원칙 변화 없었다.” 『서울신문』, 2016. 4. 9. 프란치스코 교황은 8일(현지 시간) 사랑과 성, 결혼에 대한 교황의 권고를 담은 ‘아모리스 래티티아’(사랑의 기쁨)를 발표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에게 교회의 문을 개방하자는 진보주의자들의 바람과 달리 가톨릭교회의 원칙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

³⁰ 김병주는 동성애 관련 가톨릭의 다양한 문서들을 분석한 후에 다음과 같은 교회의 배려를 제시한다. 1) 교회 공동체의 참회와 태도전환 2) 담당 (전문) 사목자의 양성 3) 동성애 치유 프로그램 개발 4) 다양한 지원 그룹의 조직 (청소년, 동성애자 부모 등) 5) (정치적) 동성애 운동에 대한 교회의 대응 방안 6) 동성애자 사목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 등의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가톨릭의 공식입장이 라는 공식적인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제시하고 있다. 김병주, 66-84.

있다는 점은 부럽기도 하고,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동성애와 관련하여 공식적이면서, 권위를 가진 신학적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비판 또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동안 기독교계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교회 내부를 위한 것들이지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6. 한국교회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위한 준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효과적 대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만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동성애와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지구촌이라는 말도 무색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동성애 문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없는 일이다. 서구 사회 그리고 교회가 문화비판적 차원³¹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인 덕분에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과 혼란을 맞았다면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반대가 정말 그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위한 표현의 하나라면, 현실에 대한 이해와 여기에 근거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군선교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징병제 상황에서 한국사회와 교회의 상황은, 고스란히 부대와 군인교회의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³¹ 이성애적 성향과 행위가 인간의 성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하에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1916년 게이들을 위한 최초의 동성애 교회가 호주 시드니에 생겨났고, 미국에서는 1946년 애틀란타에서 세워졌다. 그리스도연합교회는 1972년 최초로 게이 남성 성직자로 임명했으며, 1977년에는 영국 성공회가 엘렌 바레트라는 레즈비언 여성을 성직자로 임명한다. 이종원,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바람직한 태도,” 『한국기독교신학논총』(64), 293-294.

첫째, 동성애와 관련된 분명한 입장 정리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를 가르치고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동성연애 등의 동성애와 관련된 용어들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동성애의 경우에도 동성에 끌리는 동성애와 동성연애는 분명 구별되어야 하는 단어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심지어 반대 운동의 일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서로 교차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구별 없이 막연하게 동성애를 반대하게 되면, 결국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교회에 대한 오해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 신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교회에서도 동성애와 관련된 설교와 교육 등을 통해, 이론과 현실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분명한 원칙을 주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할 필요가 있다.

군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청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심어줄 책임이 군선교 사역자들에게 있다. 특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동성애에 대해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우호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과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만, 군선교의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 동성애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사랑과 연민의 표현이 요구된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저지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되새겨 보자. 교회는 법안을 막는 데는 성공했

으나, 많은 안티기독교를 얻었다. 교회의 승리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결국 다시금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안티는 지속적인 것이 될지도 모른다.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동성애 문제만 등장하면, 한국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호모포비아라는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당신들을 미워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픔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당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희생할 각오도 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정말로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우리는 조금도 그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마음이 없으면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는 많은 것을 너무나 쉽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단순한 사랑과 연민의 자세를 넘어, 우리가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 면제를 받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징병제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든 숨기든 그들에게 군생활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군선교 사역자들과 군인교회는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그들을 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는 동성애의 죄악성을 미워하는 것이지, 그 가운데 힘들어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님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군선

교의 현장에서 만나는 동성애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셋째, 중간단계인 선교단체(기관)를 만들고, 전문적인 사역자를 세울 필요성이 있다.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커밍아웃과 동시에 교회에 들어와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적이며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해 버린다면, 결국에는 동성연애의 위험을 무릎 쓰고 일반 동성애자들의 모임 속으로 들어가거나, 극단적인 입장으로 정치세력화 할지도 모른다. 과거 '로템나무그늘'과 같은 공동체는 일종의 중간단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도권 교회의 관심 밖에 머물다 보니, 결국 기성교회화되어 버리고, 퀴어문화제 참여 등을 통해 정치세력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단계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품안에 안식을 누리며,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극단적인 이탈을 억제하고, 탈동성애³²와 같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바꿔서 기존의 교회로 들어올 때까지이거나, 동성애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특별한 공동체로 적을 옮겨가기까지의 과도기적 형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역자의 양성도 필요할 것이다. 교회의 주변인으로 전락하기 쉬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32 제1차 탈동성애 리더스포럼(2016 Ex-Gay Forum Seoul, 2016. 6. 13)이 '엑스게이 목시록: 동성애에 대한 복음적 대응'을 주제로 서울 태평로 뉴국제호텔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탈동성애 사역단체였던 미국 엑소더스 전 이사장 멜빈 박사(Dr. Melvin)가 '거대한 타락 vs 하나님께 돌아가는 미국'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동성애 고치고 나서 교회 오라"고 해선 안 돼," 「크리스천투데이」 2016. 6. 13.

놀라운 책임을 감당할 분명한 지식과 사명감을 가진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³³ 그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넘어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중간단계인 대안 공동체와 대안 문화를 만들어 갈 전문 사역자가 양성을 위해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군선교 사역자들과 유관 기관에서는 부대 안의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장병들을 돕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남성 중심의 군대라는 집단 속에서, 많은 문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들을 돕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신학적인 부분뿐 아니라 목회적인 분야에서의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과거 동성애자들에 대한 치료는 거세술, 자궁절제술, 뇌전두엽 절제술, 전기쇼크법 등의 비인간적인 방식이었다. 이는 우리의 시대에 적절한 접근일 수 없고, 실효성도 의심된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치료는 보다 인격적이며 사려 깊은 것이 되어야 한다.³⁴ 그리고 이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학

³³ 로템나무그늘을 이끌어온 목회자 J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엎매이지 말라는 거지, 그걸 인정하라는 거지 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야. 나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전진하고 ○○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쪽으로 나가다보면 이 동성애 문제가 자기 삶 가운데 지금은 전체인데, 점점 축소돼, 축소되면서 문제해결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너무 커져 가지고 안 보여, 이게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고, 이것 때문에 생활도 못하고 이거야 이거... 이걸 축소시키라는 거지.” 그의 이런 말속에는 그가 얼마나 그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인지가 배어난다. 이러한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³⁴ 잭 볼스워, 주디스 볼스워, 홍병룡 역 『진정한 성』(서울: IVP, 2002), 113-117. 저자는 미국 교회 안의 동성애자에 대한 대안적 태도와 관련하여, 현신적 관계일 경우 동성애를 수용하는 그룹, 동성애자를 변화시킬 대상으로 보는 그룹, 동성애적 지향을 본인의 선택으로 보는 그룹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이성애자

적, 심리학적, 영적인 모든 치료 방식을 동원하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는 근본적인 치료일수도 있고, 소극적인 면에서는 동성애가 동성연애로 나아가지 않도록 돕는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³⁵ 어쨌든 치료와 변화의 문제를 그들의 개인적인 책임의 영역에만 두지 말고,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나귀에서 내리는 불편을 감수하고, 비용을 감당할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낙태와 같은 다른 윤리문제와 마찬가지로,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할의 중요하다.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무책임함이 아니라, 함께 그 고통을 감당하겠다는 공동체의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동성애자들의 치료를 위해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병원이나 클리닉을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일은 노력과 재정에 비해 선교적인 효과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노력을 소홀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동성애의 죄악 됨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경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의 안에서, 동성애

로의 치료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개개인에게 초점을 둔 소그룹 중심의 심리치료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 있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중시하는 '구속적 사역'(redemptive ministry)이다.

³⁵ 이성애로 발전하는 것이 어려운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독신의 소명을 받은 자임을 인식시키고 독신으로 살도록 강력히 권해야 한다. 오늘날 이성애자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독신으로 사는 자들이 있고, 기혼자들도 경건한 삶을 위해 성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독신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는 많은 독신 이성애자 그리스도인도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독신인 이상은 금욕을 지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 David Atkinson, *Pastoral Ethics* (Oxford: Albatross Books Pty Ltd, 1994), 53.

자들을 사랑할 의무도 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그들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환영하지만, 긍정하지 않는 공동체³⁶가 되어야 한다.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것이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같이 입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입하는 칼에 제거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에스겔 33: 5-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태복음 10: 16).

Abstract

Homosexuality is a big issue in the Korean Church and Korean society. In the Korean Church, especially, the attitude on Homosexuality is critical, nearly homophobic. They insist that it is a sin against God, object to the Korean Queer Culture Festival

³⁶ 스탠리 J. 그랜츠,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김대중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이 책은 동성애가 하나님께 주신 성의 본질과 목적에 역행하는 “오래된 죄악 행위”에 속한다고 분명히 말하면서도(not Affirming), 동성애자들에 대한 목회적 따스함(Welcoming)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in Seoul, and support anti-Gay movements. So, they oppose the establishment of a law on discrimination. This is a natural reaction because the law would create issues in the Korean Church's view on homosexuality, sexuality, and family values. It would also affect military evangelism and Korean society.

The church's critical attitude on homosexuality is attacked by Korean society. The Korean Church is largely conservative, so their reaction was easily misunderstood. The church must learn to speak biblical truth with love. We must learn to be "wise as serpents and innocent as doves". We have to prepare a suitable attitude on homosexuality that is welcoming, but not affirming. Then, we will be relevant in the Korean Church and in military evangelism.

주제어(Key words):

차별금지법(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동성애(homosexuality)

탈동성애(ex-gay movement)

군선교(Military Evangelism)

남·북통합 과정에서의 군선교

The Ministry of the Military in the Process of North
and South Korea Unification

■ 오상익 Oh, Sang Ik

- 장로회신학대학교 졸업(Th. B., M. Div.)
- 서강대학교 대학원 북한정책통일학과
- 공군 제주관제대대 강병대학교회 담임목사



1. 서론

1990년대 들어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수령’ 김일성의 사망, 북미관계 악화와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였다.¹ 체제 및 정치의 위기에 맞물려서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보내면서 큰 경제적 위기를 겪었다. 지금 현재도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북한 사회 내부의 갈등요소로 잠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¹ 정영철, “북한의 사회통제와 조직생활,” 『북한학총서 5: 북한의 사회』(서울: 경인, 2006), 124.

이러한 갈등 요소들을 억누르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잠재되어 있던 갈등의 요소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이 지금 북한 사회의 현실이다. 오랜 시간 지속 되어온 경제적 위기 속에서 잠재된 사회적 어려움을 껴안은 채 남북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통합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합의나 외교적인 역학 구조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 그 자체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통합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교회는 동독주민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통합 과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 많은 사람이 자유와 번영을 위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지만, 오히려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가 동독주민들의 고난과 가시밭길을 택한 목회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동독주민들의 문제 상황 속에 뛰어들어 함께 살았다. 독일의 현 총리인 메르켈 총리의 부친도 서독 출신으로 동독교회에서 사역한 목회자였다.² 서독교회는 동독 지원과 교류의 선봉장이었다. ‘프라이카우프’³로 동독의 정치범을 돈으로 사서 서독으로 데려오는 데 교회가 앞장섰다. 서독교회의 지원을 받은 동독교회는 해

² 김재중, “독일통일, 교회를 통하다. 300만명 대탈출 시대…서독 목사들은 동독으로 고난의 길,” 『국민일보』 2014. 3. 24.

³ Freikauf는 ‘자유를 산다’는 의미다. 통일 전 서독은 동독의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데려올 목적으로 현금과 현물을 동독 측에 제공했다. 당시 동독과 서독은 당국이 직접 나서지 않은 채 교회, 변호사 등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진행시켰고 언론도 협조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졌다. 1963년 첫 사업을 시작한 이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까지 이어졌는데, 서독은 3만 3,755명을 송환한 대가로 34억 6,400만 마르크에 해당하는 현물을 동독에 지불했다.

방구로서 동독 민주화를 이끌었다. 대표적인 교회가 1989년 동독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St. Nikolaikirche)였다. 매주 수십만 명이 교회 안팎으로 모여 민주화를 위해 촛불 기도시위를 벌였다. 이것이 동독 공산정권을 무너뜨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통일 후에도 독일교회는 동서독 사회통합에 앞장섰다. 한국 교계에도 최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대북인권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선교 활동을 하고 남북한 통합 상황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힘이 모아지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한 통합 단계에서 군교회와 군종장교는 민간교회와 사역자가 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통일은 크게 점진적 방법과 급진적 방법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⁴ 북한의 고립으로 인한 붕괴 혹은 외부적 개입으로 인한 급변사태로 통일이 될지(급진적 방법), 남북한이 정치적 화해와 경제협력의 길을 선택하고 양 체제 사이의 생활수준의 현실적 우열관계를 점차 평등관계로 전환⁵하는 통일(점진적 방법)이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통일이 되면 북한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초기 단계에서 안정화 임무를 대한민국 군대가 수행할 수밖에 없다. 남한 군대가 오랜 시간 다양한 곳에서 펼쳐온 평화유지군(Peace Keeping Operation, PKO) 활동에서 쌓은 명성과 재건사업의 노하우를 국가의 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남북통합 초기 과정에서 군대가 북한

⁴ 유영식,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 동향과 함의,” 『북한, 열한 편의 에세이로 말하다』 (서울: 창과현 2015), 102.

⁵ *Ibid.*, 102.

지역에서의 통합 임무를 진행할 때 군교회와 군종장교가 함께 사역에 동참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별히 PKO가 임무를 수행할 때 함께 했던 군종장교의 군선교 사역을 통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얻었던 경험이 험난한 과정이 당연시되는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 문제의 양상을 분석하고, 먼저 통일을 경험했던 독일의 통합 과정 가운데서 독교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초기 남북통합 과정에서의 군선교 과제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2. 남북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 양상 분석

분단된 두 나라가 통일에 합의하더라도 순조로운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이 많다. 예멘의 경우 통일 합의 후에도 내전을 겪어야 했고, 베트남도 통일 후 남부 베트남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⁶ 독일도 동서독 통일 후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고 20년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씨름해야 했다. 그러나 통일된 독일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연착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동서독은 통일 전에도 제한적인 교류가 가능하였고, 동독사람들이 서독의 TV를 시청하면서 문화적인 공감대도 형성하였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독과 서독 모두 기독교 국가였다는 점이다. 독일교회는 분단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고, 서독교회가 동독교회의

⁶ 엄돈재,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1), 356.

목회자 사례비를 감당하며 동독의 공산정권에 반대하는 체제 인사들을 비밀리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독일과 한반도는 강대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단되었다는 점과 냉전으로 분단이 고착화되었다는 점에서는 분단 배경이 비슷하다. 그러나 분단의 배경, 분단의 수준, 분단의 환경이 달라 통일 여건에도 차이가 많다.⁷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는 독일 통일의 과정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먼저 남북한은 서로 충을 겨누고 피를 흘린 과거의 아픔이 존재한다. 1953년 휴전 이후에도 양측의 철저한 이념교육과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남북한 정부는 물론 남북한 주민 간에도 불신과 적대감이 높다.⁸ 70년이 넘는 단절의 기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불신과 아픔의 그림자가 더욱 짙다. 남북한의 경제, 정치, 사상, 언어 등의 차이의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통일 여건과 남북통합 과정에서의 예상되는 난항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상은 북한주민이다.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서독 교회는 냉전체제의 역학구조 속에서 소외되었던 동독 사람들의 문제에 집중하였고, 동독 사람들이 통일 독일의 주역으로 자리 잡은 결과로 현재 유럽의 최강대국인 통일 독일이 되었다. 냉전시대가 종식되었지만 남북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 문제의 양상은 가늠하기 어렵다. 그때에 교회는 서독교회의 사역을 본받아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통합 과정 가운데 약자인 북한주민들을 섬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초기 남북통합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경험하게 될 문제들의 양상을 ‘매슬로우의 동기이론’(Maslow’s motivation

⁷ *Ibid.*, 55.

⁸ *Ibid.*, 57.

theory)⁹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특별히 남북통합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북한 주민들의 욕구 문제는 시급히 충족해야 할 기본적인 욕구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매슬로우의 동기이론 중 하위 1단계 '생리적 욕구'부터 3단계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1)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본능적인 신체적 기능에 대한 욕구가 생리적 욕구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욕구이므로 다른 어느 욕구보다도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북한주민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공산주의의 기본인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지배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다. 초기 남북통합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일자리, 사회적 지원이 충분한 남한으로 이주하려고 할 것이다. 독일 통일이 시작되었을 때 동독주민이 1989년 35만 4천여 명이 탈출한 데 이어 1990년 1월부터 6월까지 23만 8천여 명이 추가로 탈출함으로써 1년 6개월 동안에 총 58만 2천여 명이 서독으로 탈출했다.¹⁰ 초기 남북통합 과정에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북한 주민들의 대량 인구 이동은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혼란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남한에서 IMF 관리체제 당시 150만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는데 남북한 통합 시에는 이보다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⁹ 'A. H. 매슬로우'가 인간에 대한 엄세적이고 부정적이며 한정된 개념을 부정한 인본주의 심리학을 근거로 주장한 욕구단계설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행동은 각자의 필요와 욕구에 바탕을 둔 동기(motive)에 의해 유발되고, 이러한 인간의 동기에는 위계가 있어서 각 욕구는 하위 단계의 욕구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지배적인 욕구로 등장하게 되며 점차 상위욕구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안전 욕구·소속 욕구·애정 욕구·자존 욕구 등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가장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를 자아실현 욕구로 보았다.

¹⁰ *Ibid.*, 231.

것으로 예상된다.¹¹ 특히 북한지역에서 높은 실업률, 물가폭등, 기업 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서독의 경우 실업률은 40%(320만 명)에 이르렀다. 북한에는 1100만의 경제활동인구 중 30%인 330만 명, 혹은 약 100만 명의 도시노동자가 실업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¹² 남북통합 과정에서 우리가 보게 될 북한주민들의 현실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의료적 혜택, 사회복지, 피폐화된 내면의 문제 등의 북한주민들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단기간의 재해나 안전사고 때문에 발생한 결핍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안전의 욕구는 두려움이나 혼란스러움이 아닌 평상심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로, 안전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한 것,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것,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수의 북한 사람들이 남한사회에서 겪을 문화충격(Culture shock)은 타 사회 출신의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과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유지하지 않는 남한이 통일되어 단일 경제체제를 이룰 경우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의 임금 및 수입의 격차가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의 경제 상태로 놓고 보더라도 통일이 되었을 경우, 북한 사람들은 계층서열에 있어서 분명히 급격한 하향이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북한경제는

¹¹ 박종철 등 『통일이후 통합방안(1):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241.

¹² *Ibid.*, 241.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거의 붕괴되었다. 북한의 소득분포는 크게 상층부(20%), 중간층(55%), 극빈층(25%)으로 구분되는데 하류층은 각종 질병과 영양실조 등으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생활수준의 격차는 남북한 주민들 간의 괴리를 더욱 크게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다. 특히, 절대적 빈곤이 만연하여 상대적 박탈의 개념이 무의미한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겪을 때 느끼게 될 열등감 혹은 좌절감은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 차이에서 기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북한 사람들이 남한사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으며, 남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북한 사람들을 ‘이등 국민’으로 취급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이다. 경제적 차이에서 비롯된 불평등으로 인하여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¹³ 빈민층과 취약계층의 확대에 따른 복지정책을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정책을 두고 정책논쟁과 이념갈등이 확대될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상 교육제도와 의료보장, 연금제도, 보조금 제도 등 사회복지제도의 골격을 갖추고 있었다. 물론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복지제도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관념상 사회주의체제의 복지제도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¹⁴

남북통합 과정이 남한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대한민

¹³ *Ibid.*, 243-244.

¹⁴ *Ibid.*, 244.

국의 자유주의 체제의 패러다임 속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북한주민들의 심리적 안전의 욕구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통합 과정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일련의 과정들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들의 심리적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Belongingness and Love Needs)

초기 통합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는 시기에 북한주민들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전반적으로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를 가지게 된다. 북한 사회 초기 안정화 단계에서 군대와 정부, NGO단체들의 지원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 욕구해결에 대한 안전감과 고마움 등의 긍정적 감정과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 혼란스러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정치, 사회, 경제 체계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어지럼증을 겪을 것이고, 이러한 복잡하고 급속한 변화들이 그들의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를 제한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람들의 바쁜 생활, 시장경제체제, 언어사용(영어와 법률용어, 한국어와 조선어), 자유로운 거주이동, 비행기와 고속버스 등 낯선 생활양식으로 사회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¹⁵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도착 이후 6개월 간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지만 북한과 완전히 다른 체계를 단기간에 체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머물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¹⁵ *Ibid.*, 243.

것을 볼 때 초기 통합 상황에서 북한주민들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 통합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를 제한하는 요소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원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 주민들은 민주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역사해석의 문제, 민족정체성의 문제로 인한 차이도 발생할 것이다. 정당결성 등 정치활동 과정에서도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정치참여의 증가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정당의 능력이 제한될 경우 정치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역사해석을 예로 들면, 북한은 우리나라를 고구려-발해-고려-조선에서 공화국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신라-고려-조선으로부터 한국으로 발전한 역사해석을 하고 있다.¹⁶ 이와 같은 역사관의 차이를 해소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에 대한 인식, 영어사용, 경제개방 문제 등 '세계화'에 대한 의식 차이로 사회문화적 갈등이 빚어질 것이다. 독일 통일 후에 동독과 서독 사람들이 '오씨(Ossi)-베씨(Wessi)의 갈등'¹⁷을 겪었던 것처럼 남북한도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초기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갈등 양상에서 북한주민들은 '을'의 입장,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제한되는 상황을 반복적으

¹⁶ *Ibid.*, 245.

¹⁷ '오씨(Ossi)-베씨(Wessi)의 갈등구조'라고 볼 수 있다. 독일어로 동쪽은 오스트(Ost)이며, 서쪽은 베스트(West)이다. 서독주민은 동독주민을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오씨'라고 부르며, 동독주민은 서독주민을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베씨'라고 부른다. 하지만 '오씨-베씨'의 대립은 단지 어느 지역 출신인가를 말하는 용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빈정거림과 상징이 담겨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오씨'는 가난하고 게으른 동독 사람을 뜻하며, '베씨'는 거만하고 역겨운 서독 사람을 뜻한다.

로 경험할 때 그들의 애정의 욕구가 제한되고, 남북통일 국가의 소속감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

3. 독일통합 상황에서의 서독교회의 역할

동서독은 45년간 별개의 나라, 상이한 체제와 가치관 속에서 살아오다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불과 9개월 만에 화폐, 경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고 다시 3개월 만에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후유증을 겪게 되었다.¹⁸ 동독 재건과 동독 실업자들의 생계지원 등의 예산으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총 1조 4,000억 유로(약 1,750조원)의 통일비용이 지출되었다.¹⁹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경제적 비용으로 산출할 수 없는 사회적, 심리적 후유증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이 겪은 후유증은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가운데 이질적 체제 간의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겪게 될 불가피한 후유증들이었다. 현재 독일은 일부 갈등과 문제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통일후유증을 대부분 극복했으며, 앞으로는 갈수록 점점 더 많은 통일의 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²⁰ 독일의 초기 통합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서독교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 서독교회는 통일 전부터 동독교회와 목회자들을 도왔고, 통합 초기 상황에서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까지 희생과 사랑의 ‘디아코니아(διακονια)’ 정신으로 동독주민들을 섬겼다.

¹⁸ 염돈재,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1), 320.

¹⁹ *Ibid.*, 321.

²⁰ *Ibid.*, 322.

서독의 교회는 동서독 통합 과정 전부터 동독 사람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서독교회는 분단 직후였던 1950년대부터 사회봉사적인 차원에서 동독교회를 지원했다. 서독교회는 통일 직전까지 끊임없이 동독교회뿐 아니라 동독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양로원, 요양원 등 사회봉사 기관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통일부가 독일 연방 하원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독은 1990년 통일될 때까지 총 1044억5000만 마르크(2001년 기준 약 62조7000억원)의 현금과 물자를 동독에 제공했다. 이 중 서독 정부는 296억 5000만 마르크(약 17조 8000억원), 민간은 이보다 훨씬 많은 748억 마르크(약 44조 9000억원)를 지원했다.²¹ 민간 지원 대부분이 서독교회의 지원금과 서독 교인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면 전체 대동독 지원액 중 무려 72%가 교회에서 이뤄진 셈이다. 서독교회가 동독교회에 지원하는 품목들도 다양했다. 생필품뿐 아니라 의류, 냉장고, 건축자재, 의약품, 서독의 현대식 의료기기 등도 지원했다. 심지어 원유, 구리, 천연고무, 커피, 양모 등과 같은 원자재까지 지원품에 포함됐다. 다만 서독교회는 정부와 달리 동독 정권에 의해 전용될 수 있는 현금은 절대로 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끝까지 유지했다. 이 같은 서독교회의 노력은 각 종파의 결집과 동독교회와의 유대감 때문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교회는 나치 협력 문제로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였다. 하지만 1945년 슈투트가르트 고백을 통해 이를 사죄했고, 결국 1948년 독일교회협의회(EKD)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 각 종파가 독립성을 유지한 연합체였다. 분단 이후에도 동서독교회는 이 조직에 함께 속하며 동

²¹ 모규엽, “독일통일, 교회를 통하다 2,” 『국민일보』, 2014. 3. 25.

질감을 유지했다. 특히 서독교회는 일부 친정부적인 동독교회와도 똑같은 조건에서 교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정신을 실천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49년부터 2년마다 동독 지역에서 열린 교회의 날(Kirchentag) 행사였다.

1954년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교회의 날에는 무려 65만 명이 참석할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며 동서독주민들 간 광범위한 접촉과 만남이 이뤄졌다. 비록 다른 체제 속에 살고 있지만 동서독교회는 이 행사에서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토론했다. 서독교회는 1년 예산의 40% 이상을 동독교회에 쏟아 부었다. 서독 정부의 장려도 동서독교회 교류의 큰 힘이 됐다. 서독 정부는 독일 내에 있는 비정부기구(NGO) 중 가장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는 교회의 교류에 주목했다. 서독 정부는 기독교민주당(CDU)과 사회민주당(SPD)으로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동서독교회 간 교류를 인도적 사안으로 판단해 이를 막지 않았고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²²

독일교회는 통일 이후에도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에 앞장섰다. 분단시절 서독교회와 동독교회가 형제애로 상호 연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해온 것이 원동력이 됐다. 교회는 서독이 통일연대세금을 거둬 재정적으로 동독 재건을 돕도록 이끌었다. 무엇보다 교회가 동서독에서 ‘믿을 만한 곳’이라는 공신력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사회를 견인할 수 있었다. 분단시절 자매결연을 맺은 서독교회와 동독교회는 통일 이후에도 계속 교류를 이어갔다. 서독교회는 통일 이후 동독교회 목사들의 봉급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교회는 새로운 통일 시대를 열

²² *Ibid.*

어가기 위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것이 ‘크리스천아카데미운동’이다. 이 운동의 기본 정신은 대화였다. 교회가 중심이 돼 각 주에 설치된 크리스천아카데미는 동서독 교사모임 등 각종 모임을 주선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전국적으로 조직된 크리스천아카데미는 다양한 영역에서 통일 독일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동서독이 함께 고민하면서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독일교회협의회(EKD) 사회연구소가 1991년에 펴낸 백서 “공동 복지와 개인 이익: 미래에 대한 책임 안에서의 경제활동”이다. 동구권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된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발표된 이 백서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백서는 경제활동의 과제가 이웃에 대한 돌봄과 공동의 삶을 고려하는 가운데 자신에 대한 자립과 공급을 가능하게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사회적 시장경제가 가장 적합한 틀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이웃들’과 함께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백서는 통일 독일이 지향해야 할 사회적 정의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제적 차이가 크게 나고 동독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약자의 편이 되어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교회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경제 문제에 개입하도록 권고하고 적극 도왔다. 백서 발표 이후 교회 내에서는 토론이 벌어졌고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쳐 제도적인 개선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사회통합 과정은 쉽지 않았다. 수십 년간 상이한 체제에

서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뤘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질성과 그에 따른 상호 불신이다. 교회는 체제 변화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동독 사회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서독교회 목사들이 동독으로 건너가 노하우를 전수했다. 동독주민들은 옛 동독 체제로 돌아가기는 싫고, 서독 체제에 적응하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동독 공장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쇄됐고 실업자가 양산됐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교회는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동독의 실업자들을 위로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도왔다. 지금도 독일교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²³

4. 남북통합 과정에서의 군종목사의 역할과 군선교

남북통합 과정은 동서독 통일 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 동서독은 분단 상황 속에서도 왕래가 가능하였고, 그들은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 가능할 수 있었다. 남북한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남북한 왕래의 빈도나 깊이 등을 살펴 볼 때 교회의 역할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과 무력감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남한교회가 초기 남북통합 상황에서 정권과 체제가 아우르기 어려운 북한 주민들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특별히 군교회와 군종목사는 초기 남북통합 상황에서 한국교회 통일선교와 민족 복음화의 최전방에 설 수밖에 없다. 정치 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발 벗고 나설 재

²³ 김재중, *op. cit.*, 5.

정적 여건과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위의 임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조직과 사람은 군교회와 군종목사이다. 한국교회의 대부분 교단들이 통일을 향후 사역의 중요 어젠다로 설정하여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고, 교단에 속하지 않은 많은 단체들이 통일 상황에서 북한을 섬기기 위한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초기 상황에서 그들의 선교 참여는 제한된다. 초기 남북통합 과정에서의 군종목사는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갔던 정탐꾼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요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남북통합 상황에서 군교회가 독일교회의 모습에서 본받아야 할 정신은 바로 ‘디아코니아’ 정신이다. 독일교회가 동독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 하고, 실질적인 문제에 도움을 주었던 봉사의 정신이 군선교의 핵심가치가 되어야 한다. 일부 민간교회는 북한주민들을 자신의 교세를 확장시킬 수 있는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선교의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통합 초기에 먼저 선교의 문을 열게 될 군교회와 군종장교는 우선 북한 주민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준비와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통합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마주하게 될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를 군교회와 군종목사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 군대가 남북한 통합 초기 단계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북한주민들이 겪을 욕구의 문제 충족은 군선교의 핵심과제이다.

1) 북한주민들의 ‘생리적 욕구’ 충족을 위한 군선교

남북통합 상황 초기에 선행되어야 할 군선교 사역은 북한 주민들의 생리적 욕구 해결이다. 군교회와 군종목사는 대한민국 군대가

재건 사업을 수행할 때 민간교회의 재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남북한 통합 초기 혼란한 상황에서 한국 군대가 마주하게 될 북한주민들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고 특별히 노약자와 아동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일 것이다.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각종 전염병 검사,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을 군대 중심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 위의 사업을 군대가 수행할 때 군중목사는 민간에서 대북 지원을 담당했던 기독교 NGO들과 연계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한 구호품을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함께 진행되는 임무는 ‘재건사업’이다.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양과 몇 개의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도로, 급수 등 사회간접자본이 전무한 상태라고 한다. 남한 군대가 북쪽에 진출했을 때 긴급구호와 더불어 기본적인 도로, 급수 시설 등을 개발해야 한다. 차후에 장기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겠지만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은 군에서 제공하게 된다.

우리나라 군대는 1993년 소말리아에 250명 규모의 건설공병대대를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지난 20년간 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16개국 19곳에 연인원 8,280명을 파견하여, UN의 깃발 아래 정전감시활동, 치안유지, 인도적 구호·지원, 전후 복구·재건, 선거감시, 의료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²⁴ 우리나라 최초로 UN PKO에 참여했던 소말리아 공병부대(1993.7-1994.3)는 8개월간 도로(80km), 관개수로(18Km), 경찰서 등을 개, 보수하고 주민생활에 당장

²⁴ 전제국, 『소프트 파워 강국을 지향한 글로벌평화활동』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1), 78.

필요한 심장·급수시설 등을 건설하여 현지 PKO 사령부 및 주민들로부터 ‘소말리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PKO 활동을 전개한 부대’라는 평가를 받았다.²⁵ 우리 군의 PKO 경험은 초기 남북한 통합 안정화 단계에서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재건사업을 수행할 때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군종목사는 소요예산과 지원이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과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군 선교연합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민간교회의 자원을 선교의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교회들에게 현재 재건사업의 진행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사항들을 요청하여 신속한 임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북한주민들의 ‘안전의 욕구’ 충족을 위한 군선교

북한주민들이 통합 과정을 겪으면서 남한 사람들과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심리 사회적 박탈감에서 오는 갈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통합 초기에는 남한 이주를 정책적으로 조절해야겠지만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느끼게 될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면 남한에 오면서 의식주 문제는 한 번에 해결 되지만 남한 사회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와 남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 사회적 위치 등에서 오는 박탈감은 매우 크다. 이러한 불만들 때문에 남한 사회를 싫어하고 오히려 북한을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통합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의 안정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²⁵ *Ibid.*, 95.

한국군의 평화활동은 무엇보다도 현지 주민, 문화, 전통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심을 얻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었다. 이는 '현지인의 마음을 얻는 것이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판단에 기초해 있다.²⁶ 이러한 정신이 한국 군대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UN과 지역주민들에게 최고의 PKO라는 평가를 받게 했다.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군인들을 불신한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겪은 후 북한의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하면서 북한의 군대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 위에 군림하고 착취하는 조직이었다. 그래서 군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군종목사는 그들의 불신을 사랑과 섬김으로 신뢰로 바꿔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재건사업을 추진하는 군대가 통합 초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간과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여 북한주민들의 마음까지도 재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군교회와 군종장교에게 필요하다. 군종장교들의 파병 경험과 더불어 일반 부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심사병 상담, 집단 상담, 비전 캠프 등의 노하우로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실시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인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임무를 통합 상황 초기에 잘 수행하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의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북한주민들의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충족을 위한 군선교

북한주민들이 통합 과정을 겪으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부분이다. 오랜 세월 분단 된 상황에서 언어가 달라

²⁶ *Ibid.*, 94.

졌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영적인 차원의 문제다. 북한 주민들이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굶주리고 절대적 빈곤 가운데 있었지만 더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북한주민들의 영적인 문제다. 오랜 시간 동안 강제로 수용하고 세뇌된 주체사상의 억압 속에서 북한주민들의 영적인 부분은 마비되었다. 북한주민들의 황폐화 된 영적인 토양을 처음으로 만나서 살려내는 일은 군종목사가 감당해야 한다.

독일 통일의 영적인 심장과 같은 교회가 동독의 라이프치히(Leipzig)에 위치한 성 니콜라이 교회이다. 1980년부터 근 10년간 같은 장소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젊은이들이 평화통일 기도모임을 계속해 왔고, 통일이 무르익을 1989년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통일을 위한 기도회 및 평화행진을 펼쳤다. 이 때 독일교인들이 외쳤던 구호는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Wir sind ein Volk)였다. 독일교회가 동독과 서독의 아픔과 갈등을 끌어안고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데 놀라운 영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통합 초기 상황에서 군교회는 독일의 니콜라이 교회와 같은 영적인 선봉장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군교회는 초기 남북통합 과정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앞장서야 하고, 군종목사의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남북통합 안정화 단계에서 민간교회와 선교단체가 바로 선교활동을 펼칠 수 없고, 군교회와 군종목사가 북한주민들의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로 설명되는 영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5. 결론

독일의 통일은 동독주민들이 통일을 원했고 서독교회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동독교회와 주민들을 섬기며 통일을 준비했기 때문에 냉전체제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정치외교 전문가들은 독일 통일이 당시 동독 공보담당 ‘샤보프스키’(Gunter Schabowski)의 실수²⁷로 시작되었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말 외에는 독일 통일을 설명할 길이 없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해 볼 때 독일과 같은 아름다운 통일의 과정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통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속에서 통일은 급하게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도 잡히지 않는 신기루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일이 왔을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군대와 군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초기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사회를 안정시키고, 사회 인프라를 재건하는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은 군대밖에 없다. 대

27 “그래서..., 음... 결정했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모든 시민이... 국경의 어디를 통해서든 떠날 수 있게 허용하기로.” 1989년 11월 9일 저녁, 동독 공산당의 공보담당 정치국원 샤보프스키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 결정된 여행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여행 자유화 조치가 실시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더듬거리며 답했다. “내가 알기로는, 음, 지금..., 지금 당장입니다.” 1971년부터 철권통치를 해온 에리히 호네커 정권은 이미 밑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고, 동·서독간 이동을 허용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었다. 하지만 38년 동안 두 지역, 아니 ‘두 세계’를 갈라온 장벽이 일순간에 무너질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다. 그날 밤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만든 것은 샤보프스키의 기자회견이었다. 동독 정권은 이튿날 오전 4시 장벽을 열고 상황을 통제할 계획이었으나 샤보프스키가 ‘실수로’ 발표해버린 것이었다.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를 하던 서독을 비롯한 각국 언론들은 일제히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동독 사람들은 장벽으로 몰려들었다. 병사들은 총을 내려놨고, 밤새 사람들은 장벽을 넘었다. 검문소 문은 활짝 열렸으며 곳곳에서 시민들이 삼페인을 터뜨렸다. 구정은, “말실수로 베를린 장벽 붕괴 이끈 샤보프스키 사망,” 『경향신문』 2015. 11. 2.

한민국 군대는 북한주민들이 마주하게 될 남한을 보는 거울이 될 것이고, 군교회와 군종목사는 북한주민들이 마주하게 될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보는 거울이 될 것이다.

독일 통일과 사회통합 과정에서 보여준 독일교회의 역할은 한국 교회와 군교회가 통일 전후를 준비하는 일에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통일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부터 여러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동시에 영적인 눈을 떠서 올바르게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에 앞서 기독교 초교파 연합 통일준비모임인 통일선교아카데미가 출범했다. 분단 이후 한국교회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통일운동과 다양한 대북지원 및 통일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지만 이 과정에서 교회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반목과 갈등을 지속함으로써 효과가 반감됐다. 이에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초교파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국내 주요 교단 10개 교회 목사들이 참여한 통일선교아카데미가 극동방송에서 창립예배를 갖고 본격적인 사역에 나서게 되었다.

남북한 통합 상황이 되면 군선교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게 된다. 전환의 시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통일과 남북통합 과정에서의 군선교적 과제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통일과 남북통합 과정에서 군선교가 지향했던 민족복음화의 사명이 구체화될 것이다. 군교회는 이미 11개 교단이 연합하여 1004 군인교회를 섬기고 청년복음화의 사명을 지금까지 수행했고, 통일과 남북통합 상황에서 민간교회가 할 수 없는 민족복음화의 서막을 여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군교회는 북한 교회를 재건하고 민족 복음화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군교회가 남북한 통합 초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군대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돕고, 북한주민들에게 선교적 역량을 집중할 때 민족 복음화와 북한교회 재건이라는 놀라운 역사의 샘플이 솟구치게 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any concerns that North Korean civilians might experience at the early stage of the national unification process and to discover the task of the Military Ministry. According to Maslow's Motivation Theory, the concerns that North Korean civilians might face are analyzed into physiological needs, safety needs, belonging and love needs. It was investigated what roles West German churches played in order to satisfy the needs of East German civilians in the unification process of Germany who had experienced unification before us.

At the early stage of our national unification process it is the military organization that could act upon successfully to stabilize the society and to rebuild social infrastructure. The Korean Military which experienced various Peace Keeping Operation(PKO) activities would be able to accomplish the mission at the early stage of our national unification process in which the chaplainship

along with the army religious corps will take part. The army religious corps and the chaplainship will be in charge of the missionary operations that would fulfil the physiological, safety, and belonging and love needs of the North Korean civilians.

주제어(Key words):

남북통합(North and South Korea unification)

독일통일 과정(unification process of Germany)

장병의 군복무 중 종교 변화와 군선교 전략 연구

A Study of Religion Change in Military Service
and Military Mission Strategy

■ 김성훈 Kim, Seong Hun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측정평가 전공 박사 수료(Ph.D. in candidate)
- 육군 제1공병여단 군종실장 기드온교회 담임목사



1. 서론

한국교회가 젊은이 선교의 중요한 방안으로 군선교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육군훈련소 및 신교대에서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어 기독교 신자로 입문하게 하는 초기전략과 훈련소 이후 소속된 부대에서 신자로서 정체성을 함양하는 중간전략과 마지막으로 전역 이후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교회로 돌아가는 최종전략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지금까지 군선교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초기전략인 훈련소와 신교대의 사역은 독특한 방안으로 인식되어 여러 논문에서 그에 대한 신학적 의

미를 고찰하고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되어 왔다(권오민, 2011; 남송현; 2007; 이석우, 2010). 물론 단체세례가 성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지만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사역자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여 지금까지도 중요한 군선교 전략으로 이해되어왔고 정착되어 왔다.

신교대의 세례를 통한 선교전략 이후에 병사들이 소속 부대로 배치를 받고 난 후 군선교는 작은 단위의 전략과 큰 단위의 전략이 함께 이뤄졌다. 작은 단위라 함은 해당부대의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들을 통하여 이뤄지는 전략이다. 즉, 예배, 성경공부 등의 형태로 신앙양육이 이뤄지고 담당 사역자들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함께 장병들을 전역 후 지역교회들로 연계하는 사역을 하였다. 큰 단위 전략은 비전2020, 선샤인캠페인과 같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군종목사단에서 이뤄지는 정책적 전략을 의미한다. 비전2020은 1996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는데 1972년의 ‘전군복음화운동’ 이후 ‘전군 신자화 후원회’, ‘군복음화 후원회’를 거쳐 1999년부터 현재의 ‘군선교연합회’가 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진행되어 왔다(오덕교, 2004). 하지만 시대의 변화로 비전2020 전략은 기대했던 소기의 결과를¹ 얻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선샤인운동이라는 새로운 선교전략이 수립되었다. 선샤인운동은 201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부대 사고예방과 병영 문화 개선에 앞장서자는 기독교 실천

¹ 2020년에 민족의 75%를 복음화하려는 계획이나 현재 기독교 비율은 그에 못 미치는 현실이다. 갤럽 종교조사(2015)에서 종교비율은 1984년 17%, 1989년 19%, 1997년 20%, 2004년 21%, 2014년 21%이다. 이러한 추세를 보았을 때 2020년이 4년이 남은 현 시점에서 75%를 신자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운동이다. 이러한 군선교 전략은 비전2020에서 선샤인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양적 전략에서 질적 전략으로 전환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군선교가 과연 젊은이의 종교 선택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갤럽은 종교비율을 종단조사를 통해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군대 내 기독교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교회사역과 군선교 정책은 어떠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신 사역자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대략적이며 체감적인 변화를 감지하여 우리의 군선교가 현재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는 식의 희망적인 호소를 한국교회에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반해 김성훈(2016)은 전국단위로 수집된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역으로 군을 전역한 장병들의 종교에 따른 군 생활과 신앙 요인들의 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군선교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² 그 결과 기독 청년들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교회와 선교단체의 혁신을 통해 예배와 신앙 모임 등이 강화되어 개인에게는 건강하고 행복한 자아관을 형성하고 군에는 병영문화혁신을 선도하는 건전한 장병을 육성하는 군선교를 지향하는 21세기형 군 선교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처럼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하여 장병들에게 군선교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더욱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군선교 전략이 더욱 현실성 있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² 이와 관련하여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김성훈. “종단 데이터를 활용한 군선교 정책 전략.” 『장신논단』 48(2) (2016), 331-358.

하지만 김성훈(2016)의 연구도 데이터의 특성상 장병들의 종교 변화를 살펴볼 수는 없었다. 군선교 현장은 2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장병들이 종교의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소속 부대 내에서의 종교변화와 유지에 따른 적절한 대처와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군복무 가운데 장병들의 종교가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는 군선교 전략을 세우기 위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활용하여 혼합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양적연구의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지난 2년간 장병들의 종교 변화를 추적 조사하여 입대에서 전역 전까지 종교가 어떻게 변화 혹은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양적연구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장병들의 종교 변화와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실행한다. 셋째, 질적연구에서는 장병들의 종교변화 혹은 유지를 하게 되는 이유를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종교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착안점을 살펴본다.

2.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복잡한 현상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방법으로 탐색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적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적인 방법인 질적 연구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양적으로 유도된 핵심요소에 질적 보완요소를 갖춘 혼합방법설계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³

1) 연구 대상

³ J. M. Morse & L Niehaus, 『혼합설계방법』, 김미영, 정승은, 차지영 역 (서울: 한누리, 2012). 참고.

(1) 양적 연구 대상

본 연구는 1공병여단의 현역 장병 362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대상자는 2014년 7~12월 사이에 1공병여단으로 전입해 온 장병들이며 2015년 4월, 10월 그리고 2016년 3월에 걸쳐 총 4회 조사되었다. 즉, 이것은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의 각 시점마다 조사를 한 것으로 장병들의 군 생활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수집된 자료이다. 물론 이 연구가 1공병여단의 제한적인 대상자만을 분석한 것이므로 전 부대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실제적인 종단자료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조사로 볼 수 있으며 차후의 전군단위를 고려한 본 조사를 위한 파일럿 조사로서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계급 시점별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연구결과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2) 질적 연구 대상

1차 양적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상자 362명 중에서 종교가 변화하였거나 처음 종교가 그대로 유지된 병사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개별면담을 통해 내용분석이 실시되었다. 이들 중에 16명 심층면담 대상자는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된 병사 8명,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화된 병사 8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응답사례들은 연구자에 의해 내용주제별로 부호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범주화되었다.

2) 변수 설명

(1) 종속변수

이 연구에서 장병의 군복무 중 종교선택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활용한 종속변수는 4시점에 따른 종교의 변화와 유지다. 매시점마다 종교를 조사하여 개인에 따라 변화를 살폈다. 무교에서

무교로 유지되는 것, 무교에서 기독교로 유지되는 것, 기독교에서 기독교로 유지되는 것, 그리고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는 것을 각각 분석내용에 따라 0과 1로 코딩하였다. 즉, 종속변수는 이분문항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하였다. 첫 번째는 개인심리변수로 자존감, 삶의 의미, 절망감을 활용하였다. 개인심리변수는 권창모·김성훈의 연구⁴에서 적용한 검사도구를 활용하였다. 두 번째는 부대의 종교현황변수로 부대 내 기독교인 비율과 지휘관종교이다. 세 번째는 부대의 일반현황으로 병사들의 직접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는 소부대훈련정도이다. 구체적인 설명은 <표 1>에 기록되어 있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		변수처리	
종속 변수	무교 → 무교	분석1,2에서 0으로 처리됨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각 시점에 대하여 무교로 시작하여 무교로 변화 없이 조사된 경우
	무교 → 기독교	분석1에서 1로 처리됨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각 시점에 대하여 무교로 시작하여 기독교로 변화된 경우
	기독교 → 기독교	분석2에서 1로 분석3에서는 0으로 처리됨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각 시점에 대하여 기독교로 시작하여 기독교로 변화 없이 조사된 경우

⁴ 권창모 김성훈, “군 부적응 병사 치유를 위한 비전캠프 3.0의 효과성 검증,” 「국방정책연구」 30(3) (2014), 227-253.

	기독교 → 무교	분석3에서 1로 처리 됨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각 시 점에 대하여 기독교로 시작하여 무교로 변화된 경우
개인 심리 변수	자존감	자존감 10개 문항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삶의 의미	삶의 의미 16개 문항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절망감	절망감 10개 문항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부대 종교 변수	기독교 비율	조사대상의 소속 부대 기독교 비율(%)	
	지휘관 종교	기독교=1, 그 외=0	
부대 훈련 변수	소부대훈련	부대 훈련 정도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1=매우 적음, 5=매우 많음)	

3) 양적 연구 분석방법 및 모형

본 연구에서는 장병의 군복무 중 종교선택에 대한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장병들의 종교 변화와 유지에 대하여 참조변수와 비교분석하였다. 세 번의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실시하는데 분석1은 무교에서 무교로 유지되는 것을 0으로 하고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되는 것을 1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2는 무교에서 무교로 유지되는 것을 0으로 하고 기독교에서 기독교로 유지되는 것을 1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3은 기독교에서 기독교로 유지되는 것을 0으로 하고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는 것을 1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모형을 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ln\left(\frac{p_i(Y_i = 1)}{1 - p_i(Y_i = 1)}\right) = \beta_0 + \beta_1 F_i + \beta_2 S_i + \beta_3 X_i$$

$p_i(Y_i = 1)$ 는 분석1에서는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 분석2에서는 기독교에서 기독교로 유지, 분석3에서는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화 됨.

$1 - p_i(Y_i = 1)$ 는 분석1과 2에서는 무교에서 무교로 유지됨, 분석3에서는 기독교에서 기독교로 유지됨.

F는 개인심리변수를 나타내는 벡터(자존감, 삶의 의미, 절망감)

S는 부대 내 종교현황을 나타내는 벡터(부대 내 기독교인 비율, 지휘관종교)

X는 부대의 일반현황을 나타내는 벡터(소부대훈련)

위 분석을 통해서 군선교의 초·중기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즉, 소속 부대에서 신앙활동을 통하여 신앙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영향요인과 전역 시점까지 기독교를 유지한 요인들을 통해 전역 후에도 기독교로 자신의 종교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4) 질적 연구 분석방법

(1) 개별면담

연구자가 16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은 비주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소는 교회, 상담실, 북카페 등이다. 1회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내외이며, 개인별로 1회 실시되었다. 면담에 사용된 질문내용은 일상적인 부대 이야기를 포함하여 종교의 선택에 대한 변화와 유지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자유스러운 대화 형태의 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대일 개별 면담이었다. 연구자가 면담이 끝난 직후에 면담의 주요 이야기를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 질적 자료 해석과정

군생활 가운데 종교의 유지 및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과정을 거쳤다. 전체 분석은 총 3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자료를 요약하는 단계에서 연구자가 질적 사례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원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하였다. 두 번째, 자료를 조직하는 단계에서 연구자가 수집한 질적 사례를 코딩하고, 핵심단어를 찾는 작업을 하였다. 종교의 유지 및 변화를 경험한 장병들이 겪은 문제에서 2인 이상이 언급한 공통된 에피소드별로 정리되었다. 이 문장에서 씬, 성장, 긍정, 동료, 임무 등과 같은 감정이나 특징들이 핵심 단어로 정리되었다. 핵심단어를 토대로 주요 개념을 찾고 다시 주요 개념들을 범주로 분류하였다. 세 번째, 자료를 해석하는 단계에서 범주화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자의 생각과 해석, 견해가 메모되었다.

3. 분석 결과 및 해석

1) 종교의 변화 추이

이등병에서부터 병장에 이르기까지 연구 대상자들의 시기별 종교를 통하여 장병들의 종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2014년 가을부터 2016년 봄까지 조사대상 병사들의 종교변화 추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이 전국단위의 모집단을 바탕으로 조사된 표본은 아니기 때문에 표본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년간의 지속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일부분이지만 변화의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2011년 군 종교 전수조사의 기록에 비추어

보면 대략적으로 전체 종교가 있는 비율은 48.3%, 무교가 51.7%⁵이다. 전체 종교와 무종교의 비율은 전수조사와 이 연구가 비슷한 값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수조사에서 무교를 제외한 종교 간의 비율을 살펴보면 기독교 54.30%, 불교 26.93%, 천주교 17.96%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의 이등병 시점에서는 기독교가 67.80%, 불교가 15.25%, 천주교가 16.95%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종교를 가진 이들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전에 실시되었던 전수 조사와 이 연구의 조사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도 있으며 초기에 언급한 대로 이 연구는 전국 단위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향된 조사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소속 부대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것으로 이등병 때에는 전입신병 교육 전에 조사가 되었고 일병, 상병, 병장은 전체 부대 단위조사로서 진행이 되었으므로 다른 병사가 대신 입력한 것이 아니라 모두 개인이 직접 참여한 것이다.

이등병 시점에서 일병, 상병, 병장으로 변하면서 종교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등병에서 일병과 상병시점에 가면서 무교가 소폭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초기 신병교육대 등을 통해 활발한 종교활동에 의해 종교를 가졌지만 소속부대에서는 다양한 임무에 노력하게 되고 조금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종교의 필요성을 다소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병장이 되면서는 다시금 초기의 분포와 비

⁵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0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1), 65.

	총계	종교장병					무종교 장병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	
2011년	653,000 (100%)	171,245 (26.22%)	56,627 (8.67%)	84,925 (13.01%)	1,359 (0.21%)	126 (0.19%)	337,628 (51.7%)

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는 늘어나고 무교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분석대상자의 종교변화

종교(빈도,%)	이등병(1시점)	일병(2시점)	상병(3시점)	병장(4시점)
기독교	120(33.1)	112(30.9)	110(30.4)	118(32.6)
불교	27(7.5)	23(6.6)	24(6.6)	22(6.1)
천주교	30(8.3)	32(8.9)	31(8.6)	31(8.6)
무교	185(51.1)	194(53.6)	197(54.4)	191(52.7)
합계	362	362	362	362

〈표 3〉은 최종적으로 이등병 시점에서 가진 종교가 병장 시점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변화 혹은 유지를 조사하였다. 이등병에서 무교였던 병사가 병장이 되어서도 무교인 수는 157명이며 기독교에서 기독교로 유지된 병사는 99명이다. 그리고 종교가 변한 것은 이등병 시점에서 무교였으나 소속부대에서 시간이 지나면 기독교로 변한 병사는 17명, 이등병 시점에는 기독교였으나 무교로 변한 병사는 19명이다.

〈표 3〉 분석대상자의 종교변화

종교변화분류	무교→무교	무교→기독교	기독교→기독교	기독교→무교
N	157	17	99	19

〈표 4〉는 네 가지 종교 변화 유형에 대한 자존감, 삶의 의미, 절망감, 소속 대대의 기독교 비율, 지휘관 종교, 소부대훈련정도 변수 값을 살펴보았다. 자존감은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화한 집단이 제

일 높고 기독교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이 낮았다. 이것을 단선적으로 교회 다니는 병사들이 자존감이 낮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삶의 의미는 기독교 유지하는 집단과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화하는 집단이 높고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하는 집단이 낮았다. 절망감은 기독교를 유지하는 집단이 높았고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화하는 집단이 낮았다. 소속 대대의 기독교인 비율은 기독교를 유지하는 집단이 제일 높았다. 지휘관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는 각 집단마다 유사하였으나 무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는 경우에는 한 명도 없었다. 소부대 훈련정도는 기독교에서 무교로 바뀌는 경우에 상당히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표 4〉 종교변화 유형의 변수 기술통계

	무교→무교		무교→기독교		기독교→기독교		기독교→무교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자존감	41.05	6.217	42.06	7.066	40.49	6.280	43.69	5.872
삶의 의미	54.90	11.104	54.38	8.648	55.33	10.736	55.34	13.552
절망감	17.52	7.339	17.13	7.293	19.39	7.551	17.06	6.773
기독교 비율	25.57	3.139	24.49	2.581	26.54	3.231	24.58	2.770
지휘관종교	.08	.276	.00	.000	.07	.258	.06	.232
소부대훈련	3.96	.913	4.38	.619	3.94	.923	4.44	.619

2) 양적 연구에 따른 종교 변화 설명요인

종교 변화에 따른 개인 특성을 분석하여 개인 특성들이 종교 변화를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탐색하기 위해 종교 변화에 따라 3가지 비교 분석 집단으로 나누었다. 분석1은 무교를 유지하는 집단과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하는 집단의 비교, 분석2는 무교를 유지하는 집

단과 기독교를 유지하는 집단의 비교, 분석3은 기독교를 유지하는 집단과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는 집단의 비교를 하였다. 분석1은 소속 부대에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로 장병들을 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언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분석2는 종교를 가지지 않는 병사들과 기독교를 가진 병사들의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분석3은 기독교였다가 무교로 바뀌는 병사들의 원인에 대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가. 분석1: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5〉는 무교유지 집단과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하는 집단을 비교하였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속 대대의 기독교 비율과 소부대훈련 정도이다. 기독교 비율은 1의 값이 증가할 때마다 무교에서 기독교로 갈 승산이 1.206배이다. 즉 소속대대가 기독교 비율이 높을수록 무교인 장병이 기독교로 변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부대훈련을 살펴보면 훈련이 많을수록 무교를 유지할 확률이 높았다. 승산비로 보면 훈련이 더 강해질수록 무교가 기독교로 변할 확률은 감소하고 그 비율은 0.807배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기독교 비율은 무교인 장병이 기독교로 변할 확률을 높여주며 훈련이 많을수록 무교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표 5〉 분석1 결과: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로그승산(무→무 vs 무→기)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상수	-2.043	3.746	.130

개인심리변수	자존감	.081	.082	1.084
	삶의 의미	-.036	.036	.964
	절망감	.010	.052	1.010
부대 종교변수	기독교 비율	.216*	.110	1.206
부대 훈련변수	소부대훈련	-.741†	.402	.807
				$R^2 = .122$

† p<.1 * p<.05 ** p<.01 *** p<.01

나. 분석2: 무교와 기독교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

〈표 6〉은 무교 유지 집단과 기독교 유지 집단을 비교하였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절망감과 소속 대대의 기독교 비율이다. 절망감이 1점 증가할 때마다 기독교를 유지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038배 높았다. 그리고 기독교 비율은 1의 값이 증가할 때마다 기독교를 유지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105배 높았다.

〈표 6〉 분석2 결과: 무교와 기독교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주는 변인들

		로그승산(무→무 vs 기→기)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상수	-5.040*	2.134	.006
개인심리변수	자존감	-.001	.038	1.010
	삶의 의미	.018	.018	1.018
	절망감	.043†	.026	1.038
부대 종교변수	기독교 비율	.116*	.054	1.105
	지휘관 종교	-.700	.587	.590
부대 훈련변수	소부대훈련	-.039	.164	1.094
				$R^2 = .157$

† p<.1 * p<.05 ** p<.01 *** p<.01

즉 절망감이 다소 높은 병사일수록 자신들의 절망감에 대한 도

움과 기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긍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다소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기독교를 계속 유지하는 장병들이 절망감이 낮은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종단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면 기독교를 계속 유지하는 장병들은 다소 절망감이 있을 때 종교적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이 기독교를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속대대가 기독교 비율이 높을수록 기독교로 계속 유지할 확률이 높았다. 이것은 앞의 영향과 비슷한 것으로 소속부대의 기독교 비율은 장병들의 기독교 유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을 정리하면 절망감이 높을수록 기독교를 유지하게 하며 기독교 비율은 기독교를 유지할 확률을 높여준다.

다. 분석3 :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7〉은 기독교 유지 집단과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는 집단을 비교하였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존감과 소속 대대의 기독교 비율 그리고 소부대훈련이다. 자존감은 1점 증가할 때마다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127배 높았다. 그리고 소속 대대의 기독교 비율은 1의 값이 증가할 때마다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기독교를 유지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비해 0.770배 낮았다. 또한 소부대훈련이 1단계 높아질수록(훈련을 더 많이 할수록)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할 승산비율이 1.985배 높았다.

즉 자존감이 다소 높은 병사일수록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였다. 이것은 기독교를 믿는 장병들이 자존감이 낮다고 볼 수는 없고 도리어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신을 의지하는 면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높을 수 있다는 면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속대대가 기독교 비율이 높을수록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기보다는 기독교로 계속 유지할 확률이 높았다. 이것은 앞의 분석1, 2와 비슷한 결과로 소속부대의 기독교 비율은 장병들의 기독교 유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소부대훈련은 분석1에서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훈련의 강도가 강하며 많을수록 장병들은 기독교를 가기보다는 무교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이것을 정리하면 자존감이 높고 소부대훈련이 강하고 많을수록 기독교에서 무교를 선택하게 되며 기독교 비율은 기독교를 유지할 확률을 높여준다.

〈표 7〉 분석3 결과 :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로그승산(기→기 vs 기→무)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상수	-1.211	3.631	.298
개인심리변수	자존감	.120†	.067	1.127
	삶의 의미	-.029	.026	.972
	절망감	.028	.046	1.028
부대 종교변수	기독교 비율	-.261**	.086	.770
	지휘관 종교	.985	1.008	2.678
부대 훈련변수	소부대훈련	.686*	.341	1.985
		$R^2 = .270$		

† p<.1 * p<.05 ** p<.01 *** p<.01

3) 질적 연구에 따른 종교 변화 분석

앞선 연구에서는 군 복무 중 종교가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화되거나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되는 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것

은 본인의 종교가 입대 전과 신교대 등에서는 무교였으나 자대 배치를 받고 군복무를 하면서 종교의 필요성을 발견하여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과 입대 전과 신교대에서 기독교였지만 군복무를 하면서 종교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무교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장병들과 면담을 실시하여 군생활 가운데 어떠한 요인이 종교의 변화를 보이게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

가. 편안함

군에 오는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급격한 변화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게 된다. 이를 해소해줄 편안한 분위기를 찾아서 종교행사에 참석하게 된다. 특히 기독교의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 자신들에게 이전에 줄 수 없었던 편안함을 제공받고 이를 통해 심을 얻게 된다. A병사는 이것을 강조하였다.

군대에 와서 호기심을 가지고 다니다가 여단에 오니 교회를 오는 것이 좋았다. 특히 마음 놓고 들을 수 있어 가게 되었다...(A 병사)

신교대에서 기독교 나가면서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다. 사회에 선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 오니 재밌기도 하고 마음도 편해졌다...(B병사)

병사들에게는 많은 과업이 주어진다.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하루의 일정과 그에 맞추어 생활하면서 어느 하나 심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 간혹 주말에도 이어지는 일들이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병사들은 자신들의 심을 얻을 수 있는 편안한 곳을 원한다. 이것이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나. 긍정적 마음

군생활로 위축되어 있는 병사들은 사소한 문제에도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기 쉽다. 이러한 감정이 지속되면 자존감 등에 영향을 주어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군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긍정적인 마음을 얻게 되는 병사들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게 되며 그것을 통해 활동적인 군복무에 더욱 쉽게 적응하게 된다.

힘들 때 교회 가서 기도하면 긍정적으로 되기도 합니다. 군에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그런 것 때문에 다니게 된 것입니다....(C병사)

기독교는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무교처럼 생활하였죠. 그렇게 군에 와서 나랑 맞지 않는 종교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처음엔 쉬고 싶어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스트레스 받을 땐 교회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얻게 되는 것 같아 다니고 있습니다....(D병사)

다. 함께하기

병사들은 자신의 의지로 종교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군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진 단체 의식으로 인해 다른 이가 권유하거나 동참하는 것을 통해 종교를 선택하기도 한다. 특히 자신의 생활관, 증소대에 서 동기와 선임의 인도로 함께 교회를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

사회에선 무교여서 주말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군대 와서 기독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동기를 따라 주말에 노래도 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E병사)

군대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는 선임들이 우리 생활관 동기들에게 다 같이 가보라고 권유하면서 유익할거라고 말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 무 의미한 주말보다 가서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F병사)

군인들에게 전우애, 동료애는 각별하다. 이러한 감정은 군생활을 통해 공동체의식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전우애가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볼 수 있다. 두 병사들을 통해 확인되는 것도 이러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화

가. 신앙성장이 안 됨

교회를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것이 자신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즉, 신앙이 성장하여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하지만 군 교회를 나오는 장병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중간에 포기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심이 자라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대에 전입할 때 선임 따라 기독교를 갔습니다. 하지만 다니면서도 신앙심이 생기지는 않아서 이후 교회를 가지 않았고 무교가 되었습니다...(G병사)

입대 전에는 부모님이 기독교여서 교회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도 그랬고 군대 와서도 믿음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대생활하면서 믿는 것이 없어진 듯하였고 무교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H병사)

신앙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겠지만 은혜롭고 영감 있는 예배, 신앙의 기초를 성장하게 하는 신앙교육, 참여를 고무시키는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는 노력이 교회에 필요하다.

나. 주말에도 지속되는 임무

병사들은 소속 부대에 배치를 받고 난 후 모두 같은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 모두가 다 같은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주말에도 지속적인 일을 해야 하는 병사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주말 예배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아닌 무교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군대에 오면서 신교대에서 기독교를 갔는데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취사병 업무를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여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병사)

이동병, 일병 때에는 종교활동을 기독교로 잘 참석해 왔는데 상병 이후부터는 주말 당직을 서게 되면서 교회를 거의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교가 된 것 같습니다...(병사)

일명 격오지라고 할 수 있는 GOP근무, 경계근무 등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과 반복적으로 주말에도 역할을 해야 하는 병사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들을 위해 소초단위 예배 등을 활성화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사역자들도 적은 수의 이러한 병사들까지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다 할 수 있다.

다. 쉼의 필요

쉼을 얻기 위해 교회를 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쉼이 필요해서 교

회에 오지 않기도 한다. 주중에 지속된 훈련, 교육 등으로 병사들이 주말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쉬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관에서 쉬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교회를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게 된다.

어릴 때 부모님이 기독교여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중학 생부터는 내 의지에 따라 아무것도 안 다녔습니다. 그래도 군에 서는 기독교를 다녔지만 점차 잘 나가지 않았고 아무 종교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게으름인 듯합니다. 쉽고 싶은 마음이 커지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K병사)

입대할 때 기독교로 선택한 것은 부모님 기독교여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자대 생활하면서 쉬는 게 더 좋아서 종교활동을 가지 않습니다...(L병사)

이처럼 병사들이 기독교를 초기에는 선택하였으나 군 복무 가운데 여러 요인으로 인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기도 한다. 정책적으로 전략 수립이 가능한 것도 있으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적인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군복무 가운데 장병들의 종교가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는 군선교 전략을 세우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1공병여단 현역 장병 362명을 대상으로 종교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조사 시점은 병사가 소속부대로 전입해 온 이등병 시점과 6개월 단위로 일병, 상병, 병장 시점에 각

각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군생활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다.

그동안 군선교 전략은 시대에 따라 정책적으로 적절히 진행되어 왔으나 장병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한 연구로 정책을 제시한 전략은 미비하였다. 김성훈(2016)은 KEEP의 종단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따른 군선교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이 연구도 장병들의 종교 변화를 살펴볼 수는 없었다. 군선교 현장은 2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장병들이 종교의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적절한 대처와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교의 변화를 추적 조사하여 2년간의 데이터를 구성하였으며 종교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함께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두 가지 연구를 혼합연구로 진행하였다. 양적연구의 기술통계 분석을 통한 추세를 살펴 종교 변화를 확인하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장병들의 종교 변화와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장병들의 종교변화 혹은 유지를 하게 되는 이유를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의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무교를 유지하는 병사의 수와 기독교를 유지하는 병사의 수가 각각 157명, 99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하는 수와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는 수는 17명, 19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이들의 전체적인 수는 작을 수 있지만 이들에 의한 변화를 통해 전도의 가능 대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 즉, 어떻게 해서라도 종교를 바꾸지 않는 병사들은 157명이나 되

는 반면에 전체 조사 대상 362명 중에 36명 정도인 10%는 종교가 바뀌는 것임으로 이들에 대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많은 비율로 기독교를 유지 혹은 전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종교변화에 대한 설명요인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무교를 유지하는 집단과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하는 집단의 비교에서 소속부대의 기독교 비율, 소부대훈련이 각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비율이 높을수록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되며 훈련이 많을수록 무교를 유지하였다. 무교를 유지하는 집단과 기독교를 유지하는 집단은 절망감과 기독교 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절망감이 높은 병사일수록 기독교를 유지하였으며 기독교 비율이 높을수록 기독교를 유지할 확률을 높여준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유지 집단과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는 집단을 비교하면 자존감과 소부대훈련, 기독교 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자존감이 높고 소부대훈련이 강하고 많을수록 기독교에서 무교를 선택하게 되며 기독교 비율은 기독교를 유지할 확률을 높여준다.

셋째, 질적연구를 통해 살펴본 종교의 변화요인은 다음과 같다.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하게 되는 이유는 기독교를 갔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 긍정적 마음, 함께하기가 나타났다. 병사들은 큰 변화를 겪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기독교를 통해 발견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독교를 통한 긍정적인 마음의 함양이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였다. 그리고 동기, 선후임들과 함께 종교행사를 참석하는 것이 높았다. 즉, 군대는 공동체성을 함양시키는 조직인데 종교를 선택하는 면에서도 주변인들과 함

게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무교로 바뀌게 되는 이유는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다는 것, 주말에도 지속되는 임무, 섬의 필요로 볼 수 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고 주말에도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많은 병사들이 있는데 이들도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니지 못하게 되면서 종교를 바꾸게 되었다. 그리고 주중의 많은 일과들로 인해 지친 병사들이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화되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향후 군선교 전략에 대한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사료된다. 첫째, 종교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병사들에 대한 군선교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다. 무교를 유지하는 병사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무교에서 기독교 혹은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화되는 병사가 10% 정도 됨으로 이들에 대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군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더욱 신뢰성이 담보된 정보를 제공하며 한 부대의 조사로 종교변화의 가능성 정도를 진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조사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정보가 없이 추측하는 것보다는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2년간의 추적 조사를 통해 실제로 장병들의 변화를 분석한 것임으로 이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교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장병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이 우리 군선교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속부대의 기독교 비율에 따른 전략적 군선교 방향설정

이 필요하다.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는 장병들 소속부대의 기독교 비율이 높을수록 병사들이 기독교를 선택하거나 유지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질적연구에서도 동기 혹은 선후임 병사들과 함께하면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계속 다니게 됨으로 기독교 비율은 두 연구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에서 선샤인 정책의 필요성과 시사점이 제공된다. 선샤인 운동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 믿음을 갖도록 하는 전략인데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결과인 것이다. 즉, 동료를 따라 기독교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음으로 선샤인 정책이 성공적으로 장병들에게 자리 잡게 된다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독교 비율이 높은 중대 혹은 대대는 더욱 투자하여 기독교를 더욱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반대로 기독교 비율이 낮은 중대, 대대는 상대적으로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대도 포기하지 말고 선샤인 정책을 한명이라도 하게 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 비율이 높은 중·대대는 더욱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함께 한다면 분명 더 많은 장병들이 기독교를 선택하거나 신앙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개인의 심리에 대한 부분으로 자존감과 절망감의 영향을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자존감은 기독교를 유지 혹은 선택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절망감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젊은 병사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종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많은 연구에서 종교와 심리적인 요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⁶ 즉, 자존감이 높을수록 기독교가 아닌 무교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적응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심리적 안정감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지속되는 절망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종교적 치료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앙교육과 설교 등에서도 자존감을 마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하나님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것임을 제시해준다면 장병들은 더욱 기독교를 선택하고 유지하게 될 것이다.

넷째, 편안함과 긍정적 마음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질적연구를 통해서 장병들이 기독교를 선택하게 되는 요인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다른 곳에 있을 때보다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점은 중요한 전략 지점이다. 예배 자체가 주는 영적 편안함과 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편안함 등이 있을 것이다. 특히 군인 간부 신자들이 주는 인간적인 환대와 병사들 상호간에도 교회에서만은 서로 편안하게 대화하고 의견을 주고받

⁶ 서경환, 정성진과 구지현의 심리요인과 영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신앙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와는 부적상관을 보이고 자아존중감은 정적상관을 보여준다. 서경환, 정성진, 구지현, “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생활 스트레스, 우울, 및 자아존중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2005), 1077-1095. Donahue와 Benson(1995)의 연구에서는 영성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켜 친사회적행동을 일으키고 자살 등의 비행행동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 J. Donahue & P. L. Benson, “Religion and the well-being of adolescent” *Journal of Social Issue* 51 (1995), 145-160. 이들의 견해와는 달리 종교성은 정서적, 사회적 부적응을 낳는다는 종교의 부정적 영향을 주장하는 이도 있다. B. Hansberger, S. Alisat, S. M. Pancer & M. Pratt,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religious doubts: Content, consciousness and complexity of th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Psychology of Religion*, 6 (1996), 39-49. 이들의 연구에서와 같이 이러한 사회적 정서적 부적응을 탈피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이 반영되어 자존감이 높을수록 기독교를 유지 혹은 선택하지 않는 경향도 보이는 것이 확인된다.

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더욱 교회를 선택하거나 유지하는 병사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통해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을 함양하고 신앙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는 노력이 지속되는 것이 병사들의 기독교 선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훈련으로 인해 생기는 기독교의 이탈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군인에게 있어 교육훈련은 중요한 활동이다. 훈련을 통해서 실제 전투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기에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훈련이 강화될수록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고 무교로 주말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질적연구에서 나타난 쉼의 필요성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장병들이 주중의 과도한 훈련 이후에 주말에는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것을 선택하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훈련의 강화로 인해 주말에 쉼을 원하는 장병들을 위한 선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훈련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음으로 도리어 그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주말의 예배가 장병들의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배의 형식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 장병들이 강도 높은 훈련이 있는 주간에는 예배 시간의 조정, 장병들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는 전략, 예배의 틀을 더욱 편안히 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며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나오는 결과를 일반화를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연구대상자가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집단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 일부 부대에 한해서만 조사가 되었기 때

문에 표본집단이 전체성을 대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종단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년간의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연구 데이터의 질적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질적 자료 해석과정상의 한계점이 있다. 보조연구자가 필요하며, 자문 단계에서 질적 연구의 전문가에 의한 피드백이 필요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못했다.

셋째, 추후 연구를 위해 논자의 부족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전군 단위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이를테면 김성훈은 전국 단위의 데이터를 통해 병사들에 대한 군선교 정책전략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전국 단위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들지만 정책의 수립 및 방향성 설정을 위해 전군을 모집단으로 하는 표본을 획득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더불어서 조사도구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전군 단위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확보된 표준화된 조사도구를 통해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김성훈은 군종장교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표준화작업을 하였고 이를 통한 종단연구를 한 바 있는데, 향후 군선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준화 조사도구가 있으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때마다 기독교를 유지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105배 높았다.

Abstract

His research was carried out in order to propose a strategy towards the change in religion that occurs in the military and was carried out from July of 2014 to March of 2016 over 4 intervals with 362 soldiers as the subjects. The research period begins from when a soldier arrives to the base as a private first class and is carried out every 6 months for three more periods to cover other ranks such as specialist and sergeant as well. This was done in order to have an over all understanding on the flow of the military and the changes that occur during the flow. In the past, there have been researches that were carried out politically, but researches that have utilized real soldiers as the subject are very minimal. Especially on the topic of how the military missions are to approach the issue of religious change has been poorly done. Therefore, this research has traced down soldiers over a period of two years for the data and was analyzed along with the factors that have caused the religious changes.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as a mixture of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As the research result, soldiers who maintained non-religious status and Christian status formed the majority. A change from non-religious to Christianity or vice versa was rare bu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y too are research subjects, they require focus and follow up measures as well. Secondly, in terms

of quantitative research, the important factor in change from non-religious to Christianity turned out to be the percentage of Christian soldiers in that respective base and the amount of training being carried out. Thirdly, in terms of qualitative research, the important factor that brought the change from non-religious to Christianity turned out to be the comforting and optimistic environment along with the togetherness found inside the church. With the above research, a military mission strategy was proposed.

주제어(Key words):

군선교(Military Mission strategy)

종교변화(religion change)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혼합연구(Mixture analysis)

군 장병의 위기 대응방안으로서 신앙활성화에 관한 연구:
 임마누엘 접근(Immanuel Approach)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actice of Faith as Crisis Countermeasures
 for Military Personnel:
 Centering around an Application of Immanuel Approach

■ 황미선 Hwang, Mi Sun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기독교상담학)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목회상담학·석사)
- 단국대학교대학원(상담심리학·박사)
- 교육학박사·Ph.D./ 한양대학교병원 원목



I.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전쟁 및 극한 훈련, 격오지 근무 등 군 장병들이 겪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종교시설 중심으로부터 개인으로, 군종목사 중심으로부터 개별적 신앙을 갖도록 하고, 그것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른바 ‘임마누엘 접근’을 활용하여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인식을 통해 장병들이 극한 상황에 대처하고 극복하게

하며, 더 나아가 이렇게 형성된 신앙으로 낙심, 절망, 좌절, 자살 등의 비신앙적 생각과 행위를 스스로 억제 또는 제압하도록 하는 장병 신앙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한국군상담학회의 분석에 따르면, 군 장병의 문제는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한 문제가 있으며 역시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한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¹ 현상적으로 장병 문제의 원인이 다양한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신앙적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인식이 부족한 데서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자살의 경우,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의식은 두려움, 불안·공포 및 고립감, 무력감, 절망감 등을 극복하게 한다.² 그러므로 충분한 하나님 의식을 갖는 것이 결국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이며 성실근무의 자세가 되기도 하고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신념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임마누엘 접근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군 신앙의 특성, 둘째, 위기 대응방안으로서 장병의 개별적 신앙활성화(개별적 신앙활성화 개념, 군 상황에서 개별적 신앙의 필요성) 셋째, 임마누엘 접근의 적용 방안(임마누엘 접근의 정의와 개념, 임마누엘 접근의 효과성, 임마누엘 접근의 적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임마누엘 접근을 군의 특수상황에 적용하여 전시군 종활동 및 위기에 대처하는 군종활동 등에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시도로서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된 바가 없는 것이다. 이 연구

¹ 한국군상담학회, 『군상담의 이론과 실제』(서울: 은혜출판사, 2013), 22.

² 두려움(fear)은 불안, 공포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이며 광범위한 개념이다. 불안(anxiety)은 대상이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며, 공포(phobia)는 대상이 있는 구체적 두려움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 두려움은 '범불안장애'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군 상황에서 장병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과 공포를 포함한 전반적인 두려움을 의미한다.

에서 제시하는 임마누엘 접근이 장병들에게 적용되고 활성화됨으로써 전쟁 및 극한 훈련, 격오지 근무 등 장병들이 겪는 어려움과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하게 될 것이다.

II. 군 신앙의 특성

1. 성실근무와 용기

군은 국가수호를 위해 국가가 운용하는 전쟁대비 집단이다. 군의 위기상황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전쟁 및 극한 훈련, 격오지 근무 등이 있다. 위기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장병에게 요구하는 정신전력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철한 사생관이다.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의식은 장병에게 두려움, 불안-공포를 물리치고 불굴의 의지를 함양시키는 요인으로써 이는 담력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물론, 전투력 향상과 평시 성실 근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³ 훈련은 전투력 향상이 목표이며 그로 인해 어떤 위기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평시에 극한 상황에 노출되어 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기에 처한 장병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서적 지지는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⁴

특히 자살은 극도의 두려움, 불안-공포, 고립감, 무력감, 절망감 등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성이 상실된 행위이다.⁵ 따라서 두려움, 불안-

³ 박일, 고영건, “정신전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제25권 1집 (2012), 105-124.

⁴ Norman Wright, 『트라우마 상담법』, 금병달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15), 194.

⁵ Richard K. James & Burl E. Gilliland, *Crisis Intervention Strategies* (New York:

공포에 노출된 자나 자살의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심리정서적 안정성과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이 안정성은 그 어떤 것보다 거대한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이는 군에서 사고예방은 물론, 상관, 감시자 또는 관찰자가 없이 홀로 있더라도 신전의식(Coram Deo)을 갖고 장병들의 성실근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장병들이 전투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고립감, 무력감, 절망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공포 등으로 인해 절대적 존재, 힘 있는 존재를 떠올리게 된다. 수세기 동안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장병들이 겪는 극도의 두려움, 불안-공포 상황에서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⁶

데이브 그로스맨(Dave Grossman)과 로렌 크리스텐센(Loren W. Christensen)은 전투상황에서 장병들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긍정적 독백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⁷ 즉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Brooks/Cole, 2013), 214. J. A. Ciles와 K. D. Strosahl에 의하면, 두려움, 불안-공포는 세 가지 ‘불가능’(the three I’s)으로 인식된, ‘피할 수 없고’(Inescapable), ‘견딜 수 없고’(Intolerable), ‘멈출 수 없는’(Interminable)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J. A. Ciles & K. D. Strosahl, *The Suicidal Patient: Principles of Assessment, Treatment & Case Manage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1995), 74. John Ortberg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the wintry spirituality’(겨울의 영성)이라고 비유하였다. 한겨울에 들뜬에서 부는 바람 앞에 홀로 서 있는 정서가 바로 고립감, 무력감, 절망감으로서 이 위기의 바람과 추위를 피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기이다.

⁶ Dave Grossman & Loren W. Christensen, 『전투의 심리학』, 박수민 역 (서울: 열린책들, 2013), 179. 죽음학자 Kubler-Ross는 인간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타협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Elisabeth Kubler-Ross, *On Death & Dying*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69).

⁷ Grossman & Christensen, *Ibid.*, 180. cf. Charles Remsburg, *The Tactical Edge: Surviving High-risk Patrol* (Northbrook, IL: Calibre Press, 1986).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잘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긍정적 독백은 두려움, 불안-공포를 감소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고립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지이고, 정신활동이며 신앙 그 자체라고 보았다.

전투가 장병들에게 극도의 두려움, 불안-공포 상황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장병들이 전투 시 악몽을 꾀는 데서 확인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그로스맨과 크리스텐센은 이를 ‘보편적 악몽’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전시에 매우 흔히 나타나는 일로 이해했고, 이런 악몽을 ‘수행 불안 꿈’(performance anxiety dream)이라고 했다.⁸ 이런 악몽은 단순히 두려운 꿈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전투임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행위융합적 기제라고 볼 수 있다. 장병들이 군에 소속되어 있는 한, 전투와 같은 상황은 늘 존재하는데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두려움, 불안-공포는 사실상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적과 직면하기 전에 이미 두려움, 불안-공포에 압도당하여 전투수행의지 자체를 상실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이 장병들의 두려움, 불안-공포를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종 병과를 수립했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⁹ 군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상황과 심리적 고통을 신앙과 정신력으로 감내하고 극복해 내야 한다는 것은 주로 영적, 종교적 지도자들

⁸ Grossman & Christensen, *op. cit.*, 270.

⁹ 우리나라 군종제도의 태동 배경도 전시 장병의 두려움, 불안-공포를 해소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한국전쟁 중 미군 제33사단 10공병대대에 근무하는 한 카투사(KATUSA) 병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성직자가 군에 들어와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에 신앙의 첩판으로 무장시키고 기도로써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진정서를 올린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1951년 2월 7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31호에 의거 군종제도가 수립되었다. 육군본부, 『군종 50년사』(미간행: 육군본부, 2003), 68-70.

에 의해서 다루어져 왔다.¹⁰

2. 전시 군중활동

전쟁 및 극한 훈련, 격오지 근무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지 못하여 심신장애를 일으키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신앙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군종목사의 임무이며 군중활동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신앙생활로 장병의 심리정서적 안정성을 갖도록 하는 자체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지만,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군종목회의 필수적인 역할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앞서 군종제도를 설립, 운용해 온 유럽과 북미 국가들도 모두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을 통해 장병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종제도가 수립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통해 두려움, 불안-공포를 극복하고 그로써 강력한 무형의 정신전력화가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가치와 효과를 인정하여 군종제도를 수립한 것이다.¹¹

윌리엄 샤아벨은 그의 저서 『신앙과 전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군종목사의 신앙전력화 활동이 장병들에게 큰 힘을 발휘했다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1939년 생사를 예측할 수 없는 위태로운 전장에서 장병들이 군종목사로부터 간절한 기도를 받고 두려움, 불안-공포를 극복하며 담대히 출정한 사례들과 전투피로에 시달린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종목사의 기도가 심리적 안정과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다.¹² 한국군 특수전사령부의

¹⁰ Marsha M. Linehan,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를 위한 다이어렉티컬 행동치료』, 조용범 역 (서울: 학지사, 2007), 257.

¹¹ Doris L. Bergen, (ed.), *The Sword of the Lord*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2004), 1.

¹² 윌리엄 샤아벨, 『신앙과 전장』, 임선선 역 (서울: 세종출판공사, 1974), 57-58, 181-182.

공수훈련에서 군종목사가 장병들과 함께 극한 훈련에 동참하고 강하 전 기도로 두려움, 불안-공포를 제거하여 주는 역할을 했다는 내용은 특이한 것이 아니다.¹³ 사실, 두려움, 불안-공포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⁴ 따라서 두려움, 불안-공포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첩경(short cut)이 아닐 수 없다. 찰스 스탠리(Charles Stanley)도 이유가 무엇이든 심리정서적 고통은 인간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든다고 분석했다.¹⁵

전쟁대비집단으로서 군의 특성이 반영된 군종활동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은 군종활동의 명제이다. 하지만 위기상황에서 소수에 불과한 군종목사의 목회적 지원을 다수의 장병들이 충분히 지원받는데는 한계가 있다. 전쟁 및 극한 훈련, 격오지 근무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시설 중심의 신앙생활은 당연히 제약을 받게 되며, 군종목사는 방문 중심으로 군종활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¹⁶ 평

¹³ 김종택 외, 『군선교 현장에서 군목의 역할』 (서울: 쿼란출판사, 2007), 24.

¹⁴ Lawrence Crabb,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김성녀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0), 191.

¹⁵ Charles Stanley, 『크리스찬 감정수업』, 김진선 역 (서울: 아드폰테스, 2015), 50.

¹⁶ 미군의 경우,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경험한 장병들 가운데 부대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지원을 받는 경우는 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Scott T. Meier & Susan R. Davis, 『상담의 디딤돌』, 유성경, 이동렬 공역 (서울: 학지사, 2015), 125. 이처럼 상담지원을 받는 장병이 적은 이유는 상담을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용사가 되지 못한 자신의 나약함을 노출시킨 것으로 이해하며, ‘문제 장병’이라는 낙인, 그리고 상담 받을 가용 시간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주한 미8군 군종참모 Thomas Wheatley 대령은 군종의 핵심 역할로 예배나 성례(세례, 성찬) 등을 통한 ‘양육’과 전사 훈련 도중 발생한 심신 환자들의 ‘돌봄’ 그리고 전사자들을 위한 장례 추모 등 ‘위로’ 활동이라고 했는데 이는 한국군 군종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미군과 한국군 군종활동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국민일보』 2014. 10. 20. 군종제도가 이미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도 비교적 개방적인 문화를 가진 미국의 상황도 이러한데 한국군이라 하여 그 현실이 다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한국군의 경우는 더 심할 수도 있다.

시 주일은 휴일로서 규정에 따라 응당히 쉬고 종교활동을 보장받지만 위기발생 시 성수주일을 못하거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과거 국방부에서는 이른바 ‘전투요일’이라 하여 사회와 상이한 요일을 군에 적용하는 복무지침을 하달한 바 있었다. 이는 한국전쟁이 일요일(1950. 6.25)에 발발했던 것을 참작하여 민간 요일과는 상이한 요일을 적용한 것이다. 전투요일 제도는 논란을 야기하여 결국 폐지되었으나 그 의도는 전쟁 대비 집단으로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요일 개념 없는 전투 태세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 한국전쟁이나 월남전, 이라크전, 걸프전 등을 살펴볼 때 전시에는 다양한 제약요소로 인해 종교활동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Ⅲ. 위기 대응방안으로서 장병의 개별적 신앙활성화

1. 개별적 신앙활성화 개념

구원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라는 면에서 신앙은 그 자체가 개인적이며 개별적이다. 군 상황에서는 다른 상황에서 보다 신자들에게 더 목회 돌봄이 세세하게 지원되어야 할 장(field)이며, 장병 입장에서 볼 때, 신앙의 상당부분이 군종목사에게 의존적인 구조이다. 하지만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신자들에게 신앙의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¹⁷ ‘개별’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는 ‘하나씩 따로 떨어진 것’이라는 의미이다.¹⁸ 그렇다면 ‘개별적’(individual)이란 전쟁 및 극한 훈련, 격오지 근무 등 다양한 위기상황

17 Stovall Weems,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인생』, 민소란 역 (서울: 규장, 2015), 147.

18 이기문 감수,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두산, 1999), 602.

에서 군종목사에게만 ‘의존적인’(dependent)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독자적인 신앙을 활성화하는 상태를 표현한 용어가 될 것이다. 즉, 개별적 신앙은 위기상황에서 장병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임재를 의식, 묵상,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으로서 이는 궁극적으로 신앙교육 및 양육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는 평시에 신앙적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전시 등 위기상황에서는 개별적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다. 개별적 신앙이란 교회와 유리된 신앙이거나 ‘모이기를 폐하는’(히 10: 25) 무교회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설 중심의 종교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위기상황에 장병이 스스로 대처하는 신앙적 방안이다. 근래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른바 ‘나 홀로 신앙’과 여기서 추구하는 ‘개별적 신앙’은 다른 것이다. 이는 장병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전투에 임해야 하는 ‘각개 전투’(各個 戰鬪: individual battle)와 버금가는 개념이다. 각개 전투는 특수상황에서 화력지원 없이, 적과 맞닥뜨렸을 개인이 평시에 같고 닮은 전투의지와 총검술 등의 훈련으로 형성된 근육기억을 되살려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군은 일반상황과는 매우 달라 장병이 전쟁, 훈련, 특수근무 등 위기, 고립상황에서는 개별적 신앙을 갖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2. 군 상황에서 개별적 신앙의 필요성

인간이 독자적인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¹⁹ 더욱이 신앙에 있어서 구원은 개별적으로 얻게

¹⁹ Glen O. Gabbard, *Psycho-dynamic Psychiatry in Clinical Practice* (Washingto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82.

되지만 신앙생활의 과정은 개별적이 아니라, 집합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충분한 집합적 신앙으로부터 충분한 개별적 신앙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자들이 함께 모여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봉사하는 필수적인 과정 이후에 독자적이고도 개별적인 신앙이 확립될 수 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이다. 장성한 신앙인의 신앙적 분화(differentiation)가 개별적 신앙일 수 있다.²⁰ 이를테면 양육 받던 상태에서 양육하는 상태로, 봉사 받던 상태에서 봉사를 베푸는 상태로, 전도 받은 상태에서 전도하는 상태로, 기도 받았던 상태에서 기도하는 개별적 신앙상태는 성숙의 결과다. 신앙은 양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지만, 군에서 장병으로 하여금 그런 '장성한' '성숙한' '온전한' 제자를 만드는 데는 시공간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만이라도 의식, 묵상, 고백하고, 확신함으로써 두려움, 불안-공포에 대처하여 독자적이며 개별적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IV. 임마누엘 접근의 적용 방안

1. 임마누엘 접근의 정의와 개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마누엘'(Immanuel)이라고 한다. 이는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된 용어이다. 임마누엘은 영어의 전치사 with(…과 함께)와 동일한 개념의 히브리어 '임'(im)과 1인칭 복수 '우리'를 의미하는 '마누'(manu)가 붙어서 '임

²⁰ Juan C. Ortiz, 『제자입니까?』, 두란노서원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05), 149.

마누(immanu), 즉 ‘우리과 함께’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이름인 ‘엘’(el) 이 합성된 복합어이다.²¹ 즉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과 함께’라는 뜻으로 히브리어에서는 굳이 동사 없이도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다.²²

신약성경에 ‘임마누엘’이 최초로 표기된 마태복음에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인류의 구원을 실현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재하여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²³ 임마누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요 1: 14) 성육신을 통해 신약시대에 성취된 약속으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우리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치료적 개념으로 기독교상담에 처음 도입한 학자는 제임스 와일더(James Wilder)이다.²⁴ 와일더는 1970년에 ‘임마누엘 중재’(immanuel approach)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²⁵ 이는 정신의학자 제임스 프리센(James G. Friesen)이 개발한 전인치유 프로그램에 이 개념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본디 임마누엘 중재가 상담 및 심리치료

²¹ Francis Brown, *A Hebrew &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Peabody: Hendrickson, 1979), 767-769.

²² John D. Watts, 『WBC 성경주석』, 강철성 역 (서울: 솔로몬출판사, 2002), 213.

²³ Donald A. Hagner, 『WBC 성경주석, 마태복음』,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출판사, 2002), 112.

²⁴ James E. Wilder & Chris M. Coursey, *Share Immanuel: The Healing Life Style* (Pasadena: Shepherd's House, 2010), 1.

²⁵ 임마누엘 접근은 다른 용어로 ‘임마누엘 중재’(intervention) 또는 ‘임마누엘 치료’(therapy)라고도 불리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중재’나 ‘치료’라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중재의 개념 속에 있는 어감(nuance)과 ‘치료’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 가운데 심리적 이상(abnormal)을 겪는 일부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전문적인 활동이라는 다소 부정적이고 편협적인 개념을 피하고자 하였다.

에 활용될 때는 내담자의 심리적 외상(trauma) 회복을 위해 고통을 치료하는 기법이였다. 하지만 그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개인이 겪는 위기나 두려움, 불안-공포 등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의식, 묵상, 고백하고, 확신함으로써 위기나 극한 상황에서도 개인이 담대하게 문제를 극복하고, 치유, 회복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²⁶

1994년에 미국의 뇌 신경학자 알렌 쇼어(Allen N. Schore)에 의해서 뇌 연구를 통해 임마누엘 접근은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정신과 전문의 칼 레흐만(Karl D. Lehman)이 임마누엘 접근의 효과를 체계화, 구체화하였다. 이것은 비생물학적 하나님이 생물학적 인간의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한 획기적인 연구였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현존 임재의식은 영적 생활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²⁷

또한 임마누엘 접근은 ‘Theophostic therapy’(테오포스틱 테라피)와 상당히 유사한 개념으로서 이것은 1990년대 중반에 레흐만이 에드워드 스미스(Edward D. Smith)와 함께 개발하여 신조어를 상표등록까지 한 단어가 되었다.²⁸ Theophostic은 우리말로 용어화하기는 어려

²⁶ James G. Friesen, James E. Wilder & Anne M. Bierling, *Living from the Heart Jesus Gave You* (Pasadena: Shepherd's House, 1999), 7-8.

²⁷ William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New York: Penguin Books, 1985), 274. cf. Vicky Genia, 『영적 발달과 심리치료』, 김병오 역 (서울: 대서출판사, 2010), 212.

²⁸ 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헬라어 ‘θεος’(theo)와 ‘빛’을 뜻하는 ‘φως’(phos)를 합성하여 영어의 형용사 어미 -tic 붙여 만든 신조어이다. 그 뜻은 ‘하나님의 빛으로 치료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서술적 표현으로 하여 묵회와 신학에서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근래 합성어로서 theophostic therapy(치료), ~ministry(묵회), ~counseling(상담), ~prayer(기도), ~healing(치유), ~training(훈련), ~solution(해결) 등의 단어들과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이 용어의 사용빈도가 높아 신조어 수준을 벗어난 듯하다.

우며 음역하여 ‘데오파스틱’이라고 부른다. 그 뜻은 ‘하나님의 빛’인데, 심리적 외상이나 위기 및 극도의 심리적 고립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우울, 자살 등 암울한 사고, 거짓 신념이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의 빛으로써 치유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²⁹ 이것은 하나님이 현재의 위기 및 두려움, 불안-공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함으로써 얻는 심리적 안정과 치료적 효과이다.³⁰

데이비드 벤너(David G. Benner)는 ‘kataphatic’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여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³¹ 이 단어는 신자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상상(imagination)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에 대하여 묵상을 통한 확신으로 마음속에 두려움, 불안-공포 등 비신앙적인 생각들을 물리치는 개념이다.³² 하나님은 지식적인 앎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심리정서적, 정신적, 영적으로 느끼고 체험해야 하는 존재이므로 이런 접근은 신앙에 상당한 유익을 준다는 것을 벤너는 강조했다.

레흐만도 2004년 이후부터 위기를 겪는 사람이 자신의 심리적 외상, 고립, 무력, 절망, 두려움, 불안-공포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 묵상,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상

²⁹ Edward M. Smith, *Healing Life's Deepest Hurts: Let the Light of Christ Dispel the Darkness in Your Soul* (Ann Arbor, MI: New Creation Publishing, 2002), 13.

³⁰ S. Brandon, J. Boakes, D. Glaser, R. Green, R. J. MacKeith & P. Whewell, P., “Reported Recovered Memories of Child Sexual Abuse: Recommendations for Good Practice & Implications for Training,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 Research,” *Psychiatric Bulletin* 21(10) (1997), 663-665.

³¹ David G. Benner, 『정신치료와 영적 탐구』, 이만홍, 강현숙 공역 (서울: 하나의학사, 2000), 113-115.

³² Brandon et al., “Reported Recovered Memories of Child Sexual Abuse,” 663-665.

황을 극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³³ 데오파스틱은 임마누엘 접근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데오파스틱보다 임마누엘 접근은 빠른 심리정서적 안정감과 치유를 경험하게 한다.³⁴ 또한 데오파스틱이 과거 고통의 기억에 치료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³⁵ 임마누엘 접근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경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정신적, 영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³⁶

2. 임마누엘 접근의 효과성

1) 새로운 애착관계 형성으로서 임마누엘

대부분의 아동은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아버지’를 외치면서 도움을 요청한다. 이는 장병을 포함하여 성인에게서도 나타나는 원시적 형태로 두려움, 불안-공포 및 고립감, 무력감, 절망감 등의 상황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심리이다.

임마누엘 접근은 애착이론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애착에 대한

³³ “Brain Science, Emotional Trauma & The God Who is with Us, Part I,” 8 (2016. 6. 12) <www.kclehman.com/Lehman>.

³⁴ “Immanuel Emotion Healing & Capacity, Part I,” 5-6 (2016. 6. 12) <www.kclehman.com/Lehman>.

³⁵ 개인의 심리적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 과거 충격적인 사건을 의식적으로 낱알이 기억해 낼 필요는 없다. 그것을 상기하지 않고도 의미 재구성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억과 치유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기억의 회상은 증세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Peter A. Levine, 『몸과 마음을 잇는 트라우마 치유』, 서주희 역 (서울: 학지사, 2014), 54.

³⁶ Wilder & Coursey, *Share Immanuel*, 3. 통상 인간의 시각은 150도 정도이지만 화재나 사고 등으로 당황하게 되며 50도로 축소되는데 이를 심리학에서는 ‘tunnel vision effect’라고 한다. 마치 터널 속에서 밖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비유한다. 그와 같이 전투 등 극한 상황과 위기에 처하게 되면 심리정서적, 정신적, 영적으로도 두렵고 당황하여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사실을 의식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쉽거나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임마누엘의 사실 자체를 확신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정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핵심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임마누엘 접근의 설득력은 약화된다. 토니 화이트(Tony White)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의 중요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화이트는 전혀 애착이 없는 사람은 심리정서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악화되어 자살시도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³⁷ 영유아기에 양육자와 맺는 애착유형이 성인기를 비롯하여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애착이론이 주장하는 핵심내용이다. 즉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경우에는 성인기에도 안정성을 보이지만,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경우에는 성인기에도 두려움, 불안-공포, 고립감, 무력감, 절망감의 정서에 노출된다고 보는 것이 전형적인 애착이론이다.³⁸

존 보울비(John Bowlby)에 의하면 양육기(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등에 아버지로부터 분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미지를 바르게 형성하지 못하고,³⁹ 이렇게 형성된 아버지와의 부정적 애착은 ‘결함 있는 아버지’(defected father) ‘죽은 아버지 증후군’(dead father syndrome)으로 각인된다고 보았다.⁴⁰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렇게 손상된 아버지 상을 결국 두려움, 불안-공포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이른바 ‘일치가설’이라고 하는데 실존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일치성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따

³⁷ Tony White, 『자살상담과 치료』,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역 (서울: 학지사, 2013), 172.

³⁸ 한국상담학회, 『인간발달과 상담』 (서울: 학지사, 2013), 227.

³⁹ John Bowlby,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1969), 256-257. cf. Paul Vitz, 『무신론의 심리학』, 김요한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43.

⁴⁰ John Bowlby,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73), 34-35.

라서 일치가설은 아버지 부재(결여, 결핍)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명백하게 형성되지 않고, 임마누엘에 대한 인식도 명확하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제약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일치가설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버지관이 투철해야 신앙도 견고해진다고 피력한다.⁴¹ 공교롭게도 현상적으로 볼 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자들이 무신론자가 되기 쉽고 신론을 갖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일치가설의 이론이 설득력 있게 주장되어 왔었다.⁴² 하지만 소위 '보상가설'은 부모와 안정애착을 확립하는 데 실패한 사람이 애착 대체인물을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애착의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⁴³ 이 가설은 성장과정에 부모로부터 애착의 좌절 및 결여, 결핍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성인이 되어 결핍된 아버지 관계를 보상받으려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인식과 확신을 통해 결국 훌륭한 신앙을 형성하게 된다는 분석이다.⁴⁴

리 커크패트릭(Lee A. Kirkpatrick)과 필립 셰이버(Phillip R. Shaver)는

⁴¹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Paul Vitz는 그의 저서 *Faith of the Fatherless: The Psychology of Atheism* 『아버지 부재의 신앙: 무신론자의 심리학』에서 지난 4세기에 걸쳐 50명의 저명한 무신론자들과 유신론자들의 전기적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Vitz의 연구는 유신론자들이 좋은 아버지 또는 좋은 아버지의 대리인을 가진 반면, 무신론자들은 아버지의 부재, 나약하거나 나쁜 아버지, 결여되거나 결함 있는 아버지를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Vitz의 발견은 아버지 이미지가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되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Vitz, *Faith of the Fatherless*, 36, 39.

⁴² Vitz, *Faith of the Fatherless*, 138.

⁴³ Mary S. Anisworth, "Attachments Across the Life Span,"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61/9 (1985), 792-812.

⁴⁴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Mother- infant Attachment Security: Result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 (1997), 860-879.

보상가설을 주장하면서 부모의 죽음이나 질병, 이혼, 별거 등과 같은 주요 부성부재 사건으로 인해 자녀가 부모와 안정애착이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애착관계 형성을 통해 심리정서적, 정신적, 영적으로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⁴⁵ 이들은 불안정애착을 형성하고 성장한 성인의 경우에 결여, 결핍된 애착욕구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인식과 확신을 통해 보충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임마누엘 접근은 종래의 애착이론을 무색하게 할 만큼 두려움, 불안-공포 상황에서도 안정적 극복은 물론 건전한 하나님 이미지 형성과 그 효과성을 입증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접근은 불안정애착을 가진 사람들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임마누엘 접근을 통한 두려움, 불안-공포의 극복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생적 급박한 전투상황 및 극한 훈련, 격오지 근무 등에서의 고립감, 무력감, 절망감 또는 자살의 의도도 역시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전쟁대비집단으로서 군이 항시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명제를 반영한 군중활동은 전투군중활동이어야 하며, 신앙유형도 전투태세에 걸맞는 신앙을 수립해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앙요소라는 것은 예배, 기도, 말씀, 설교, 세례와 성찬, 금식, 상담, 심방, 찬양, 봉사, 묵상 등 많은 것들이 있다. 이것을 일컬어 ‘은혜의 방편’(means of grace)이라고 한다.⁴⁶ 은혜의 방편은 하

⁴⁵ Lee A, Kirkpatrick & Phillip R, Shaver, “An Attachment-theoretical Approach to Romantic Love and Religious Belie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1992), 266-275.

⁴⁶ 로마 가톨릭교회는 은혜의 방편을 세례, 견진, 성체, 고백, 신품, 혼배, 종부성사 7가지로 이해했다.

나눔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통로이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수단을 의미한다. 장병들은 위기에 노출되어 신앙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 이 모든 은혜의 방편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전투 및 극한 훈련 중에는 일부 핵심적인 신앙 활동만을 할 수밖에 없다. 위기에 스스로 대처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개별적 신앙을 갖는 것이 군 상황에 적합한 신앙형태가 될 것이다.

대개 두려움, 불안-공포는 홀로 남겨지는 고립감,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좌절의 심리에서 발생하며 이것은 절망과 연결되어 있다.⁴⁷ 두려움, 불안-공포는 나아가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거나 자살을 부추기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⁴⁸ 이런 부정적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신앙적 견고함(stability)과 강인성(hardness)이다. 신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견고하며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⁴⁹ 이 견고함과 강인성은 특히 위기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으로서 장병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전투, 재해, 고립, 무력, 절망, 고독, 만행, 유혹, 질병 등에 직면해서도 침착하고 단호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앙적 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병들이 자신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할 때 심리정서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⁵⁰ 내면의 감정상태

47 Gary Thomas, 『일상 영성』, 윤종석 역 (서울: CUP, 2015), 281-282.

48 Tony White, 『자살상담과 치료』,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역 (서울: 학지사, 2013), 172. 허혜경, 김혜수, 『청년심리와 교육』 (서울: 학지사, 2015), 347을 참고.

49 Thomas, *The Glorious Pursuit*, 280.

50 *Ibid.*.

및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의도적이며,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마누엘 접근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거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인식 자체는 삶의 위기를 극복할 자원이기 때문이다.

페리 노블(Perry Noble)은 다니엘 3: 24-25의 내용을 주석하면서 인생의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으로 위기를 극복한 다니엘의 사례를 설명했다.⁵¹ 텔아비브(Tel-Aviv)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술라미드 크리틀러(Shulamith Kreitler)는 두려움, 불안-공포는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인지,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⁵² 이럴 때 자기 스스로 이를 극복해 내려는 상상과 반복된 암시만으로도 얼마든지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것을 프랑스의 심리치료사 에밀 쿠에(Emile Coue)는 피력했다.⁵³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두려움, 불안-공포를 덜 느끼라고 명령할 수는 없고, 고작 상상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 불안-공포 그 자체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실체에게 압도당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접근이다.⁵⁴

이것을 웨스트민스트신학교 데이비드 포울리슨(David Powlison)은 ‘the personal God’(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 이 용어는 내용적으로 임마누엘 접근과 유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하

⁵¹ Perry Noble,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정성목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14), 126.

⁵² Shulamith Kreitler, “The Dynamics of Fear & Anxiety,” in Paul L. Gower, (ed.), *Psychology of Fear* (New York: Nova Science Publishers, 2004), 1.

⁵³ Emile Coue, 『자기 암시』, 최준서 역 (서울: 하늘아래, 2006), 14-15.

⁵⁴ Michael Frost & Alan Hirsch,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김선일 역 (서울: SFC출판사, 2015), 136.

나님' 개념은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기상황에 개별적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 두려움, 불안-공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⁵⁵ 이에 대해 폴 존슨(Paul Johnson)은 그의 저서에서 임마누엘 인식 자체를 넘어 이것을 고백할 때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⁵⁶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 묵상, 고백하고, 확신함으로써 심리정서적, 정신적, 영적 도움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말콤 지브스(Malcome Jeeves)는 그의 저서에서 루이스 스메데스(Lewis Smedes)의 고백을 소개했다. 스메데스는 “내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이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떨어져 나가도록 놔두지 않겠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붙들어 주리라.’” 스메데스는 그 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확신함으로써 그동안 신경증에 시달렸던 상태에서 회복되었다는 내용이다.⁵⁷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지치료’(supportive therapy)라 하여 두려움, 불안-공포 및 위기에 처한 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다.⁵⁸

3) 명상과 차별성

리처드 제임스(Richard K. James)와 벌 길리랜드(Burl E. Gilliland)는

⁵⁵ David Powlison, “The Personal God,”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vol. 28 no 2 (2014), 2-8.

⁵⁶ Paul E. Johnson, *Psychology of Pastoral Care* (New York: Abingdon, 1986), 103-128.

⁵⁷ Malcome Jeeves, *Minds, Brains, Souls & Gods: A Conversation on Faith, Psychology & Neuroscienc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67-168.

⁵⁸ Peter N. Novalis, Stephen J. Rojewicz & Roger Peele., 『지지 정신치료』, 박민철 역 (서울: 하나의학사, 1997), 25, 28, 211-212.

두려움, 불안-공포를 경감하기 위하여 명상이 몸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고, 정신적 이미지에 집중함으로써 감정이나 행동 조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⁵⁹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없이 자신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명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므로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의적인 상상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으므로 누구라도 자신의 통제하에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과도한 상상을 하게 되면 신경증(psycho-neurosis), 정신증(psychosis)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성경에는 악한 상상, 허망한 상상 등에 대해서 경고한 바 있다(롬 1: 21).⁶⁰

명상에서는 사람이 잡념 및 두려움, 불안-공포, 고립, 무력, 절망 등을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다.⁶¹ 아놀드 민텔(Arnold Mindell)은 명상과 심리치료를 연결시켜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명상 중에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며 초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일은 어느 시대나 명상의 중심적인 문제로서 명상하는 사람의 최대 문제는 마음의 동요, 잡념, 유혹, 공상 등이다. 잡념이 생기면 명상이 방해받기 때문에 이를 바로 처리, 해소해야 하지만, 설령 다른 곳으로 주의를 집중시킨다 할지라도 잡념이 없어지지 않고, 다만 의도적 회피로 인해 은폐되어 있을 뿐이다.⁶² 정신의학자 디모디 제닝스(Timothy R. Jennings)는 명상을 통해서서는 인위적 도취감을 얻게 되고, 현실세계

⁵⁹ James & Gilliland, *Crisis Intervention Strategies*, 149.

⁶⁰ Ortiz, *op. cit.*, 63.

⁶¹ Arnold Mindell, 『명상과 심리치료의 만남』, 정인석 역 (서울: 학지사, 2011), 131.

⁶² Mindell, *Working on Yourself Alone*, 38.

로부터 단절, 괴리가 나타나며 자신의 성품에 존재하는 두려움, 불안-공포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분석했다.⁶³ 명상이 지나치면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기증오, 자기비판, 부정적 사고에 직면하게 되고,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에 기울이게 된다.⁶⁴ 또한 명상은 뇌의 알파(α)파와 세타(δ)파의 빈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는 우뇌의 지배력이 커지므로 좌우뇌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자의식을 잃게 하고, 환상을 만들어내며 이성과 분별력을 떨어뜨리게 한다.⁶⁵ 이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케네스 웰치(Kenneth L. Welch)와 도날드 비어(Donald B. Beere)에 의하면 심리적 안정을 위한 뇌의 양측활성화 가설을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개 심리적 외상을 겪은 사람들의 명상은 대뇌 좌우반구에 분열을 가져와 우뇌에는 의도하지 않은 환상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좌뇌는 지나친 경계나 공격성이 드러나는 등 좌우반구를 연결하는 중재기능이 붕괴된다고 분석했다.⁶⁶

1990년부터 레흐만은 정신의학자로서 심리적 외상장애자를 대상으로 동양적 명상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해 보았으나, 치료대상자 중 5%만 효과가 나타났고, 95%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했다.⁶⁷ 그러나 레흐만은 좌우뇌를 균형있게 촉진하는 방법을 활용했을 때 치료효과가 25%로 증가는 되었다고 보고했다.⁶⁸ 묵상은 좌우뇌의

⁶³ Timothy R. Jennings, 『뇌』, 윤종석 역 (서울: CUP, 2015), 306.

⁶⁴ Mindell, *Working on Yourself Alone*, 103.

⁶⁵ Jennings, *The God Shaped Brain*, 306.

⁶⁶ Francis Shapiro, "Efficacy of the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Procedure in the Treatment of Traumatic Memori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 (1995): 31-32.

⁶⁷ "Brain Science, Emotional Trauma & The God Who is with Us, Part I," 2-3 (2016, 6, 13) <www.kclehman.com/Lehman>.

⁶⁸ Lehman이 사용한 방법은 '안구운동 민감소실 재처리요법'(eye movement desensitization & reprocessing: EMDR)이다. Francine Shapiro, "EMDR 12 Years

교량역할을 하는 뇌량을 활성화시켜 심리적 안정과 평안을 얻게 한다.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는 58번 정도 언급되는 이는 하나님과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이다.⁶⁹ 상상(fantasy)이나 심상법(imagery)은 감정을 편안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⁷⁰ 두려움, 불안-공포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기독교묵상과 명상을 구분 짓는 가장 분명한 임계적 개념은 비우는가, 채우는가이다. 명상은 마음을 비우기 위한 노력인 반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를 ‘apophatic’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여 비우는(emptying) 노력을 추구하는 심리치료 기법이 있다.⁷¹ 명상은 고통에서 해방되려는 도피, 회피이며, 무의 상태에 이르러자 하는 것이다.⁷² 비움을 목표로 하는 명상은 기독교묵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바람직한 기독교영성도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정신이 텅 빈 상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심리는 비어 있으면 만족을 위해 뭔가를 추구하고 보충하려는 성향이 있으므로 명상으로 텅 빈 마음을 갖는 것이 심리적인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⁷³ 기독교묵상은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인격적 만남을 갖는 것이다. 명상을 위해서는 가장 편안하고 주의산만을 피하는

after Its Introduction: Past & Future Research,” *Journal of Clinic Psychology* 58 (2002), 1-22.

⁶⁹ Ortiz, *op. cit.*, 48.

⁷⁰ Leigh McCullough, Nat Kuhn, Stuart Andrews, Amelia Kaplan & Jonathan Wolf, 『감정 공포 치료-단기역동정신치료』, 유성경, 하정, 이문희 공역 (서울: 학지사, 2015), 259.

⁷¹ Benner, *Psychotherapy & the Spiritual Quest*, 113.

⁷² Ortiz, *Ibid.*, 55, 58.

⁷³ Lawrence Crabb, *Understanding People* (Grand Rapids: Zondervan, 1987), 106.

자세를 갖도록 요구한다.⁷⁴ 명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아닌 전시 포화 속에서 또는 극한 훈련상황에서는 명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 묵상,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이 반드시 길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⁷⁵ 언제, 어떤 상황하에서도 임마누엘 접근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3. 임마누엘 접근의 적용: 플래시 카드 제작

임마누엘 접근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 10/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 43: 2 등이 적힌 명함 두 배 크기의 플래시 카드(flash card)를 제작하여 장병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한 달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반복하여 묵상하고, 암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플래시 카드 방법은 영 와텐메이커(Young D. Wattenmaker) 부부가 1995년에 개발한 인지행동치료 기법으로 인지 왜곡 및 비합리적 신념 또는 역기능적 사고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활용기법이다.⁷⁶ 즉, 불안증에 노출된 신경증 환자에게 상담자가 “나는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안해서 얻을 것이 없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나는 불안에 압도당하지 않을 것

⁷⁴ Ortiz, *Ibid.*, 66.

⁷⁵ Ortiz, *Ibid.*, 166.

⁷⁶ Jeffrey E. Young, 『성격장애의 인지치료』, 문성원 역 (서울: 하나의학사, 2005), 9.

이야!”라는 등의 문구를 플래시 카드로 제작하여 불안할 때마다 반복해서 읽도록 함으로써 치료하는 기법으로 그 방법 자체는 이미 효과가 입증된 것이다. 플래시 카드는 장병들이 성경전서를 읽기가 어렵고,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구절을 찾아내기도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구절에 대한 본래적 의미와 주석적 개념을 알 수 없으므로 이는 (사)한국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에서 구절을 선정하고, 주석하거나 간증 등을 엄선하여 수록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⁷⁷ 임마누엘을 묵상하도록 하는 성경구절은 매월 첫 주에 장병들에게 배포하고 한 달간 사용(묵상 또는 암송)한 후, 다음 달 초에 다른 구절로 교체한다면 1년에 12구절로서 사병이 근무기간만큼 2년에 해당하는 약 25구절 정도를 선정하여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플래시 카드의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성화를 배경화면으로 인쇄하는 것도 좋으며, 명함 두 배 크기의 용지를 절반으로

⁷⁷ 신일덕 장로의 간증과 같은 임마누엘 관련 간증들을 요약하여 수록하는 것도 좋다. 1990년 11월 16일 사이판행 보잉727기엔 신혼부부만 61쌍, 승무원 8명을 포함 165명이 탑승했다. 착륙 15분 전, 기관장의 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비행기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유압장치에 고장 났다고 한다. “기장님 수동장치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러기를 30분, 사이판 관제탑에선 바퀴가 안 나오면 절대로 메인 활주로에 내릴 수 없으니 비상착륙장으로 내리라고 한다. 자갈 투성이인 그곳에 동체착륙을 한다면 인명피해가 속출할 것은 뻔한 일이었다. 설상가상 열대성 폭우로 번개를 정통으로 맞아 15초간 암흑이 되었다. 객실은 비명과 울부짖음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연료계는 바닥에 가 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 7분, 이 시간에 착륙하지 못하면 모두 추락사 하게 된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살려 주십시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비 오듯 땀과 눈물을 쏟았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함께하시는 주님만 믿겠습니다.” 나는 기관사에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동장치를 돌려보게.” 놀라운 일이었다, 애를 써도 돌아가지 않던 기계가 부드럽게 움직였다. 계기판에는 바퀴가 모두 나왔음을 알리는 파란불이 들어왔다. 그런데 문제는 관제탑에 보고를 했더니 도무지 믿어주질 않았다. 나는 “보잉 727기의 기장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바퀴를 내려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연료계가 바닥입니다”라고 요청했다. 비행기가 활주로 위로 미끄러지는 순간 난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마이크로 “승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비행을 지켜주셨습니다”라고 방송했다. 기내에서는 안도와 환호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접었을 경우, 카드 전면(1면)에는 성경구절을 수록하고, 내지(2면, 3면)는 예화 또는 성경구절에 대한 주석적 설명, 후면(4면)은 임마누엘을 요청하는 기도문을 수록할 수 있을 것이다.⁷⁸ 임마누엘 구절을 선정하고 예화나 주석(또는 간증 요약 선정 등)하는 것은 (사)한국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이 주도하여 군종목사와 성서학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제작함으로써 견고한 신학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장병의 위기 대응방안으로서 임마누엘 접근을 통해 극도의 두려움, 불안-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개별적 신앙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문헌연구였다.

신앙은 의존적이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것이다. 이것은 모순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만 하고, 독자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모임이라는 것이 신앙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하지만 군 상황이라는 것은 매우 독특하여 평시에는 종교활동을 위한 회집이 가능하지만 전쟁 및 극한 훈련, 격오지 근무 또는 위기상황에서는 모이기가 여의치 않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신앙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독자적 신앙을 발휘하여 신앙을 ‘유지’ 또는 ‘지탱’해 나가야 한

⁷⁸ 기도의 예문: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훈련 중, 근무 중, 강하 중)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 주시고 저를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불안과 공포의 순간을 주님과 더불어 잘 극복해 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다.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실상 양육되고 성숙된 신자들에게 가능한 신앙행위이다. 신앙이 없는 자들은 위기상황에서 방황하게 되는데, 모든 장병이 온전히 양육되거나 성숙된 신자가 될 수는 없다. 신앙에 다양한 요소(기도, 예배, 상담, 금식, 찬양, 성찬 등)들이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시 또는 위기상황에서 모든 신앙요소의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접근’ 하나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탱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병들이 고립상태에 놓여 혼자 있어도 스스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독자적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특히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투력을 손상시키는 자살은 하나님 없다는 인식으로 인한 것이므로 임마누엘 접근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도 있다.

향후 이 주제와 관련하여 임마누엘 접근의 적용 전후에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연구가 뒷받침된다면 이 연구와 아울러 장병 신앙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임마누엘 접근을 군 목회 적용을 타진해 보는 시도이고 제안이며 이론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군에 적합한 신앙향상 방안으로서 적용점 모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수립된다면 임마누엘 접근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활용방안들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임마누엘 접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기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구상하거나, 성경공부를 마친 장병에 대해서 그 요절말씀을 플래시 카드에 인쇄하여

장병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구상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임마누엘 성경구절 가운데 어떤 말씀의 효과성이 높은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면 그 분석을 기초로 계급별, 상황별 플래시 카드에 포함될 말씀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directions through utilizing the Immanuel approach to overcome fear, anxiety-phobia, and suicidal thoughts created by the experiences in the crisis on a battlefield, in a combat training, or in hardship duty loca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firstly, the crisis situations in military, secondly, military ministry and faith in a battle and a war, thirdly, practices of individual faith as a method for crisis countermeasures, and fourthly, methods to apply Immanuel approach.

The Immanuel approach for military personnels will help prevent accidents in military, serve faithfully and diligently in their own unit. Also, the Immanuel approach will make military personnels healthy from helplessness, isolation, frustration and fear of death, anxiety-phobia created by the experiences in the crisis in military situation. The use of flash card is suggested as one of the effective methods amongst the Immanuel approach.

This study is a theoretical research on the key words.

주제어(Key words):

신앙(faith)

군선교(military ministry)

임마누엘 접근(Immanuel approach)

위기상담(crisis counselling)

한국군선교신학회 「군선교신학」 논문작성법

1. 논문에 대한 일반적 이해

가. 정의: 기록에 의한 정보전달의 한 수단이다.

- 1) 논문이란 형식으로 전달되는 정보는 전달자의 비평 평가가 곁들여진다는 점에서 일반 정보와 구별된다.
- 2) 그 정보에 비평이나 평가를 곁들인다는 것은 자기의 사상·견해 또는 주장의 타당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논증을 의미한다.
- 3) 논문의 양식이나 체제는 곧 집필자와 독자 사이의 약속을 의미한다.
- 4) 양식이나 체제에 크게 매인다는 점에서 논문을 가리켜 규격화된 정보전달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나. 논문의 요건으로는 독창성이 요구된다.

1) 독창성이란

- 가) 반드시 소재가 새로워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 나) 기존의 소재라도 다루는 방법이나 연구의 방향 또는 결론으로 이끄는 방법이 새로우면 독창적이라 할 수 있다.
- 다) 연구 결과가 타인의 것과 비슷하더라도 이론상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것이면 독창적이라 할 수 있다.

2) 독창성이 결여된 경우

- 가) 타인의 저술을 요약한 것.
- 나) 타인의 견해나 주장을 비판 없이 옮겨 놓은 것.
- 다) 이곳저곳에서 인용하여 교묘하게 꾸며 놓은 것.
- 라) 입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견해가 담긴 것.
- 마)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옮겨 놓은 것.

- 3) 특히 과학논문에서는 ①정확성 ②객관성 ③불편향성 ④검증성 ⑤평이성 등의 요건이 강조된다.

2. 논문작성의 원리

가. 주제선정: 주제는 논문의 근본이어서 그 선정 여하에 따라 논문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

1) 주제선정의 요건 :

- 가) 흥미를 가진 문제이어야 한다. 즉 유용성이 중요한 요건이다.
 - 나) 폭이 좁고 깊이가 있는 문제이어야 한다.
 - 다) 자료수집이 가능한 문제이어야 한다.
 - 라) 독창성 또는 참신성이 있는 문제이어야 한다.
 - 마) 명확한 결론의 도출이 가능한 문제이어야 한다.
- 2) 논문의 주제를 압축하므로 논점을 뚜렷이 하여야 한다.

나. 자료수집

1) 다양한 자료수집방법

- 가) 실험이나 관측 또는 현장조사 등으로 얻어지는 데이터.
- 나) 개인이나 집단과의 면담에서 얻어낸 사실.
- 다) 문헌자료가 중요하며 주로 도서관에 의존하게 된다.
- 라) 참고문헌을 선정하고 자료 수집의 방향이나 목표를 정한다.
- 마) 얻어진 정보를 기록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2) 자료의 평가

- 가)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 나) 자료에 대한 평가 안목을 길러야 한다.
- 다) 참고문헌의 선정·문헌에서 얻은 정보의 기록·자료의 편성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자료의 편성

- 가) 수집되고 평가된 자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되어야 한다.
- 나) 자료들 사이의 연계성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 다) 이와 같이 자료를 편성하는 것은 논문의 뼈대를 만드는 일이다. 즉 논문의 구성이다.
- 라) 자신의 논지를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이 구성

에 달려 있다.

3. 원고작성

1) 원고작성의 의미

- 가) 조사 연구한 결과로 얻어진 사실(정보)과
- 나) 이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비판과 평가를 종합하여
- 다) 이것을 글로 표현하되 적절한 양식에 따라 기술하는 것이다.

2) 원고작성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

- 가)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나) 각종 표기와 양식의 정확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 다) 논문 전체의 체제문제 즉 제출양식이 정비되어야 한다.

3) 논문의 기본형식(서론 본론 결론)

〈서론〉

- 가) 문제 제기와 논문의 주안점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 나)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다.
- 다) 가능한 한 간단하고 명료해야 한다.

〈본론〉

- 가)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논증하는 부분이다.
- 나) 자신의 연구결과의 정확성이나 해석의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다) 충분한 증거가 갖추어져야만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
- 라) 논리학적 수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 마) 선입감에 빠지거나 독단에 흘러서는 안 된다.
- 바) 타인의 해석 견해 주장 등에 대하여 비판할 때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결론〉

- 가) 본론의 논증 결과를 바탕으로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판단하고 매듭짓는 부분이다.
- 나) 자신의 조사, 연구의 범위에 머무르며 과대한 단정이나 비약된

독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

다) 본론에서 충분히 밝혀지지 못했으나 앞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금후의 과제로 언급할 수 있다.

라) 본론에서 이미 논의된 것에 대하여 증언부언하거나 미련을 남기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4) 논문의 길이

가) 형식과 함께 논문의 길이가 중요하다.

나) 주어진 길이에 충실해야 한다.

다) 논문 목차가 결정되면 사전에 길이를 배정하는 것이 좋다.

5) 초고작성

가) 논문은 경우에 따라 몇 번이고 수정을 거쳐 완성되기 때문에 초고작성이 필요하다.

나) 초고에는 각주번호를 매기지 않지만 어느 곳에 각주가 필요한가를 처음부터 표시해야 한다.

다) 초고에 대한 검토는 논문의 통일성, 기록의 정확성, 문장 자체 등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6) 인용: 빌려온 자료 즉 남의 것을 인용하여 쓰는 것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가) 권위 있는 이론이나 주장 또는 표현을 제시함으로써 자기 소신의 타당성 정확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나) 남의 이론이나 자기 소론과의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자기 소론의 정당함과 정확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다.

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나 견해가 있을 때 이를 비교 대조함으로써 자기의 소론을 전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 인용은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이므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 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 인용은 직접인용과 간접인용 등이 있으며 응용의 기술은 다양하다.

7) 논문의 표기 표현(문장기법)

- 가) 서술이 늘어지면 정보의 정확한 전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논문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 나) 쉬운 말을 쓰는 게 좋다.
- 다) 외래어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 하며, 이의 남용 시 문장의 품위를 떨어지게 한다.
- 라) 논문에서는 경칭이나 경어를 쓰지 않는다.
- 마) 논문 문장에서는 최상급 수식어를 삼가는 것이 좋다.
- 바) 논문 집필자 자신을 지칭할 때에는 제 3인칭으로 “필자”로 쓰는 것이 통례이다.
→ 표(表)와 도(圖)의 사용법에 유의하여야 한다.

8) 원고의 완성

- 가) 초고작성 후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수정을 거듭하고,
- 나) 서론 본론 결론까지 논지가 분명하며 논리가 명확한가를 확인하고,
- 다) 인용부분의 정확함과 정당성의 담보를 점검하며,
- 라) 올바른 문장기법에 의하여 집필이 이루어진 것을 원고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 마) 완성된 원고는 이제 인쇄되고 발표되고 새로운 정보로 세상에 전달될 것이다.

4. 논문 작성의 실제

1) 논문작성 시 주의사항

- 가. 동일 필자는 한 호에 한 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으며,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학위 논문 포함)에 게재하지 않은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 나. 분량은 A4 용지 15매를 기준으로 하며, 공모 논문의 경우 15매 이내로 한다.
- 다. 주는 각주를 사용하고 논문(발제 기고, 자유 기고) 마지막 부분에

참고문헌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라. 영문 제목과 영문 이름 및 영문 초록(abstract)을 제출하되, 영문 초록은 논문의 대의와 논지가 잘 전달되도록 300단어 정도로 작성한다. 초록의 끝에는 필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를 첨부한다.

마. 주제어(Key Words)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다.

바. 논문의 글꼴은 신명조 11호, 행간은 160%, 각주는 바탕 9호 행간 130%로 한다. 용지 여백은 좌/우 30, 위 20, 아래 15로 한다.

사. 게재 원고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논문 제목 2) 필자명(간략한 프로필) 3) 논문 본문 4) 참고 문헌 5) 영문초록 6) 제어(Key Words)

아. 투고 논문이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일 경우 제 1저자 및 공동 저자를 구분하고 그 소속을 명기한다.

자. 논문 작성법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투레비안’ 양식에 따라 논문을 작성한다.

〈참고〉 Turabian, Kate L.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 6th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카. 원고 접수처는 아래와 같으며, 원고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한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

E-mail: meak@v2020.co.kr

타. 투고된 논문은 한국군선교신학회의 심사 규정과 절차에 의거하여 「군선교신학」 논문집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각주와 참고 문헌 표기의 실례

가. 단행본¹

¹ 아래에서 N은 각주를, B는 참고문헌을 각각 의미한다. 한글 서적 표기는 ‘아래 한글’의 ‘Ctrl F10’을 누른 후 ‘반각기호(도형)’에 들어가, 책은 ‘」’으로, 논문집일 경우 ‘」’로

〈단행본의 기본 표기 양식〉

국내서적	N	저자명. 『서명』 (출판자: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 페이지
	B	저자명. 『서명』. 출판자: 출판사, 출판년도.
외국서적	N	저자명. 서명(이탈릭체로) (출판자: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 페이지
	B	저자명. 서명(이탈릭체로). 출판자: 출판사, 출판년도.

〈저자 1인의 경우〉

N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1998), 97.

B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1998.

N Nathan E. Han, *A PARSING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cottdale: Herald Press, 1971), 57.

B Han, Nathan E. *A PARSING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cottdale: Herald Press, 1971.

〈저자가 2인 이상의 경우〉

N 장종현, 최갑중, 『사도바울: 그의 삶, 편지, 그리고 신학』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22.

B 장종현, 최갑중. 『사도바울: 그의 삶, 편지, 그리고 신학』.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N Stanley M. Honor and Thomas C. Hunt, *Invitation to Philosophy: Issues and Options* 3r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78), 37.

B Honor, Stanley M. and Hunt, Thomas C. *Invitation to Philosophy: Issues and Options*. 3r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78.

나. 편저

N 김우창, 김형규 (공편), 『문학의 지평』 (서울: 고려대출판부, 1984), 12.

표기한다.

B 김우창, 김형규 (공편). 『문학의 지평』. 서울: 고려대출판부, 1984.

N Carl F. Henry ed., *Basic Christian Doctrin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25-26.

B Henry, Carl F. ed. *Basic Christian Doctrin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다. 번역서

N 자크 르고프,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1), 100.

B 르고프, 자크.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1.

N Michel Foucault, *The Archeology of Knowledge*, trans. A. M. Sc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1972), 150.

B Foucault, Michel. *The Archeology of Knowledge*, trans. A. M. Sc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1972), 150.

라. 논문

〈논문의 기본 표기 양식〉

학술지	저자, “논문 제목(명),” 「학술지 명」 권수(발간년도), 인용 페이지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집 저자가 동일한 경우〉 저자, “논문 제목(명),” 『도서명』 (발행자: 출판사, 연도), 인용 페이지
	〈논문 저자와 논문집 편집자가 상이한 경우〉 저자, “논문 제목(명),” 『도서명』 편집자 (발행자: 출판사, 연도), 인용 페이지

〈학술지〉

N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 연구」 47 (2013), 159.

B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 연구」 47 (2013).

N Gerald Bonner, “Pelagianism and Augustine,” *Augustinain Studies* 23 (1992), 35.

B Bonner, Gerald. “Pelagianism and Augustine.” *Augustinain Studies*

23 (1992).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집 저자가 동일한 경우〉

N 김명수, “한국의 교회 부흥,” 『현대교회의 동향: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7), 34-35.

B 김명수. “한국의 교회 부흥.” 『현대교회의 동향: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7.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 편집자가 상이한 경우〉

N 홍수길, “신약신학의 동향,” 『진리와 자유』 신학대학협의회편 (서울: 자유출판사, 2001), 380-381.

B 홍수길. “신약신학의 동향.” 『진리와 자유』 신학대학협의회편. 서울: 자유출판사, 2001,

N Thomas Walter Manson,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and others,” *The Romans Debate*, ed. Karl Paul Donfried (Peaboy: Hendrick-son, 1977), 14-15.

B Manson, Thomas Walter.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and others.” *The Romans Debate*. ed. Karl Paul Donfried. Peaboy: Hendrick-son, 1977.

〈학위논문의 경우〉

N 이석우, “군목의 역할 속에 나타난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육군 군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55.

B 이석우. “군목의 역할 속에 나타난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육군 군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N Hyung-Ki Rhee, “A Study of Man in Erasmus & Luther,” (doctoral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1980), 88.

B Rhee, Hyung-Ki. “A Study of Man in Erasmus & Luther.” doctoral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1980.

〈인터넷 사이트의 논문〉

N Evans Chan, “Postmodernism and Hong Kong Cinema,” *Culture* 10. 3 (2000), Project Muse. 20 May 2002 <<http://muse.jhu.edu/journals/pmc/v010/10.3chan.html>>.

B Chan, Evans. “Postmodernism and Hong Kong Cinema,” *Culture* 10. 3 (2000), Project Muse. 20 May 2002 <<http://muse.jhu.edu/journals/pmc/v010/10.3chan.html>>.

5) 영화작품: 영화명, 감독, 주요배우, 배급자와 연도.

N *It's a Wonderful Life*, Dir. Frank Capra, Perf. James Syewart, Lionel Barrymore, and Thomas Mitchell, RKO, 1946.

B *It's a Wonderful Life*, Dir. Frank Capra, Perf. James Syewart, Lionel Barrymore, and Thomas Mitchell, RKO, 1946.

5. 원고 작성방법

- 가. 도표는 반드시 “표”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나. 장절의 표기는 1, 가, 1), 가), (1), (가) 의 순으로 한다.
- 다. 연대의 표기는 서기를 원칙으로 한다.
- 라. 서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마. 인용문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 바. 인용문이 2행 이상인 경우에는 별행으로 처리한다.
- 사. 필자가 덧붙인 설명은 []안에 넣어 원문과 구분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밑줄을 긋고 ()안에 ‘원문’이라고 표시한다.
- 아. 서양어의 서명이나 논문집명은 이탤릭체로 명기한다.
- 자. 페이지 인용의 경우 쪽이나 p.를 붙이지 않아도 무방하다.

카. 각주와 내주를 모두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각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타. 각주 방식

- 1) 처음 인용할 때는 위의 제시처럼 자세히 소개한다. 두 번째부터는 저자의 경우 성만 표기하고, 제목의 경우 단행본과 논문에서 적절하게 두세 단어를 취하여 저자, 저서(논문명), 페이지의 순으로 처리한다.

〈단행본〉 Fitzmyer, *Luke I-IX*, 220.

〈논문〉 Barrett, “Westcott,” 12.

〈번역서〉 브루스, 『신약사』, 121.

- 2) 국문인 경우는 성명을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
- 3) 계속 등장하는 동일한 책이나 논문은 반복하여 쓰지 않고 *Ibid.*를 사용한다.
- 4) 바로 앞에 인용한 자료를 다시 참고할 경우 그 사이에 다른 자료가 들어가면 *Ibid.*를 쓸 수 없다.

파. 본문 말미의 참고(인용)문헌에는 본문에 인용한 문헌만 제시한다.

군선교신학 15

1판 1쇄 발행 _ 2016년 10월 6일

발행처 _ 한국군선교신학회(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기관)

주소 _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0 101호

TEL _ 02-744-2661~4, 02-3675-2020

홈페이지 _ <http://www.v2020.or.kr>

E-mail _ meak@v2020.co.kr

제작처 _ 쿼란출판사

주소 _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

편집부 _ 745-1007, 745-1301~2, 747-1212, 743-1300

영업부 _ 747-1004, FAX 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 _ 0502-756-1004

홈페이지 _ <http://www.qumran.co.kr>

E-mail _ qrbooks@gmail.com / qrbooks@daum.net

한글인터넷주소 _ 쿼란, 쿼란출판사

등록 _ 제1-670호(1988.2.27)

편집위원 _ 위원장: 김성봉 목사

위 원: 이규철 목사, 김대덕 목사(총무)

책임교정교열 _ 이규철 목사·김대덕 목사·심미숙 팀장·박종민 주임

값 12,000원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파본(破本)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